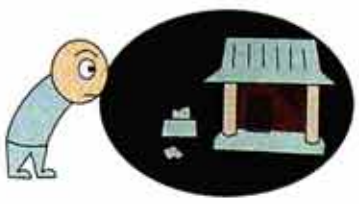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9월 15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8 호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방치된 폐사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폐사지는 3천2백여개에 달한다. 경주 황룡사지나 강화 선원사지, 원주 거돈사지, 양주 회암사지, 여주 고달사지, 제주 수정사지 등 발굴된 몇몇 사지들을 제외하고는 이름조차 낯선 사지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문제는 마을 어귀나 산 등성이의 빈터로 남겨져 있는 이름없는 사지 관리에 있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어둔리사지니 박곡사지니 하는 식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들 사지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은 그 곳이 사지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채 밭을 만들거나 묘지로 쓰는등 훼손하기 일쑤다. 심지어 사지에 남아 있던 유물들은 놀러 온 관광객들이 주워가거나 마을 주민들의 생활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유지에 있는 원주 흥법사지의 경우 보존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땅주인과 가격으로 인한 마찰이 있어 남아 있는 탑과 탑비 사이는 고구마밭으로 되어버렸다.

밭이나 묘지로 훼손
범종단적 조사 관리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지들만 관리하고 있고 지자체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한 몇몇 사지들만 간신히 돌보고 있을 뿐 지역 내 어떤 사지들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에서 〈불교사원지〉 상하권을 펴내며 전국의 사지 3천2백여 곳을 총망라해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치나 성보문화재 유무 등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안한다면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이 사지 관리를 해야 한다. 종단은 자체적으로 본말사 제도를 활용해 교구에 위치한 사지를 돌보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담당자 소양교육 등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 박물관과 연계해 문헌조사 및 현장탐문 등을 통한 사지의 역사적 지위 등을 밝혀 발굴 관리에 따른 예산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 또 종단 협의회 등을 통해 불교계 전 종단이 각자 유관 사지를 돌보고 복원하고자 하는 의식개선을 하고 사지관리에 나서야 한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허공장회 안면암 개원-포교船 운영

낙도 포교 '돛' 올렸다

낙도청소년 장학재단 설립 1억 출연도

내년부터는 서·남해안 낙도포교를 위한 배(船)가 도서지역을 순례하며 낙도지역 주민들에게 의약품전달및 의료시술, 생필품전달, 불교포교등을 펼치게 된다.



◇허공장회에서 건립한 안면도 안면암 전경.

허공장회(지도법사 지명 청계사주지)는 3일 황남성화 회장등 회장단과 전국조장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7년전부터 준비해온 낙도포교를 위해 낙도포교선운영, 낙도청소년장학재단을 설립키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교계의 낙도포교를 위한 '불'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됐다.

낙도청소년 장학재단 설립에 1차로 1억원의 재원을 출연한 허공장회는 올해 낙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기금을 늘려 대학생까지 수혜폭을 확대키로 했다.

낙도포교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포교선을 운영하기 위해 회원들이 회에 시주한 공명시 7천평, 과천시 2백여평의 땅을 팔아 올해안에 배를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허공장회는 이미 충남 서산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해변에 안면암(조실 혜광)을 건립하여 98년 10월 점안식을 갖고 융해초 공식 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공식등록한 안면암은 대지 8백25평, 건평 5백평, 지상 4층규모이며, 1층은 공양처, 2층은 불자수련장, 3층은 소법당이 현대식으로 건립되고 4층에는 대웅전과 선원, 불경독서실이 전통사찰양식으로 완공됐다. 본관 옆에는 용왕각과 삼성각도 들어서 있다.

안면암은 허공장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문보경화)가 직접운영하며, 매월 음력 7일 법사스님을 초청하여 기도및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낙도포교를 위한 전진기지로 과천에 건립중인 안면암포교원을 올해내 개원한다. 안면암포교원에는 낙도포교 연락사무실과 회의실, 법당을 갖추게 된다. 안면암에서 열리는 법회 및 기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은 안양시 인덕원 사거리에서에서 음력 7일 오전 7시이다. 011-730-2286(문사수) 019-281-2286(진여화)

회장 황남성화보살은 "지도법사 지명스님의 지도로 낙도오지 어민들에게 불법을 전달하겠다는 발원을 세우게 됐다"며 "앞으로 10여대의 낙도포교선을 운영하여 낙도민들의 눈과 귀가 돼,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공장회는 75년 불교포교와 지명스님 미국유학 지원을 목표로 노보살들이 원력을 모아 창립한 단체로 국내에 144명, 미국 LA와 필라델피아에 4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자칼럼 6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전사법개정안 '국회로'

의원 27명 입법안 제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전사법 개정안은 국민회의 연등회 회장 박상규의원을 비롯한 12명, 자민련 5명, 한나라당 10명 등 27명의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전사법 개정안은 6조2조항을 신설, '전통사찰 보존 및 수행환경 보호위지등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연등회 이상곤 사무국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다"고 내다봤다. 도필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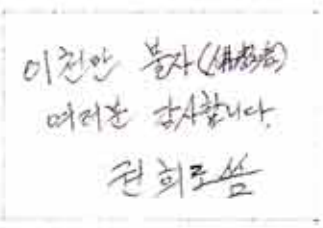
◇8일 삼중스님 안내로 불국사를 참배하고 있는 권희로씨. 권씨는 남은 여생을 고국의 부처님품에서 가르침대로 회향하는 삶을 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사진=영남일보 제공〉

"부처님 품서 봉사의 여생"

권희로씨, 자비사 · 불국사 참배

'삼중원' 설립추진위 현판식도 참석

'신앙' 과도 같았던 어머니 대신 부처님이 있었다. 일본에서의 31년간 수형생활을 끝내고 지난 7일 고국에 도착한 권희로씨(71)는 이제 남은 여생을 부처님 품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회향의 삶을 살게 된다.



권씨는 귀국 3일째인 9일 '김의 전쟁'을 제작한 한진흥업주식회사 한갑진 회장이 주최한 만찬에 앞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준 불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씨는 '이천만 불자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친필로 적어주면서 본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왼쪽 손목에 단주를 찬 권씨는 "절에도 자주 가서 예불도 올리고 부처님 뜻에 따라 봉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씨는 도착 첫날 곧바로 부산 자비사에 어머니 유해를 봉안했으며, 이틀째인 8일 오전에는 경주 불국사를 참배했다. 이어 오후에는삼중스님의 후원으로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설립을 추진중인 사회복지법인 삼중원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에 참석했다.

삼중스님은 "권씨가 삼중원 고문과 명예원장직을 맡아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를 복지사업으로 승화시킬 것이며, 신행생활도 열심히 해 참불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 천미희 기자

"승려노후복지원 2001년 세운다"

조계종 복지재단 '추진안' 총무원에 건의키로

이르면 2001년에 '승려노후복지원' 건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지난 6월말부터 8월까지 두달간 스님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25명(86.2%)이 승려노후복지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임에 따라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복지재단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9일 교육원, 기획실 등의 관련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승려노후복지원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한편, 이를 총무원장 고산스님 등 종단 집행부에 보고형식으로 건의키로 했다.

복지재단은 이번 보고내용에 대한 종단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경우 내년도에 승려노후복지원 부지를 선정하고 2001년 착공이 들어간다는 계획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건립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어디에 어떤 형태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안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은 승가전체가 노후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단차원의 연금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종헌 제116조에는 '승려의 노후생활과 건강을 위해 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건립요구와 계획이 끊이지 않았었다. 지난해 본말사 주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승려노후복지대책'이 가장 시급한 종단현안으로 대두되는 등 더이상 건립을 미룰 수 없'는 분사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명나눔 9월 대법회 현혈, 화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일시: 9월 19일(일요일) 오전 10시
◇장소: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34-8050(생명나눔) (0343)472-3100(한마음선원)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판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로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2-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 제조원 : 금 성 통 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게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8, 마하몰 대구지사 053)768-6006,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 부산 : 삼장원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986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52)282-705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551)295-8911 · 진주 : 마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

사 설

사찰의 '산 지킴이'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시절에나 있을 법한 개발지상주의의 망령에 들씌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문화와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관료의 몰지각이 합께 어우러져 모든 생명들이 함께 누려야 할 환경을 무차별하게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것에 대한 조금만큼의 인식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선심성 정책에 귀중한 문화재들이 절박한 수난의 위기에 몰려있다.

경주를 관통하는 고속철을 놓아 세계에 드문 천년고도이며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던 무지한 발상이 바로 어제의 일이었다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의 파괴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건축법 8조 4항의 폐지, 문화재 도난 도굴과 불법적인 매매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거두어버린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은 바로 오늘의 일이다. 역대의 정권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한결같이 문화와 환경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反)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사찰 환경과 불교 문화재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찰들에서 보호를 해 왔기에 유일한 대규모 녹지로 전국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사찰림들이 이만큼 보존돼 왔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불교의 성보들은 단지 한 종교의 성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함께 보존에 힘써야 할 민족의 문화재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불교가 도맡아서 이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점을 평가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께 이들을 보존하는데 나서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을 개정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꾸로 그나마 의지가 되던 보호막을 걷어버린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시대 역행적 정책을 제때에 막지 못한 종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뒤늦게나마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요구하여 여러 대체입법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한편 다행한 일이지만, 종단은 이를 마지막 저지선으로 알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는 10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릴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결의 대회는 모든 불자들의 힘을 모아, 온 국민에게 사찰환경과 불교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교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지 불교라는 울타리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과 앞서가는 실천을 펌으로써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가 직접 이해관계가 닿아야만 목소리를 내는 종교로 인식되는 한, 사찰환경과 문화재보호 운동도 종교적 이기주의로 치부될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실상사, 해인사, 월정사, 석남사 등 전국 주요 사찰들이 산지킴이에 나서 환경단체,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불교를 통한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더욱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 이념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러한 운동에 전국의 모든 사찰이 참여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쌓아가야 사찰환경과 문화재 보호가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환경 보호와 문화재 보호에 앞장을 서야 한다.

조계사 성역화추진위 출범

고산스님 "사부대중 동참"모연문 발표…내년 4월 착공

조계종총무원은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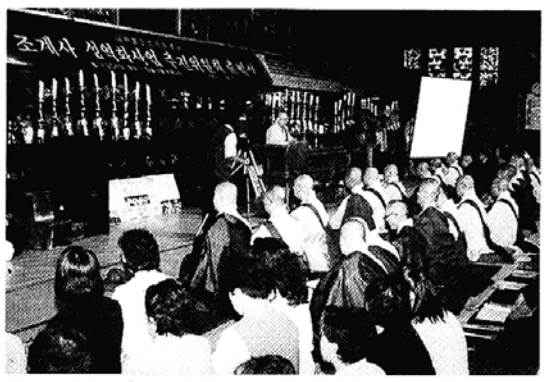
출범식에는 원르회의 의장 탄성스님과 부의장 도원스님, 석주 종산스님,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 도후 혜광 법장 보광스님 등 11개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장 법등, 부의장 명진, 종회의원 영배 학담스님,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종정교시 발표, 축사, 성역화사업 설명, 발원문 모연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이날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이 대독한 모연문을 통해 "총무원청사 건립은 새롭게 일신하겠다는 우리 승가의 다짐이며, 부처님의 유업을 길이 계승하겠다는 종도들의 발원"이라며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축사를 통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원정사를 지은 급고독장자처럼 원력만 지중하면 반드시 성대한 회향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중앙종회도 이 불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원택스님은 출범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착공 시기와 시공사 선정은 실시설계도가 마련되는 내년 4월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3면>

집행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집행위원회를 4개 위원회로 나누고, 기획위원장에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재정위원장 자승(총무원 재무부장), 홍보위원장 만성(총무원 기획실장), 조직위원장은 계성(교육부장) 지현(종회의원) 현진(포교부장) 스님이 각각 맡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사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는 7일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거행하고 대작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했다.

고산스님 '성역화 불사' 바쁜걸음

총무원청사 건립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고산스님은 원로의원 초청 간담회를 6일 서울 필동 한국의집에서 열었다. 석주스님등 7명의 원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총무원장은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원로의장 탄성스님은 추석 전 원로회의를 열어 청사 신축불사에 종도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이어 8일에도 종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3선 이상 종회의원 초청 만찬간담회를 열고 "지난 종회에서 결의해 특별회계까지 책정한 사업이니 중앙종회에서 끝까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이후에도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열리는 '자비의 대중화' 법회에 참석, 성역화 불사에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스님대상 첫 전문포교교육

조계종, 11월26일까지

스님을 대상으로 한 포교 전문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정련)은 9일부터 11월26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오후 2~4시 조계사 강의실에서 포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일 강의실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이번 교육이 예상외로 높은 관심을 끈 것은 일선 포교현장의 스님들이 그만큼 포교 전문교육에 목말라하고 있는 증거"라면서 "스님들이 반드시 이수하는 포교전문교육 및 재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종단 행정에서 포교에 진력하는 스님들이 우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는 정원 40명에 60명 이상의 스님들이 원서를 냈으나 강의공간이 협소해 48명만 접수를 받을 정도로 스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비구스님보다는 비구니스님(28명)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진흥회해체 사실무근" 종단진흥회 회의결의

종단협의회 회장 중심으로 단결해 불교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던 지난 8월 9일 종단협의회 대표자회의 결의를 종단진흥회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종단진흥회는 8월 3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종단진흥회가 해체되었다는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참석 전원의 만장일치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해체론과 관련해 사무총장 남정스님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스님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 종단진흥회에는 법화종 총화종 해동종 대각종 미륵종 대승종 등 18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14개 종단 총무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학인들 사미의제 수용의사

29일 학인연합의장단 회의서 결의할듯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이 10월부터 사미(니) 의제의 전면 실시를 결의하고 사미(니) 위계 확립을 위한 5대 종무방침을 밝힌데 대해 강원, 기초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에 재학중인 학인들이 대체로 수용할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전통강원연합, 중앙승가대 총학생회, 동국대 서울·경주캠퍼스의 학인 대표들은 29일 총무원 1층 청사에서 전국승가학인연합 의장단 회의를 열고 종단의 사미(니) 의제 전면 시행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종단의 5대 종무방침을 수용하되, 행자교육원 14기 이후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는 유보조항을 둘 것을 요청하는 절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사미(니)의제 전면실시는 그동안 충분한 시행 유보기간을 둔 만큼 예외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추후라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공원입장료 폐지' 결의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혜광)와 국립공원내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는 7일 불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권 당일 사용 방침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결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지침은 총무원 사회부에서 마련키로 했다.

관람료위원회는 또 강원도 인제 백담사(주지 마근)를 관람료 사찰로 지정했다. 백담사에는 보물 제1182호 목조아미타좌상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1호 석가사리탑이 있다. 관람료는 1200원. 정성운 기자

승가대 김포학사특위 합동조사단 구성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종하)는 9일 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열어 '중앙승가대 신축공사 실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앙종회 의원 3인(영담 대원 정영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교육원 교육부장,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중앙승가대 동문회장 및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김포학사에 대한 실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종단 집행부와 종회, 학교측이 모두 참여하는 투명한 합동조사를 통해 이해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는 학교 이전불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10월 : 봉림산문(봉림사지)·성주사·장유암

10월에는 현욱선사(787~868)에 의해 개창된 봉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봉림사지를 찾아갑니다. 봉림사지에서는 고려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때 경남 지방의 선풍을 진작시켰던 향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년 고찰 성주사에서는 대웅전(지방문화재 제134호)과 3층석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야시대의 장유화상이 토굴을 짓고 수도하며 불법을 수로국에 전한 효시가 됐다는 유서 깊은 장유암도 참배 합니다.

◇출발: 10월 9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섬마다 부처님을

성 명 서

근간 불교계 신문에 수차에 걸쳐 마치 종단 내부에 분쟁이라도 야기된양 무경우하고도 일방적인 광고를 보도하여 불교계에 누를끼치고 안으로는 종도들을 현혹시켜 종단의 질서를 물란케 하고 있는 종권과 재물에 눈이 어두운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의 망동에 대하여 전종도들과 총무원측에서는 말없이 귀추만을 예의 주시해 왔으나 끝내 자제와 뉘우침이 없이 종조앞에 부끄러움을 외면한채 온갖 망동을 자행하고 있음으로 더 이상 좌시만을 할 수 없어 삼보전에 참회하고 종조앞에 참회하며 만부득이 이 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그 진상을 밝히는 바이니 전 불교도와 종도들은 깊은 성찰로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금번 이 법란을 야기시킨 해종행위자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삼보와 종조 원효성사 앞에 참회하며 부질없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 음

1. 종단 임원회의 건

1999년 7월 16일 울산광역시 경남교구 종무원 능인포교원에서 개최된 종단 임원회의는 그 동안 종정스님으로부터 총무원장에게 1997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시 종정선시를 통하여 종정스님 스스로가 종정중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종단운영체제를 총무원장 중심제로 개정 운영토록 하라는 선시에 의하여 종회의원 전원의 환영리에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한 것을 다시 종정중심제로 환원시키고 총무원 서울사무국을 부산 금수사로 이전하고 1999년 7월22일 종회를 소집하여 당문제들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으로 이 문제는 총무원장 단독으로 결정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에 임원회를 개최하고 중론을 수렴하여 처리하려고 한 것을 마치 해종행위를 선동한냥 신문지상에 광고를 왜곡하여 보도한 사실이며,

2. 종령 선포 건에 대하여

종헌 제3장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종정의 권한을 종헌종법의 제정 및 선포와 종법이 정한바에 의한 종단의 임원 임명권으로 되어있고 동조 제4항의 단서에는 [종정의 고유와 종령으로써 종헌종법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종정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남용치 못하도록 분명하게 입법화된 것이며, 1969년도 발생된 종단의 법난으로 하여금 '윤규헌' 과의 재판과정에서도 종정의 고유와 종령은 종헌종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3. 중앙종회의 해산

1999년 7월 23일자 불교신문, 법보신문등에 광고한 중앙종회 해산 건에 대하여서는 중앙종회의 해산은 종령으로 처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앙종회는 본 종단의 최고 입법기관이며 의결기관으로써 본 종단이 해체되거나 해산하고자할 때에 한하여 그리고 종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종헌 제3장 제29조와 제 30조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중앙종회를 의장이 소집하여 의결로써 처리하게 되어 있지 종정이 종령으로 종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4. 본 종단의 최고 입법기관은 중앙종회입니다.

총무원 서울사무국 문제와 종정중심제에서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종법을 개정 및 제정한 것은 종헌 제26조에 의거 종회의 기능 제1항 종헌 개정 및 종법제정의 종회 결의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고 종헌 제28조에 의한 법안 공포는

① 종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총무원에 이송하여 10일이내에 종정과 총무원장의 부서로써 공포하기로 한데 대하여 하등의 하자가 없는 의결이었음을 알립니다.
② 이송된 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무원장은 이의서를 첨부해서 중앙종회에 환부하여 재의케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으며,
③ 확정된 법안은 종법으로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1999년 7월16일 임원 연석회의에서 의안으로 된 1, 2항은 종헌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종정과 총무원장의 부서로써 종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의되어 공포된 사항을 재확인한 것뿐입니다.

5.종정이 종회를 소집할 수 없다.

종회 소집권은 종회의장에게 있는 것이지 종회의장이 알지도 못하는 종회 소집공문을 종회의장명으로 작성하여 종회의장 직인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정 직인을 멋대로 조작하여 그 위조 도장을 찍어 소집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엄연한 공문서 위조이며 인장도용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는 불법성에 대하여 실로 개탄을 금할 길 없으며, 종정예하의 무지가 발로되어 본 종단의 명예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종헌 제29조(회기) 제2항에 의거 종단 내에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했을시는 총무원장과 종회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종회의장이 임시종회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종헌 제30조(긴급사항)폐회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종회의장과 종회 분과위원회가 종회의 동의권과 감사권을 대행하고 다음 종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있는바,

① 종정에게 종회를 소집할 권한이 부여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② 종정이 종령으로 종회를 해산시킬 권한 또한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본 종단이 1987년 이후 수년동안에 걸쳐 법란으로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오다 현 총무원 체제가 확립되면서부터 겨우 종단의 질서가 확립되고 종세도 확장되어 명실공히 종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됐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1999년 8월 3일자 불교신문, 법보신문 등에 광고된 소위 중앙종회 해산에 관한 종령선포는 일부 퇴출자들의 허욕에 눈이 어두워 날조된 사실임을 전불교도와 종도들에게 밝히며 금번 이 법란을 야기시킨 일당들은 삼보와 원효성사 앞에 깊은 참회있기를 전종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공문서에서 인용된 법조항은 총무원장 중심제로 개정한 이전의 (구) 종헌의 조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3년(1999) 9월 1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회 참석의원 일동

"21세기 신행혁신 이끌어야"

새 신도회장 맞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중앙조직 1차 정비-사업확정등 '활기'
재정 운영 자율성 확보위해 화합필요

지난 8월20일 새 회장에 백창기씨(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를 선출한 조계종 중앙신도회(이하 중신회)가 16일 회장 취임법회(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를 계기로 중앙조직을 재건하는등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신회는 9일 사무처에서 제11차 운영회의를 열고 수석부회장에 명호근, 상임부회장에 안동일씨와 조계사신도회장 등 15명의 부회장을 선출했다. 또 포교원장 정련, 교육원장 일면스님, 고은 서돈각 손현수 주영운 한갑진씨 등 12명을 고문에 추대하고 공종원 민병천 명국환 신광식 안숙선씨 등 21명을 지도위원에, 조영황 민병준씨를 감사에, 김수필 안영대씨 등 8명을 이사에 각각 선임하는 등 중앙조직을 1차적으로 정비했다.

중신회는 또 △월1회 법회 참석하기 △1인 1사회봉사활동 참여 △불교방송 청취 및 교계신문 구독운동 △모범신행 발굴, 표창 △법회활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불자신행혁신 운동'과 생명(환경)운동 및 (지역·도농)공동체 운동 등 불교의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활동, 사찰 및 지역신도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사업을 중장기 사업기조로 확정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단체현황 및 연합활동에 대한 조사사업과 지역



◇중앙신도회 현판

순회 간담회의 실시, 교무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0년 사업기획단 구성, 중앙신도회 및 교구신도회 깃발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신회가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와 일부의 무효 소송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3년여간 표류해 온 중신회가 기왕 새 회장을 선출한 만큼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회원들의 여망이 강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회장 선출과정에서 신도회 운영의 자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새 회장에 반대했던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중신회의 정상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에 협력한 것이 중신회의 새 출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신회는 이번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대의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총무원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없을 정도로 모든 의사결정이 자율적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신도대표기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각급 신도회를 활성화시키고 신도교육을 통해 불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신도운동의 전형을 새롭게 만들어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무원 역시 중신회를 예전처럼 종단의 산하 단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재가단체 대표기구로서의 위상정립과 재가불자운동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신회와 총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종단에 대한 외호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활발하고 자율적인 신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을 위한 신도교무금의 이관문제와 재가자의 종단 종무행정 및 사찰재정 참여 확대 등 민감한 문제를 관계법령의 보완을 통해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창기 신임회장은 21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화·문화의 시대에 맞는 신도운동을 펼쳐 종단과 함께 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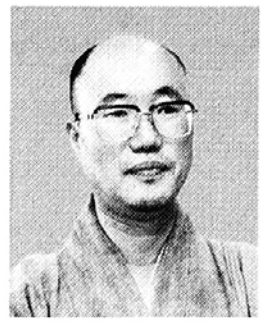
결국 중신회의 자구노력과 개혁의지와 함께 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종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총무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중신회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간 중신회를 지루하게 지켜본 불자들은 출가와 재가가 불교공동체의 두 수레바퀴가 되어 21세기를 선도하는 법륜을 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여론수렴에 최선"
"재정마련 무리없다"

성역화 집행위원장 원택스님



조계사성역화 추진위 집행위원장 원택스님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마련 방안, 내년 4월 착공 등 이후 진행계획을 밝혔다. 원택스님은 "여론수렴 절차의 문제, 전 총무원장 때 작성한 마스터플랜의 폐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등 여러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사부대중의 뜻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

-대웅전이 서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웅전 이전 계획은.

▲대웅전을 해체해 이전하는데 40억원이 필요하다. 또 목재가 오래 되어 실제로는 70~80억원이 든다. 공사기간도 늘어난다. 대웅전을 자리잡을 당시 여러 스님들이 요모조모 따져 자리를 잡았는데 쉽게 옮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직 밑그림을 그린 것 뿐이다.

-총무원청사를 봉은사나 중앙승가대 개운학사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조계종의 상징적인 사찰인 조계사를 떠난 총무원은 단순한 사무공간에 불과하다. 조계사를 의지한 총무원이어야 정신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장스님의 생각이다. 승가대 개운학사로 청사를 이전하자는 방안도 나오는데, 개운학사는 중앙승가대 운영비 마련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조계사 성역화사업에 종도들의 관심이 적은데.

▲많은 스님들이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처음에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성철스님 사리탑을 건립할 설계공모를 하고 현장설명할 때 종무소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니 터가 넓느니 하며 말이 많았다. 청사를 철거할 때쯤이면 관심이 커질 것이다. 앞으로 사부대중의 뜻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사 철거 이후 이주 대책은.

▲조계사 주차장 진입로 옆에 600평 규모의 가건물을 지어 총무원과 교육원이 입주하는 방안이 좋은 것 같다.

-착공 시기는.

▲4월쯤 착공할 것이다. 기본설계에 3개월, 실시설계에 2개월쯤 걸린다. 철거도 빨라야 내년 3월경이 될 것이다. 시공사 선정은 설계도가 나온 후에야 가능하다.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현재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 32억원이 있고, 올해 20억원이 분담금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3년 동안 30억씩 분담금을 내면 150억원 가까이 모아진다. 공사비를 200억원 내지 250억원으로 잡아도 특별회계 150억원에 100억원을 더 보태는 것이다.

-청사 신축에만 집중돼 있고 불교회관도 없다는 불만이 있는데.

▲청사 신축은 1단계 사업이고, 앞으로 10층 정도의 불교회관을 세우는 것을 이후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재원 마련의 한 방안으로 청사에 박물관을 입주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청사 한 층에 들어서는 박물관은 진열장 구실밖에 못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스님전용병원-복지원 세워야"

조계종 복지재단 스님 609명 '승가복지' 설문

노후거취 사찰 선호
비구니 스님 "노후불안"

대다수 스님들은 스님전용병원과 노후복지원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구스님보다는 비구니스님들이 노후에 대해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이 지난 6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두 달간 스님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가복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으로, 그동안 논의수준에 머물던 승려노후복지원 건립이 이를 계기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설문은 복지재단이 승가복지사업에 대한 스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교구본사 스님들과 종회의원, 각 지방사찰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609명의 응답자중 비구스님은 395명(64.9%) 비구니스님은 214명(35.1%)였다. 법랍별로는 11~20년이 224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21~30년(26.4%) 31~40년(20.7%) 10년이하(10.3%) 41년 이상(5.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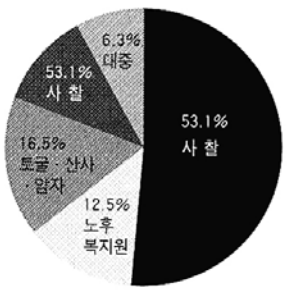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항목은 승려복지를 위해 종단이 꼭 해야할 분야의 우선순위. 전체응답자중 31.2%(175명)가 스님전용병원을 꼽았으며, 26.8%(150명)가 노후복지원을, 17.5%(98명)가 의료보장을, 14.5%(81명)가 노후연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구니스님은 스님전용병원을, 비구스님은 노후복지원을 우선적으로 꼽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여성계통의 질병을 앓게 되는 비구니 스님들이 일반병원을 찾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스님전용병원 건립도 노후복지원 못지않게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승려노후복지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6.2%(525명)이 찬성했으며, 비구·비구니 스님의 '찬성'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승려복지 위해 종단이 해야할 일



노후 거취 선호도

스님들의 노후대비 실태를 묻는 질문에서 노후연금에는 17.7%(108명), 암보험·생명보험 등 각종 사보험에는 30.5%(186명), 국민연금에는 19.5%(119명)가 각각 가입했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전체 응답자중 266명이 한가지 이상 항목에 응답해 응답자의 43.7%가 자신의 노후 및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 세 항목 모두 비구니 스님들의 가입정도가 평균보다 1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구스님보다 비구니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노후거취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448명중 53.1%(238명)가 사찰을 꼽아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토굴·산사·암자가 16.5%(74명), 노후복지원 12.5%(56명) 본사 11.6%(52명) 등의 순이었다. 또 노후복지원 설립에 찬성한 525명중 466명(88.7%)이 수행과 요양을 겸할 수 있는 노후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노후복지원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신은 노후복지원보다는 사찰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이밖에 노후복지원이 설립될 경우 종단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73.7%)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비구·비구니스님을 함께 수용하는 통합운영보다는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견해(64.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명우 기자

목어

눈감고 귀막고

지난 여름 지리산에 다녀왔다. 전화도 텔레비전도 없는 산속에서 태고의 천지, 그 숨결에 젖어 보낸 일주일. 지리산은 그 웅혼하고 쇄락한 기운으로 내 가슴의 탁하고 비릿한 냄새를 씻어 주었다. 지리산은 문득 자비의 손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 여래장이나 불성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에 속해 있고, 또 그 마니주가 빛을 발하게 되는 인연도 나밖에서 오는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 혹은 세계는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배치로 환원되지 않는다. 공간은 나름의 표정과 의미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조형한다. 집과 고향을 떠올려보면 금방 수긍이 갈 것이다. 사찰의 공간 또한 그러하다. 지치고 쇠락한 영혼에 생기를 주고, 세속에 찌든 가슴에 청량한 영원의 샘물을 주는 곳이 그곳이다. 차라리 퇴락한 대로 두라. 천박한 콘크리트로 발라놓은 불상과 건물은 비수보다 더한 상처와 오욕과 구토를 일으킨다.

환경의 주축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남의 일부이다. 자성은 없다. 타자로 하여 나의 존재가 비로소 성립한다. 결국 나는 내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나란 존재는 너에게, 우리 사회에, 그리고 자연의 식구들에게 과연 무엇인가.

나의 존재 자체가 너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너를 정화시킬 수도 있다. 그 인연의 공간은 실무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미학적이고 정감적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잔잔한 감동들이 사회에 끼치는 파장은 엄청나다. 그런데도 그런 뉴스나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피디와 방송담당자들을 소리쳐 깨워야한다. 우리의 뉴스는 참혹하고 파렴치한 장면만을 내보내고 있고, 여의도는 인간의 기만과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경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라야식의 종자가 정화되어야 현행의 건강을 기약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끄고 살아야할 모양이다. 현실이 어차피 환상이라면 눈을 감고 사는 것도 길이요, 수행이다.

한형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본지논설위원)

결 의 문

우리는 오늘 개최한 임시종회에서 토의되고 결의된 모든의안들을 향후 일보 전진하는 종단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일사불란한 애종심으로 종조 원효성사의 교시를 받들어 전법도생에 정진할 것을 마음 다지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다 음

1. 우리는 1997년 12월 20일 제 37회 정기 중앙회의에서 결의된 모든 의안을 적극 실행하고 따를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현 총무원 체제를 적극 지지하며 전 종도는 일치단결하여 투철한 애종심을 가지고 종단발전에 기여한다.

3. 1989년도에 법란을 야기 시켰던 일부를 퇴출시켜 현 총무원 체제가 발족되면서 종단은 종조의 뜻을 받들어 화쟁정신으로 결속 정진하였으므로 인하여 오늘의 종단이 안정 운영되고 있음은 전 불교계가 공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에 법란을 야기시킨 당사자인 종정 이법홍 화상께서 또 다시 오늘의 법란을 획책하여 전 불교계와 사회에 빈축을 사게하고 있음은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 종단의 숭고한 종지구현을 위하여 이번만은 종정스님을 비롯한 일부 몰지각한 퇴출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처벌을 대내외적으로 강행 할 것을 결의한다.

4. 본 종단의 법난이 야기되는 원인은
첫째, 종정 이법홍 화상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0번지에 소재하는 삼보의재 대한불교원효종 소유 안양암을 불법하게 매각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를 저지하려는 승려와 신도들과의 피나는 법정싸움 끝에 종단소유인(이태준 노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삼보재) 안양암을 유실케 하였음은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이 입증하고 있는 처욕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둘째, 경주시 배동에 소재하는 본 종단 소유의 유일한 전통사찰이며 종찰인 포교원 망월사마저도 불법하게 처분하고자 하여 종단의 합법적인 결의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 처분코자 하는 등 승려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와 허욕이 이번 법란조성의 저의임으로 본 종도들은 종단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불순한 동기를 뿌리뽑아 다시는 이러한 법란이 발생되지 않게 할 것을 결의함.

5. 본 종단은 위에서 밝힌 삼보재의 보존과 종단의 종지를 구현하는 실천방법으로, 우선 본 종단 소유인 삼보재를 (가칭) 재단법인 대한불교 원효종 설립에 기본 재산으로 출연 할 것을 결의함. 망실위기에 청한 경주시 배동에 소재한 망월사 7만여평의 재산을 다시 본 종단의 재산으로 회복 보존케하는데 피나는 노력과 재판을 거쳐 본 종단 명의로 회복시키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여온 총무원장 무진스님의 참된 애종정신에 뜻을 같이 하여 명실공히 대한불교 원효종의 발전에 일치단결하여 헌신할 것을 결의함.

6. 이상과 같은 사실로 하여금 불명예스러운 종단의 법란이 10여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음으로 해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어 종단 자체가 파산 내지는 해산의 위기에 처해 있을적에 애종심이 강한 승려와 신도들이 현 총무원정을 중심으로 뭉쳐 종단 재기에 헌신 노력한 결과 오늘의 원효종은 명실공히 전국 250여 사찰에 이르렀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도 분원이 설치 되어 날로 교세확장이 되고 있어 미래에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명 깊게 느끼신 종정스님께서도 극구 칭찬하고 계셨음으로 해서 1997년 12월 20일 제 37차 중앙종회를 개최케하여 노구의 몸이 종단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힘이겹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종회 회의석상에서 발전적인 선시를 하셨음으로해서 종헌 종법 개정결의를 단행하게 된 것 아닙니까?
타 종단들도 종정 중심제에서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 종법을 개정하여 장족에 발전을 하고 있다는 선시가 우리 종회의원들의 귓전에 생생히 울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종정예하께서 종령으로 종회의 해산이라는 불법과 무법의 종령을 선포한 사실에 대하여 종헌 종법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무식하고 무지한 종회 해산을 신문에 공고했는지 지상을 통하여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길 우리 종도들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의 종단이란 거대한 조직이 종정예하의 기분에 의하여 존폐가 결정되고 종무행정이 불법하게 집행되는 종단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랜 세월동안 종단 내부에 치부를 자체적으로 소화 해온 우리 종도들의 깊은 고충을 더 이상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고비에 이르렀으므로 만천하에 고개 숙여 공개할 것을 결의함.

종정 예하께서 종도들의 금번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묵살하실 경우에는 만부득이 종정 직무정지 가처분을 비롯하여 종정예하의 위법사실을 취합 적시하여 마지막 법란의 종지부를 법정에서 결정케하여 승복토록 하여 본 종단의 불명예를 말끔히 종식 시킬 것을 확실하게 결의함.

불기 2543년(1999) 9월 1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회 참석의원 일동

⊙종단임원

부 종 정 벽 송
총 무 원 장 무 도 일 진
종 회 의 장 전 휴 운
종 회 부 의 장 청 정 안
종 회 부 의 장 정 대 관
규 정 위 원 장 구 청 산
법 규 위 원 장 소 연 운
상 벌 위 원 장
포 교 원 장
종 학 연 구 원 장

강원교구종무원장 도 원
경기교구종무원장 성 민
서울교구종무원장 청 운
충남교구종무원장 혜 정
전불교구종무원장 혜 담
전남교구종무원장 천 수
경남교구종무원장 항 운
부산교구종무원장 혜 수
서부경남교구종무원장 운 제
충북교구종무원장 혜 공

⊙중앙종회의원

서울 : 청운
경기 : 성민
강원 : 일휴, 법선
충남 : 혜정, 청은
충북 : 혜공
경북 : 효담
경남 : 항운, 법은, 상운, 정안
서부 : 운제
부산 : 도전, 혜수, 법경
광주 : 천수
전북 : 혜담
제주 : 기용

"2003년 용성스님 유훈사업 회향"

대각회 새이사장 도문스님



"대성 석가모니불의 대각불교사상을 선포하고 또한 이를 민족 번영의 원리로 발전시킨 용성조사의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일 재단법인 대각회 제11대 이사장에 취임한 도문스님(대각사 조실)의 말이다.

대각회는 1969년 9월 11일 민족 독립과 전통불교의 수호를 위해 평생을 보낸 용성조사의 유훈을 계승하고자 설립,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스님은 대각회 설립 당시부터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용성스님의 유훈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용성조사의 탄생성지인 장수 번암 죽림리 죽림정사 건립과 생가복원 불사를 위시로 가야불교초천법륜성지인 봉림산 봉림사지, 백제불교초천법륜성지인 우면사 대성사지, 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인 구미 아도 모례원, 신라고도 남산천룡사지 복원 등 국내 불사를 추진해왔다.

또 국외적으로는 부처님 탄생성지인 네팔 룸비니국제사원 구역내에 최초의 한국사원 대성석가사를 건립중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대각사상연구원을 개설하고 용성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정리 연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스님은 "그동안의 모든 사업들이 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총회장 한수승행)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후원회와 함께 모든 작업들을 진행해 오는 2003년까지 용성조사의 유훈을 받드는 모든 사업들을 원만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각회는 9일 동국대에서 대각회 창립 30주년 기념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노동문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왼쪽부터 개오, 삼우, 하주, 파랑 스님.

"한국불교 사회운동 해외 소개"

'한국불교여행기' 자료수집 삼우스님 방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북미주에서 30여년간 주류사회를 상대로 한국 선불교를 보급해온 삼우스님(자혜불교회 법주)이 외국인 제자 파랑·하주스님 등과 함께 지난달 22일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불교의 현대와 미래를 조명하는 〈한국불교여행기〉(가칭)를 집필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美시카고 미륵승가대학(Mait-reya Buddhist Seminary) 입학자 모집 및 면접에 따른 것.

삼우스님이 기획하고 파랑스님이 집필하는 〈한국불교여행기〉에는 '지금의 한국불교' '불교사회운동' 등이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님 일행은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송광사, 실상사, 내원정사(부산)등 국내 주요 사찰을 방문하고 있다.

'참선수행' '불교예절 및 포교' '불교역사·문화' '불성 개발' '영어교육' 등의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미륵승가대학의 모집마감 및 면접은 10월 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10일이며, 합격자는 경북 안동시 홍은사에서 17일까지 연수를 실시한다.

오종욱 기자

교차로

국제포교사 품수식



정련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18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거행한다.

딸기어린이집 2돌 법회



밀운 봉선사 주지는 8일 구리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딸기어린이집 개원 2주년 기념식을 박영순 구리시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생명나눔 기금마련 '하루찻집'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수덕사 주지) 스님은 7일 조계사 앞 샘터다방에서 생명나눔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제씨 등 7백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정각원 참선·요가 특강



성본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스님(불교학과 교수)은 11일부터 2개월간 정각원 법당에서 참선 및 요가수련을 위한 특강을 실시한다.

종단협 사무국장에



법현 서울 천중사 부주지는 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법현스님은 85년 운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91년 덕암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기획국장,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장 등을 역임.

분당경찰서 경승실장에



우항 천은정사 주지(성남시불교사암연합회장)는 14일 오후4시 지묵스님 후임으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승실장에 취임한다.

정심사 대웅전 기공식



원영 정심사 주지는 8일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정심사 경내에 60평 규모 전통건축양식의 대웅전 법회를 봉행했다.

'실향노인 임진각 나들이'



상덕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7일 관내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향민 90명을 대상으로 '실향노인 임진각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수재성금 8천8백만원 전달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 지난 8월2일부터 9월1일까지 수재의연금품 모금방송을 실시해 모두 8825만여원을 모아 8일 방송협회에 전달했다.

'아파트를 한옥처럼' 강연



신영훈 한옥장인(匠人)은 13일부터 11월15일까지 매주 월요일 서울 양재동 서초조형예술원에서 '한옥의 특성' '아파트를 한옥처럼'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한옥의 미학' '내집을 지읍시다' 등을 주제로 10회에 걸쳐 강의한다.

제4회 고창문학상 수상



김양일 울산일보 회장(수필가)은 5일 수필 '동서화합'으로 제4회 고창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기아도움기구 회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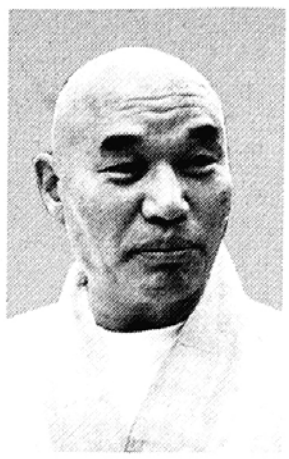
김흥국 가수는 6일 열린 한국기아도움기구(KBSHO)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돼 지진피해를 겪은 터키돕기에 나섰다.

수효문화원서 명리강좌

강청옥 시인은 10월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0분 서울 수효사 수효문화원에서 '초급 명리'에 대해 강의한다. (02)313-5047

첫 졸업생 낸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

"인재불사 지속적 지원 필요"



"도제양성, 역경, 포교의 3대 종단사업중 인재불사를 위한 거보를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은 종단의 어떤 불사보다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소감을 피력했다.

스님은 "첫단추가 중요한만큼 제1기때 교육행정이나 교수법등 여러면에서 바람직한 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늘 따라다녔다"며 그간의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다.

스님은 또 교육내용과 관련, 강의훈련과 경전번역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제한뒤 강의훈련에 있어서는 일방적 주입식과 강의보조식, 학인들 스스로 강의나 세미나를 이끌어가는 자유방임식의 3가지를 모두 병행했다고 밝혔다.

"능률적인 대학원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스님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뛰어난 강사들을 배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전통사찰 51개 복원 주민들 추수후 불공"

■ 北 통일기원 법회 다녀온 도안스님



◇왼쪽부터 치과의사 최진환씨, 박태화 조불련위원장, 도안스님, 美 선연사신도 정유미씨.

"북한의 현존사찰은 61개이며 그중에서 51개사찰이 복원된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본 황해도와 과거 경기도(개성)지역 주민들에게는 불교신앙이 남아있어 가을추수가 끝나면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월20일 모란봉 용화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 주최한 조국통일기원 해외불교도 대법회에 참가한 도안스님(미주평불협 회장)은 故 윤이상씨 부인 이수자 보살등 윤이상 음악연구소 임원들과 함께 가지고간 공양물을 올렸다.

황해도 지역 불교유적을 둘러본 스님은 개성 천마산 관음사에는 대웅전과 7층석탑이 원형보존돼 있고 바위굴에는 두 관음석상 2분이 안치됐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 한분만 남아있고 구월산 월정사는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과 수월당, 만세루가 큰 법회를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나 법당에 향로와 촛대, 목탁, 요령이 없어 스님일행은 육성으로 불공을 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한다.

도안스님은 "역사박물관에 경주 석굴암과 본존여래상, 석가탑, 다보탑의 축소모형을 화강암으로 깎아 실물처럼 전시했다"고 전하면서 "남북한이 전통문화복구를 통한 동질성 회복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정통 禪불교 세계에 알릴터"

첫 외국인 국제포교사

에드워드 뮤지카



"형식적인 불교가 아닌 내면의 진실을 담은 한국불교를 미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18일 오후4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조계종 국제포교사 품수식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포교사에 임명될 예정인 에드워드 뮤지카(Edward Muzika P.H.D. 57)씨는 "미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한국불교를 미국인의 특성에 맞는 수행프로그램을 통해 보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주불교협의회(American Buddhist Congress) 부회장으로서 한국, 일본, 티벳, 동남아, 중국 불교와 두루 협력해 온 그가 한국불교에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된 것은 미주불교협의회 한국측 대표인 L.A. 관음사 주지 도안스님과의 인연 때문.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에드워드씨는 "중국선종의 맥을 고스란히 이어 온 한국불교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드워드씨는 도안스님과 함께 L.A. 동산불교대를 4년제 정규 불교대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틈나는 대로 한국불교 관련문헌을 영역하는 일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국인 물질 동경 기독교 귀의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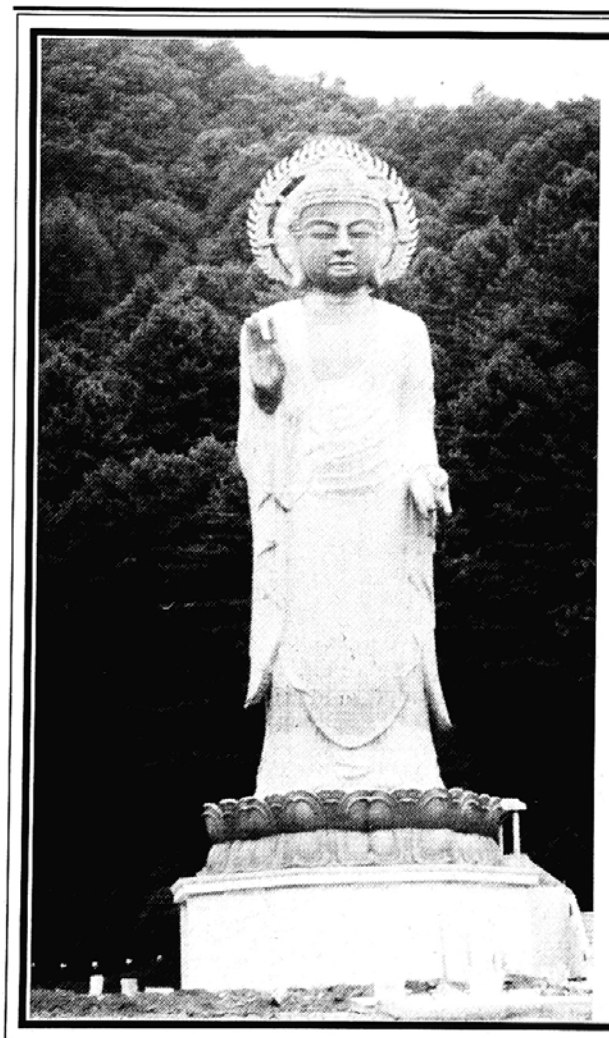
테데스코 교수 주장



조계종 원우회는 '내가 본 한국불교·한국불자'를 주제로 테데스코 교수(세종대)의 강연회를 9일 개최했다. 테데스코 교수의 강연 요지를 정리한다.〈편집자 주〉

메릴랜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체류하는 불자라고 하면 대다수가 CNN에서 본 조계종 사태를 떠올리며 한국불교는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한국불교를 사랑하지만 한국불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를 좋아한다.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해야 한다. 물질문명에 대한 회의로 불교에 귀의하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물질문명에 대한 동경으로 기독교에 귀의하고 있는 것 같다.

강지연 기자



奉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낙성식 및 점안 봉불식 祝

부처님 몸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과 극락도 지옥도를 관람합니다.
(아미타 대불 높이 36M, 폭 10M 아파트 12층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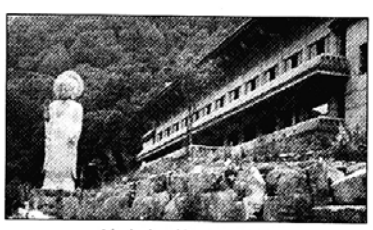
화담스님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남과 북, 동해바다 서해바다 가로세로 중앙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 연엽산은 신라말기 도선국사께서 우리나라 명당 약 400군데를 비로국찰로 정하셨고 풍수지리학의 원조이시며 홍천땅에 명당 기운이 솟아 이곳에 비보국찰을 세우실려고 하루밤 야숙을 하시는데 연화봉에 서광이 비치고 남여 화신이 내려와 이곳에 오셔서 "산이름을 지어 주시고 터 닦음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였다 합니다.
산이름은 연엽산이라 명하셨고 연화봉을 둘러쌓인 99봉오리가 마치 연꽃이 피어 있듯이 합니다.
산에 기운이 너무 쎄 산에 기운이 누그러질 때 앞으로 약 천년후에 불사에 인연자가 타나날 터이니 그때까지 터를 보호하여 달라고 하였답니다.
도선국사께서 짚고 다니는 주장자로 약수물을 뜷고 절도 없는 곳에 연합, 절골이라 이름하였다고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승은 남양주시 도농동에 은선사를 창건 28년간 모아놓은 부처님 정재와 신도님들의 시주물로 우연히 강원도 홍천 연엽산 도선국사 불연지를 만나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시주 동참으로 불사시작한지 지금 6년이 되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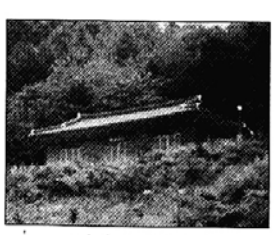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불사를 하다보니 이렇게 극락과 지옥을 헤매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3층건물로 연건평 680평, 삼성각 30평, 아미타대불 36m 아파트 12층 높이며 부처님 몸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 10대 보은은중경과 극락도 지옥도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층에 부처님 12분을 탱화로 모셨고 각 12지 띠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미타대불 낙성식 및 점안 봉불식을 전국에 큰스님과 불자형제 사부대중을 모신 자리에서 점안 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라옵니다.
불자형제 여러분 이곳 연화사 아미타 대불 몸안에 있는 부모은중경을 전국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요즘 교육제도가 인재를 길러 내는데 치중하다 보니 사람만드는 예절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자기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들로 꽉 차있는 듯합니다.
이곳 아미타 부처님 몸에 잉태하여 부모님을 생각해보는 부모십대보은은중경을 청소년들을 위하여 부처님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대웅전과 요사채 식당 등등이 완성되지 못하여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이해 바라옵니다.



법당 전경(불사중)



아미타 대불 및 법당



법당뒤 삼성각



법당앞 약수

⊙ 날짜 : 1999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11시 〈삼일간〉
⊙ 위치 : 홍천에 오셔서 강재구공원 성동마을 지나 연화사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664
⊙ 전화 : 0366) 433-1815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연화사 주지 김 화 담



◇영 · 호남 운전불자들은 친선법회를 열고 지역화합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다.

영호남 운불회 '화합 법륜' 시동

5백여명 첫 친선법회

부산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조홍인)는 5일 부산 동명불원에서 광주, 전주, 경주, 포항, 대구, 부산의 운불련 회원들이 동참한 제1회 친선법회를 열었다. 영호남 회원은 물론 전국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단합을 위해 열린 첫 법회로 6개 지역회 5백여 회원이 동참했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 운불련 부산지역 총재 장산스님, 전국운불련 박용조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부산운전기사불자회는 부산시 직할 질서봉사단으로 지정돼 발대식을 함께 가졌다.

정련스님은 법문을 통해 "곳곳에서 활동하는 운불련 회원들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사로서의 긍지를 갖고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21개 지역회를 갖고 불법홍포와 각종 행사시 질서 유지, 장학사업, 장애자돕기등으로 포교에 주력하고 있는 전국운불련 불자들은 11월 광주에서 하반기 친선법회를 열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직장법회 가꾸는 사람들

혜광스님 국립경찰병원불자회 8년째 돌봐

김정호법사 정불회창립 산파…매주 경전강의

화암스님 서울지하철 법우회 회원확대 주도

"전체 1백20여 명 회원 중에 고작 30여 명만이 법회에 참석하던 모임이라도 법사님이 오시는 날이면 사정은 달라지죠. 법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날 법회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북구청불자회 장인식씨는 지도법사가 직장직능불자회를 살찌우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지도법사는 초심자들이 주를 이루는 직장직능불자회 회원들의 불심의 싹을 틔우는 훌륭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다. 또 법회 외에 뚜렷한 활동이 없어 구심력이 없는 불자회의 존립을 좌우하는 키(Key)가 되고 있다.

특히 직장직능불자회 창립을 직접 주도했거나 몇년째 줄곧 상임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법사들은 직장직능불자회를 최일선에서 일구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토선원 혜광스님은 국립경찰병원직원회 산증인으로 불자회 산파역을 맡은 후 8년째 지도법사로서 불자회 활동을 돕고 있다. 평생불자회 김정호 회장도 97년 5월 정부 과천종합청사 불자모임 정불회 창립의 주역으로 기초교리 강좌에 이어 매주 금요일 〈법화경〉을 지도하고 있다.

또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화암스님은 94년부터 5년째 서울지하철 법우회 지도법사를 맡아보며 불자회가 3백여 명에 이르는 회원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화암스님은 또 법우회가 지하철 역사에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밤낮을 함께 노력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와 경희의료원불자회 경불회는 故 한국불교연구원장 이기영 박사와 한정섭 법사의 조건없는 지원에 힘을 얻어 탄생됐다.

이 밖에도 무진장스님, 백남석 김태영 법사 등과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 및 포교사단 직장직능단체 포교팀이 직장직능불자회 비상임 지도법사로서 직장직능불자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법회를 주로 하는 직장직능불자회(99년 조계종 포교원 설문조사 결과)의 상당수가 고액의 법사비 마련이 힘들뿐만 아니라 법사들의 바쁜 일정과 거리상의 이유로 지도법사 없는 법회를 꾸려가고 있어 고충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직장직능단체의 전진적인 포교를 위한 법사들의 조건없는 봉사와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 신행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불자들을 보면 절로 신심이 난다"는 정불회 김정호 지도법사는 "지도법사는 불자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자회를 결속시키고, 포교역군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도선사 광복스님 주지 진산식

도선사 제14대 주지 광복스님 진산식이 6일 호국참회원 대강당에서 성료됐다.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법등 종회의장, 월서 호계원장, 일면 교육원장을 비롯해 종회의원과 본사주지 등 2백여 스님과 신도 등 1천여 명이 자리했다.

주지 광복스님은 이 자리에서 "청담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호국참회 대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중창시키겠다"고 밝혔다.



강남포교원 개원 17돌기념 예술제

강남포교원(원장 성열) 개원 17주년 및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예술제가 5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신도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2시간동안 펼쳐진 이날 예술제는 범패, '큰 스승님' 등 합창, '청산은 나를보고' 등 혼성합창, 시낭송, 독창, 어린이회의 수화와 율동, 첼로독주, 중창, 현악 3중주, 연합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실천불교 승가회 '99정진도량

실천불교승가회(의장 청화)는 8월30~31일 2일간 파주 보광사에서 '99정진도량을 개최했다. 30여명의 회원스님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진도량 입재식에서 의장 청화스님은 "이번 정진도량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계 이론과 불교"를 주제로 김용운교수(한양대 명예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육군 73사단 전차대대 법당개원

육군 73사단 전차대대 법당 개원식이 8월21일 거행됐다. 이날 법당 개원식에는 호국충일사 주지법사 정여스님과 부대장 이상암 소령, 재가수행공동체 백승진 법사, 김광홍 주임원사, 최수민 헌법재판소 연구원과 신도 및 장병불자 2백여 명이 참석했다. 법당의 삼존불과 불구융품 일체는 백승진 법사와 명재원 신유승 이사장, 최성지 보살 등이 보시했다.

대구구치소 '불심회' 창립

교정인 45명 참여…초대회장 전용희씨

지난 3월 개청한 대구구치소의 불자교정인들 모임인 불심회(회장 전용희)가 1일 석가사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45명의 대구구치소 불자교정인들이 재소자 포교, 불자교정인들의 사회참여, 법우간의 친목도모, 알찬 신행활동 등을 위해 5개월여 등안 준비기간을 거쳐 불심회를 발족한 것.

초대회장 전용희씨는 "신설기관인 관계로 전국교정기관 불자회 중 41번째로 다소 늦게 출범했지만 전국 제일의 화합, 봉사, 정진하는 불심회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구구치소 지회가 창립돼 연합회로서는 더욱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고 "불자교정이라는 큰 자부심으로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도필선 기자

우리 모임에선

정각회의원 후원의 밤

국회 불자의원들의 모임 정각회 소속 의원들의 후원의 밤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권익현의원이 14일 오후5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갖는데 이어 자민련 정상구의원이 28일 오후 6시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선거자금모금 행사를 연다. 10일에는 자민련 변웅전 의원이 후원행사를 가졌다.

02)784-3860

자비콜택시 사무실 개원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2일 자비콜 택시 사무실 개원법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운행을 시작한 자비콜 택시는 우찬수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3백1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실 개원(부산 남구 문현동 위치)을 계기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자비 서비스를 펼치게 됐다. 자비콜 택시는 하루 신청 횟수가 2천회에 달해 부산 최고를 자랑한다. 02)622-8282

경주운불 사무실 이전

경주 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안종대)는 3일 사무실이전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경주시 황남동 99번지에 위치한 새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과 경주운불련 40여 명의 회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했다. 0561)741-8282~4



대구구도회 봉불
진신사리 7과 봉안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대구구도회(회장 하재웅)는 5일 석가모니불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봉안된 키 1.2m의 석가모니불은 기존의 목불(木佛)을 보수하여 개금한 것으로, 부처님 진신사리 7과와 5경 · 5약 · 5색천 등 30여가지의 성물이 봉안됐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 박사를 비롯 부석사주지 근일스님, 박희청 서울구도회장, 한동대 부산구도회장, 송성선 대전구도회장, 김광렬 전국교사불자회장, 전국 각 구도회의 회원가족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구도회는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구도회중 최초로 결성된 단체로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은 재가신행단체다. 053)256-8589 이윤호 기자

한전 12개 불자회 합동법회

참선수행 · 사례발표

한국전력 전국 12개 사업장 불자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12개 한전불자회는 본사 반야회 주관으로 5일 직지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심창생 허숙 김창기 이성구 전 전무와 이종필 전 부처장, 조경해 전 본부장 등 한전 각 사 사장급 퇴직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눈길을 끈 이날 행사에는 정원영 본사 반야회 명예회장과 김영창 회장을 비롯 2백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합동법회는 참선실수, 법문, 각 사업장별 상견례, 월성 · 울진원자력발전소의 모범활동 사례발표 등으로 마련됐다. 또 이 자리에서는 오는 10월 분사(分社) 조치에 따른 불자회연합회 구성을 서두르기로 합의하고, 각 불자회 총무를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꾸렸다.

본사 반야회 이순형 사무국장은 "매년 합동법회를 정례화 해 각 사업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친목과 신행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오늘 합동법회는 각 사 불자회가 연합회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고, 창립 준비중인 삼천포화력, 보령화력, 부산지역 불자회 발족에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한전 반야회는 포켓용 법요집 1천5백개를 보급한데 이어 올 연말에는 내년도 불교달력을 제작, 전국 사업장 불자회에 보급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마음이 행복의 주인"

금강경독송회 철야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4~5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법당에서 전국 통합철야법회를 가졌다.

5백70여 명의 전국 금강경독송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철야법회는 4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김재웅 법사의 법문, 금강경 7독, 미륵존여래불 정진과 각 지역 법당 8명의 신행담 발표와 점검 등의 순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재웅 법사는 "마음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주도하고 주위 사람과 자연도 바꾼다"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바쳐 밝은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정진하라"고 말했다.

사찰건축

스님! 이제 장엄불사 시멘트의 조각성형으로 전통사찰(포작) 그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성형제작과정


■ 포작 성형양생과정


■ 서가래 양생과정


■ 익공 성형 양생과정


■ 부연성형양생과정

스님의 평수 주문에 따라 석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설계에서 시공까지

책임은 확실히지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법당시공과정


■ 배흘림 성형기둥


■ 외3포 조립


■ 서가래 조립


■ 지붕 방수 및 덮개

특징 저렴합니다 /간편합니다/섬세합니다 /우아합니다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 목조사찰건축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한국불교전통문예 (고건축사업부)

서울 · 중랑구 망우 2동 515-44(창원B/D 402호)
서울전화:(02)494-4890/1(代)
영남(울산):(052)258-2813
제1공장: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237-9
제2공장:경기도 용인시 운학동 590

이렇게 들었다 — 동포애

친족끼리 서로돕고 고락 함께해야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동포, 일본감옥에서 31년간 옥고를 치루고 석방된 재일교포 권희로씨. 그동안 우리 민족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우리 동포들의 고단한 삶들이 연일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한민족의 피를 나눈 우리동포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소외당하고 고통 당하면서도 오로지 한 민족의 자존심하나로 수십년 세월을 지켜온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경전에 나타난 동포와 민족 친지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 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북방(北方)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북방에 대한 예배니라. 〈육방예경〉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때였다. 어느날 장신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안난다여! 밧지족은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력으로 붙잡아 가거나, 또는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틀림없이 저는 밧지 족은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력으로 붙잡아 가거나,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밧지족이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력으로 붙잡아 가거나,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난다여! 밧지족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니라." 〈대반열반경〉

▨세상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갓난애를 젖먹여 기르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다가 만약 병들견 양약(良藥)을 가려 먹여 병을 고쳐서 편안케 해준다. 여래대사(如來大師: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온갖 중생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 보기를 그 자식인 것같이 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없도록 마음을 쓰시지만, 중생이 악업을 지어 보(報)을 받을때는 교묘한 방편으로 구제하사 해탈케 하신다. 〈선교방편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흉경〉

▨선인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요경〉

▨보살마하살은 온갖 중생에 대해 부모 형제 처자 제몸같은 생각을 갖는다. 〈대반야경〉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되 갓난애 같이 보아, 다 해탈(解脫)케 해야 한다. 〈태지쇄호경〉

민영교도소 남의 일 아니다



현성 중앙승가대 총장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모금을 하고, 정부에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모금액도 150억원에 이른다고 들었다. 천주교는 서울대교구에 설치된 교정사목위원회에서 매우 심도깊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영교도소가 생김으로써 종교단체의 재소자 교화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교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주였다. 명절 때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등 교도소 교화행정의 일부분을 할애받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용 및 재활교육, 종교활동 등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다.

일부에서는 종교 편향, 재소자 인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정종교에 교도소 운영을 맡긴다면 명백한 종교편향이 되겠지만, 조건을 갖추면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니 종교편향이라고 몰아붙일 수만은 없지 않은가. 또 민영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의 엄격한 심사,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감독을 강화하면 인권침해 우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타종교가 민영교도소 운영에 뛰어든다고 덩달아 나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재소자 포교에 민영교도소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비하는 일은 시급하다. 조계종 또는 종단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소.리

목탁소리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군대 병원 농촌 어촌 산촌 낙도…. 그동안 교계의 여력이 못미쳐 포교취약지구라고 여겨졌던 곳이다. 특히 오지라 불리는 낙도에 대한 포교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도지역에는 설사 불교가 남아있다고 해도 만신과 융합한 형태인 '무늬만 불교'인 기복불교가 전부였고 외로이 떠있는 섬주민들은 부처님께 예불드리고 싶어도 불교에 대해 알고싶고 공부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도 장소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타종교는 낙도에 교회당을 짓고 20여척의 전도선을 이용하여 남해안 서해안의 섬들을 헤집고 다니며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 놨다.

지난 초파일, 서해안의 백령도 종교편향사건이 대표적이다. 군법당과 태고종 인천종무원이 초파일행사로 연등을 달려고 하자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합세해 전기를 끊는등 고의적으로 방해한 사건은 도서지역의 종교편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의 90%이상이 기독교신자라 기독교공화국의 아성을 쌓은 백령도에서는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소수의 불자들은 그동안 이런 기고만장한 타종교인들때문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허공장회'의 낙도포교

기독교쪽에는 각 교파마다 오지전도를 위한 조직이 여러개라고 한다. 뒤늦게나마 불교계에도 낙도포교를 발원한 단체가 생겨 본격적으로 오지포교에 뛰어들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외진 곳을 찾아 섬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부처님법도 전하겠다는 '허공장회' 회원들은 특히 젊은 층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보살들이다.

요즘들어 서울 경기지역등 대도시와 그 주변은 사찰과 포교당이 넘쳐나 포교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다. 부처님께서는 전법의 길로 나서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가라 말씀하셨다. 2명이 함께가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제도하라는 뜻이었을 게다.

낙도포교에 본격 뛰어든 허공장회를 뒤따르는 많은 단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38 ·전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권희로씨 영웅시 자제 국내 인권의식 반성을

요즘 31년만에 가석방돼 한국에 온 권희로씨 이야기로 한국사회가 떠들썩하다. 그는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당한 극심한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 현재 권씨를 영웅시하는 분위기도 없지않지만 권희로씨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화교나 또는 돈을 벌러온 동남아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이다. 우리나라의 화교들은 재산권과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등 박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스리랑카나 네팔, 필리핀 등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혹독하게 부리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협박까지 하고, 일을 하다 부상당해도 치료도 해주지 않고 일터에서 내쫓는 잔인한 행동들이 비일비재했다. 권희로씨를 영웅시하기에 앞서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인권의식을 갖고 소수민족을 대하는지 반성하고 인류애로써 그들과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경식(대전시 서구 둔산1동)

안방포교 발원 잊었나 불교TV 빨리 정상화를

신문 기사를 읽고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불교TV가 현재 노사간의 파업으로 신규 제작이 중단 되는 등 파행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교TV를 즐겨 보았는데 매일 옛날에 한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 사탕 하니까 사실 열심히 보지않는다. 빨리 불교TV가 정상화되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했으면 한다.

이런 안타까움은 불자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젠 정말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할 것이 아니라 종단과 불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후원회 행사 등 실질적으로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는 인터넷방송이다 뭐다 초단을 향한 준비가 분주한데 천만 불자를 자랑하는 불교계에서 불교TV 하나 살리지 못한 대서야 말이 되는가.

최준희(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달마도' 부적처럼 취급 사고파는 행태 지양해야

요즘 유명 일간지에는 '초능력자 OO스님 신비의 달마도'란 광고가 대문짝 만하게 나온다. OO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가 기의 방출과 수맥파차단의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만사형통이라는 등 광고를 하고있다. 또 절에 가는 길에 보면 달마도를 직접 그려 판매하고 있는 사람도 가끔 볼수 있다. 9년동안 면벽 참선하여 깨달음을 얻은 달마조사를 그린 그림이 요즘들어 수맥파나 차단시키고 삿된 기운이나 막는 부적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불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또 요즘 달마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달마도야말로 선화(禪畵)의 핵심으로 참선을 깊이 한 수행자가 그려야 그속에서 선기(禪機)가 흘러나와 보는 이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할 것이고 마음을 맑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불자들도 달마도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고 지녀서는 안될 것이다.

우연정(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합장하는 부처님'

설악산 바위가 영락없이 두손을 합장하고 눈을 지그시 감은 부처님의 모습이다. 김욱 作. 국립공원 사진전 입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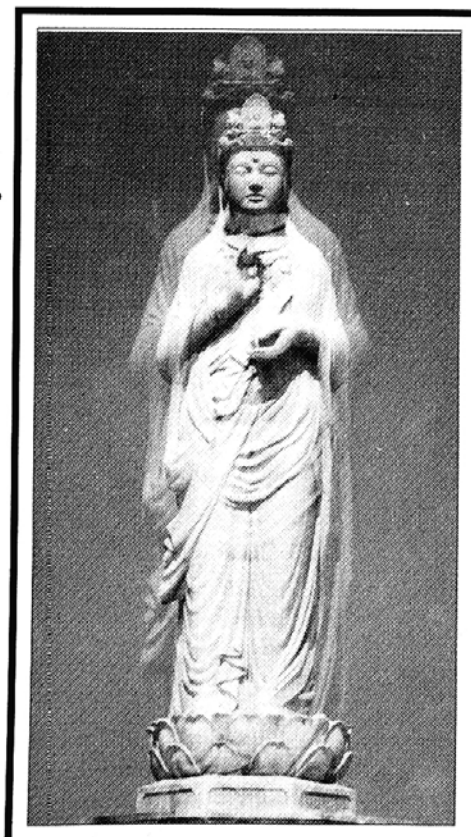
꽃제비들의 배고픔과 추위



김정님 '좋은벗들' 조사연구부장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길 모퉁이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아이들을 만났다. 너무 삐쩍 말라서 나무토막같은 아이들이었다. 옷은 곤색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몇 년째 입었는지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훤히 드러났다. 짝 잃은 단추구멍은 철사를 구부려 겨우 맞추었고 저고리는 때가 새까맣게 찌들고 어깨 솔기가 다 터져서 누런 속감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찬바람을 막기위해 목에 칭칭 감아올린 붉은색 마후라, 구멍뚫린 젖은 운동화. 그 얇고 작은 옷에 얼마나 추운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총총거리는 모습은 절로 한숨과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이 아이들은 다행히 우리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갖은 우리와 똑같은 민족의 정서였다.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어도 그냥 가는 법은 없었다.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청소라도 했고, 작은 돈이라도 생기면 같이 다니는 친구와 나누며, 배가 고파도 음식 앞에서 내것만 챙기지 않고 옆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아이들이었다. 비록 남의 나라에 와서 구걸하는 신세였지만 부끄러움과 예의를 아는 우리의 형제들임이 틀림없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참 맑았다. 배고픔에 지쳐 힘없이 축 쳐진 어깨를 조금만 다독여주면 금새 환한 미소를 보이며 '고맙습니다'를 연발한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미소를 되찾아 주어야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국에 넘어와 잠자리도 해결하지 못하고 구걸하며 떠돌아 다니고 있다. 우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자리를 해결하는 일이다. 우리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진다면 이 아이들이 잠자리를 해결하고, 구걸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일부 인연있는 분만이 호신불로 소장하였던
신비한 氣를 방사하는 "해수觀音" 후광 사진이 佛子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 왔습니다.

"觀音" 후광(광배)사진은 고향의 부모님을 나 대신 지켜 주고 정신적 평화를 주는 불자 가정의 최고의 추석 효도선물!!

평소 은혜를 입은 분에게 드리는 수수한 마음의 선물!! 다정한 이웃, 친척간의 소박한 선물로 적격입니다.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가정에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觀音 사진을 구입하시는 가정은 連庵聖師께서 신통한 영능력으로 자녀의 전생을 보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제시해 드립니다. 특히 고시 및 입시 수험생에게 권장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방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매일 새벽 4시 ~ 6시 觀自在如來造化法(관자재여래법)으로 질병과 삼재 팔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수익금은 觀音氣禪院 건립자금으로 사용됩니다.

해수관음 후광사진 주문방법
조흥은행 611-04-088674 관음기공연구회
서 울 02)3432-0457, 4578~9
부산지원 051)557-0993
인터넷 홈페이지 : www.cocomall.com/mystery

氣 가 방사되는 영롱한 觀音후광(광배)
촬영인 : 靈能力者 連庵聖師

98년 8월 9일 새벽 4시경 觀音이 시현, 우렁찬 목소리로 "나를 세상에 알려라"는 계시에 따라 중생에게 실질적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신통력으로 영출한 영롱한 무량광의 "觀音"을 세상에 보급합니다.
※제품 : 알루미늄 액자 (8" ×10") 88,000원
합 성 목 액자 (20" ×24") 3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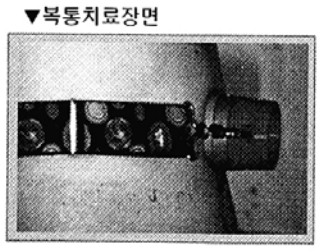
신 개 발 품
시·연·쑥·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김시연스님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량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중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화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 통
전립선	조루증	냉 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뮤지컬 '팔만대장경' 세계무대로

11월8~14일 예술의전당서 국내공연
2000년부터 日·佛·英등 10여국 순회

불심의 혼으로 빚어진 우리 영혼의 소리 '팔만대장경'이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에 선보여 진다.

지난해 '장보고'로 세계 순회 공연을 가진 극단 현대극장은 11월 8일~14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불교 창작 뮤지컬 '팔만대장경'(극본 김의경, 연출 이종훈)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으며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현지 계약이 만료된 나라만 해도 일본, 필리핀,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10여개 국에 이른다.

뮤지컬 '팔만대장경'은 국보 제32호로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했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호법(護法), 호국(護國), 호민(護民)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을 화두로 삼은 시대극. 이번 공연은 불법(佛法)에 의지해 나라를 지키려는 고려인의 호국 의지와 고려 여성의 강인하고도 깊은 희생 정신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대서사시로 구성됐다.

뮤지컬 '팔만대장경'의 무대는 몽고군의 침입이 있었던 13세기. 전쟁중 장경을 지키려다 죽은 목각장이의 아들 비수가 전쟁통에 앞못보는 여동생을 잃은 뒤 대장경을 관각하기 위해 강화도로 향한다. 그는 고려의 최고 권력자 최이의 딸 묘화와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가 만전의 간계에 걸려들어 눈물로 묘화를 떠나 보낸다. 모든 것을 잊기 위해 관각에만 몰두 하던 비수와 여승이 된 묘화는 대장경이 봉안되는 날 운명의 재회를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려인의 호국의지와 천년의 세월속에 묻힌 슬픈 사랑이야기가 대서사시로 엮어진 뮤지컬 '팔만대장경'이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뮤지컬 팔만대장경의 연습장면.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출연진도 웅장한 공연 규모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화려한 경력의 김원정·여현구·현광원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캐스팅 됐고 중견 탤런트 겸 연극배우 김성원과 김진태, 뮤지컬 배우 김장섭 등이 등장한다. 여기에 브로드웨이에서 손꼽히는 음악감독 조셉 베이커와 데이비드 린드가 편곡·음향 담당자로 가세한다.

극본을 맡은 김의경씨(서울시립극단장)는 "침략을 했던 몽고는 현재 미미해 졌고 여러번 수난 당한 우리 나라가 오히려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든 저력 때문"이라며 "이번 작품은 동양 사상의 정수인 불교문화와 한국인의 손꼽히는 정서인 한(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02)762-6194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加·美 박물관에 한국관 최근 개설
국제교류재단 '큐레이터 워크숍' 열어
해외 한국문화재 보존 '청신호'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9·10월 연이어 한국관이 개설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처음으로 해외박물관 한국담당 큐레이터를 초청하는 등 해외 한국문화재 보존·전시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8일 문을 연 캐나다 토론토의 로얄 온타리오박물관 한국관은 캐나다에서의 첫 번째 한국문화재 전용 전시관. 60여평 규모의 한국관에는 온타리오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700여점의 한국 미술품 가운데 금동불상, 고려청자, 조선분청사기등 200여점을 전시한다.

미국 서부지역 최대 미술관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도 10월 3일 한국관을 개설한다. 카운티미술관은 지난 연말부터 아먼슨관(館) 지하1층에 60여평 규모의 한국관을 신설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 3일 개관과 함께 한국국립미술관에서 대여한 미술품 등 국보급 140여점을 상설 전시하게 된다.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7일까지 영국 대영박물관,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등 9개국 박물관의 한국담당 큐레이터 23명을 초청, 한국유물의 효과적인 해외전시 및 문화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제1차 해외박물관 한국관 큐레이터 워크숍'을 열고 있다.



◇8월 개원된 캐나다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전경.

현재 해외에 산재한 한국 미술품은 총 7만여점이며, 한국관이 설치된 해외 주요박물관은 16개국 52개처. 그러나 한국관 전담 큐레이터가 있는 곳은 대영박물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프랑스 기메박물관뿐. 또 4개 박물관 중 한국미술사를 전공한 큐레이터가 있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과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에 불과하다. 즉 큐레이터 대다수가 중국이나 일본 미술 전공자인만큼 한국 고미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전시내용과 규모도 부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맹목적인 반환운동보다는 해외 박물관내 한국관 설치 및 전문 큐레이터를 통해 해외소재 문화재를 현지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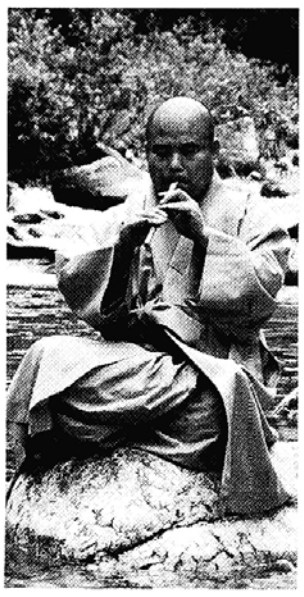
향피리 연주곡 '산승' 발표 무안스님
"음악삼매 빠져 苦 잊으세요"

"번뇌와 고(苦)가 많고 더욱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를 음악으로 정화하고 포교하고자 합니다."

자작시에 향피리만으로 음률을 불여 안온하면서도 편안함을 주는 곡 '산승'을 발표한 무안스님(천태종 정안사 주지). 국악기중에서도 가장 배우기도 불기도 어렵다는 피리. 스님은 향피리가 당피리와 같이 구멍이 8개이나 둘째 구멍이 뒤에 있는, 길이가 짧은 피리로 한층 애절하면서도 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 대금을 불다 피리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스님은 애절하면서도 심오한 음을 내는 향피리의 소리에서 현대인들이 고향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 심오한 세계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와 곡을 썼다고 말한다. '산승'은 합창이나 독창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금방따라 부를수 있을 정도로 쉽고 무난한 노래이다. 주석하는 정안사에 신도들이 찾아오면 향피리를 연주하며 함께 음악삼매에 든다는 무안스님은 현재 작곡중인 '강물의 여운' 등 향피리와 대금을 이용한 곡을 더 만들어 내년 이맘때쯤 피리로만 완성된 음반을 낼 생각이다. 피리외에도 대금, 서예, 달마도, 단청, 광고디자인 등 여러 방면에 능한 무안스님은 지난 8월 월간 〈문학공간〉으로 등단한 승려시인이기도 하다. 스님은 '산승'을 비롯 그동안 쓴 시를 묶어 오는 11월 시집도 출간한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향피리를 불고있는 무안스님.

문화재 안내판 읽기쉽게 교체
문화재청, 시·도에 정비지침 보내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로 이뤄져 있는 전국의 모든 문화재 안내판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래된 기존 안내판을 어려운 용어만 한글로 풀어 헤쳐 교체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안내문안의 정비, 문안집필 및 감수, 영문번역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마다 개별관리코드를 매겨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정비까지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도록 했고 설치형태도 문화재 및 주변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자율화한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정비지침을 각 시·도에 보내 안내판 실태를 파악한 뒤 석굴암, 팔만대장경과 경판전 등 세계유산과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부터 서둘러 정비키로 했다. 현재 문화재 안내판은 국가지정 1천767건, 시·도지정 3천588건, 궁·능·원 178건 등 모두 5천533건에 설치돼 있다.

오종욱 기자

2000년은 '새로운 예술의 해'
문화부 선정

문화관광부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장르를 불문하고 새로운 예술의 영역과 방향 및 흐름을 모색토록 지원한다는 뜻에서 '2000, 새로운 예술의 해'로 선정했다. 문화부는 그 동안 문화·예술계, 언론계등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결과와 문화부 정책자문기구인 '문화비전 2000추진위원회'의 총 4차례에 걸친 회의결과를 토대로 미술·음악등 특정 장르만을 선정,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이들 예술장르를 통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예술의 해'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뭣보다도 '새로운 예술'에 밀려나는 전통문화예술의 운명과 급조된 조직위원회의 졸속 행정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대식씨 사진집 출간

경주 남산 부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잡은 사진집 〈경주 남산, 천년 전의 얼굴들〉(미술세계 刊)이 출간됐다.

작가 김대식씨가 지난 한 해동안 경주 남산 유적지를 돌며 렌즈에 담아온 불상 상호를 엮은 〈경주 남산…〉에는 1백여점의 사진작품이 실려있다. 김씨는 "남산의 불상 상호는 경전에서 말하는 '80종호'라기 보다는 다양한 민초의 얼굴을 형상화 한 민불(民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창배씨 '한국의 달마' 전

선화집 〈한국의 달마〉를 펴냈던 단원 김창배 화백이 9월28일부터 24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한국의 달마'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춤추는 달마' 등 김화백이 새롭게 시도한 달마의 모습을 비롯 다양한 표정의 달마 1백8점이 소개된다. 전시회는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해변 공연장 미술관에서 연장 전시된다. (02)736-7445



◇김창배作 '웃는달마'

박윤희씨 서예대상



경남도 주최 미술대전에서 박윤희씨(41·전남 곡성군 개천면·사진)가 '법구경'으로 서예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총 932점이 출품된 이번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씨는 10여년간 고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펴온 원력불자. 지난 84년부터 서예를 시작한 박씨는 그동안 동아미술대전 입선과 월간 서예 입선, 국선 입선 등의 수상을 했다. 시상식은 16일 10시 경남도문예회관.

범어사 성보 '지방문화재 지정'

부산시는 3일 범어사 소장 전적류 1천여종 3천여책, 목판 2백여판 등을 최종 심의하고 목판류 6종 182판, 문화재자료 4종 4점 등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했다. 지정된 문화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태조조에 제작된 〈삼국유사〉 권4~5. 현재 보물 419호로 지정되어 있는 삼국유사와 동일본으로 귀중한 사료로 평가(본지 234호 7면 참조)된다. 이번에 심의한 대상은 총 22종 283건의 유물이며 심의문화재 모두 지정되는 선례를 남겼다. 범어사에서도 이번 심의결과에 주목, 소장 유물의 재평가 및 추가 발굴 유물의 수집 등에도 박차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승가원-19일 관음사 '음악회'

가을을 맞아 산사와 도심에서 풍성한 음악회가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현성)과 강북구청은 17일 저녁7시 수유여중에서 '제1회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구피, 도원경, 크라잉너트 등 록과 댄스그룹들이 대거 출연해 사랑 나누기에 앞장선다. 이외에도 크러너스(은곡공고), 몸부림'S(서울외고), 樂(수유중) 등 청소년 그룹 들도 함께한다. (02)928-0750

19일 청주 관음사(주지 이두)에서는 '99 가을 산사 음악회'가 마련된다. 경내에서 펼쳐질 이번 음악회에는 대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 등 9명으로 구성된 국악 관내악단 '신모듬'의 연주와 성악가 정율스님의 음성 공양도 펼쳐진다. (0431)256-6254

감사의 말씀

호국참회 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제 14대 주지 광복스님 진산식**이 지난 9월 6일 성대하게 봉행되었습니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해 종회 호계원, 교육원, 포교원 등 종단 주요기관 및 제방의 중진 대덕스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를 보내주신 가운데 신임 주지 광복스님은 정화불사로 한국불교를 중흥하신 청담대종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의 화합 속에서 포교 도제양성 복지불사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제방의 스님들과 신도님들께 우선 지면을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 2543년 9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자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대 백창기회장 취임법회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대 백창기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가불자들이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한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중앙신도회의 힘찬 출발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불기 2543(1999)년 9월 16일(음력 8월7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조계사 대웅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대 백창기 회장 취임법회 공동준비위원장 최동원·오희창·명호근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3층 전화 02-733-7277 팩스 02-733-7278

"자기종교의 의미 재발견 필요"

달라이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시화 옮김



350여 개신교신자대상 달라이라마 영국강연 내용

1994년 9월 중순 어느날 아침 영국 런던 미들섹스대 강의실.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65)는 350여 개신교신자들 앞에 섰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 온것이 아니다'라며 부드럽고 나지막한 인사말로 안심시킨다. 그리고 "사람의 감성과 문화배경이 다양하므로 오직 하나의 '길'만이 진리의 길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이날 행사는 세계그리스도교 명상공동체가 각국의 명상 수행자들을 위해 마련한 세미나. 신간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는 세계그리스도교 명상공동체가 연 '존메인 세미나'에서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가 사흘동안 성경 복음서의 중요 구절을 강연했던 내용을 모아 엮은 것이다.

강연이 진행되는 긴시간,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헌을 읽고 강론하며 토론자들의 도전적인 질문에 답하는 동안 달라이 라마의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삶에 대한 명징한 통찰로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근본이 같지만 단지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자비 형제애 용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종교가 닮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불교교리에서 창조주 하느님이나 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도이자 그리스도교'로 불러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신부는 "달라이 라마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바꾸라고 충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각자가 믿는 종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재발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불교도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더 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고 털어놨다.

이 책은 영국 미디오 메디아와 미국 위즈덤출판사에서 〈선한마음(The Good Heart)〉으로 출간됐었다. 값 7천8백원.

김중근 기자

인터뷰 '제1회 새글 공모전' 마련 윤재승 민족사 대표

"작가 발굴 출판계 화두"



"침체된 불교출판계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대중 신인작가 발굴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창사 20주년 기념 제1회 새글 공모전을 실시하는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는 작가 발굴을 교계 출판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글을 쓸 작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윤 대표가 새글 공모전을 실시하게 된 이면에는 그동안 수차례 시도한 각종 기획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창사 20주년 동안 불서 350여종 출간

93년 기획한 〈한국인의 불교〉(전6권)는 시도조차 못했고, 최근에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한국의 고승 20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관에 부딪쳐 있다. 97년까지 완간예정이었던 〈한국의 고승 20선〉의 경우 지금까지 원고조차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 심지어 적합한 필자조차 선정하지 못한 부문도 있다.

윤 대표는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교계가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새글 공모전은 21세기 교계를 이끌어갈 역량있는 불교전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첫 시도인 셈이다. 민족사는 앞으로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자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학술서와 불교개론서를 주로 펴내고 있는 민족사는 20년동안 3백50여종의 불서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불교경전〉(전22권), 〈학술총서〉(전44권), 〈깨달음 총서〉(전46권) 시리즈 등은 독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민족사는 89년 '깨달음 돈오돈수인가, 돈오점수인가' 세미나를 여는 등 불교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획으로 불교출판계를 이끌고 있다.

윤 대표는 "교계 출판사들이 몇몇 필자들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을 확대하고 기성작가들이 새로운 감각의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대중들의 신심과 지식문화를 이끌어가는 첩경이다"고 강조했다.

민족사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작가의 자격 기준과 모집분야를 까다롭게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다만 모집분야에서는 전문적 학식이 필요한 학술서와 시·소설류만 제외했다. 불교입문서, 교리해설, 산문집, 불교문화예술, 사찰기행 등 미발표된 새로운 주제와 형식의 글을 대상으로 한다.

윤 대표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창의력 있는 원고를 수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귀띔했다.

제1회 새글 공모전의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800매 이상이며 마감은 2000년 3월 31일까지다. 대상(1편) 300만원, 우수상(2편)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문의 (02)732~2403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미니북 출간



지난 6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출간돼 불자들은 물론 일반독자들까지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정찬주씨(암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의 암자 순례기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 刊)가 미니북으로 새롭게 나왔다. 처음 출간됐던 판형(신국판형 210×150)의 4분의 1크기(110×83)인 이 책은 활자를 작게 했을 뿐 내용은 그대로 수록하고 있어 휴대하고 다니며 틈틈이 읽기에 제격이다. 값 3천5백원.

'우리역사의 수수께끼' '21세기 우리문화' 역사서 '눈길'

역사의 의문과 진실을 파헤친 새로운 형식의 역사서 두권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2〉(김영사 刊)가 미스터리에 싸인 역사 사실을 분석한 책이라면 〈21세기 우리문화〉(한겨레신문사 刊)는 새로운 세기의 길을 찾기 위해 역사를 문화론적 관점에서 서술한 책이다.

이덕일·이희근씨가 함께 펴낸 〈우리역사의 수수께끼 2〉는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추적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우리 역사를 바꿀 또 다른 30가지 오해와 진실'이란 부제로 출간된 이 책은 당시 역사 상황과 1차 자료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치밀한 자료 고증을 토대로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민속학자 주강현씨(한국민속문화연구소장)가 쓴 〈21세기 우리문화〉(한겨레신문사 刊)는 '21세기를 위한 우리문화 길잡이'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할 여덟가지 테마를 고정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민중생활관이라는 맥락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학과 서교논쟁을 무위로 돌리고 조선의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의 조선으로 되어버린 어긋남'에서는 미국의 기독교문화와 일본의 식민지 문화가 우리문화를 왜곡시키는 과정은 눈여겨 볼만하다. 또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는 장승과 솟대에 의지한 조선 민중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화제의 책

화두의 향기 | 이청 지음

109가지 화두·선사·선서 함께 정리



화두집에서 후세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두들만 가려뽑아 해설 대신 선사들의 설명(평창)을 압축하여 엮은 〈화두의 향기〉(시공사 刊)가 나왔다. 〈무문관 가는길〉〈이뭣고〉 등을 쓴 이청(54)씨가 펴낸 이 책의 1부 '보았으나 보지 못했고 만났으나 만나지 못했다'에서는 우리나라 선사들이 자주 거론해 온 화두 109가지를 엄선 소개하고 있다. 2부 '화두의 세계'는 화두가 어떻게 생겨났고, 뜻은 무엇이고 그것을 발전시킨 선사들로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화두를 모아 놓은 선서를 살펴보는 등 화두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값 7천5백원.

한국불학사 | 고영섭 지음

한국불학의 독창적 무늬와 살결



인도 중국 일본과 다른 우리의 사상적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호화할 수 있는가. 한국 불교 또는 불학의 특징을 '종합성'과 '독창성' 또는 일승(一乘)과 일미(一味)의 코드를 정리한 〈한국불학사〉(연기사 刊)가 나왔다. 도서출판 연기사의 연기학술총서 첫번째 권.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고영섭씨가 펴낸 이 책은 '한국의 사상사' 또는 '한국철학사'를 위한 기초적인 첫 작업으로 신라·고려시대편을 싣고 있다. 한국불학의 무늬와 살결, 신라의 사상가들, 고려의 사상가들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값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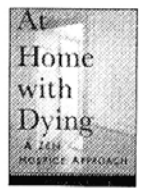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2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3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4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창작시대
5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 인 호	여 백
6	풍경	원 성	이 레
7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소 광 섭	서울대출판부
8	달라이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9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10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구입문의:(02)737-0695

해외신간



▲젠 호스피스= 역설적인 아름다움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젠 호스피스(At Home With Dying : A Zen Hospice Approach)〉가 출간됐다. 메릴 코렛은 이 책에서 죽음이란 다른 삶을 받는 종교적 의식이라며 건강한 종교인이 여기에 참여해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챙겨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렛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불교간병인센터에서 10년간을 자원봉사해 온 여성불자. 그녀는 이 책에서 불교간병인센터의 대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Shambhala Pubns 간행 ISBN 1570625158



▲곰에서 찾는 불교관= 야생에서 살아가는 곰의 생태습관을 우화하고, 그 속에서 불교적 세계관을 제시한 〈곰에서 찾는 불교관(Buddhism for Bears)〉이 출간됐다. 클레어 닐슨에 따르면 곰은 우리와 같이 공(空)을 느낄뿐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무리의 소중함과 각 개체간의 인드라적 관계를 체험한다고 한다. 닐슨은 동화적 언어와 서술을 통해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속한 곳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미국의 저명한 일러스트 작가 크리스 리델의 삽화도 감상할 수 있다.

VHPS/St. Martins Press 간행 ISBN 0312205031



▲젠 달력= 불교가 서구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고작 1세기. 그러나 서구에서 불교는 새로운 대안문화로 자리잡을 만큼 급성장했다. 과연 1세기 동안 불교는 그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만약 여기에 해답을 찾고 싶은 불자가 있다면 〈젠 달력(The Zen Calendar)〉을 읽어봄직 하다.

이 책에서 데이비드 쉴러는 리오 츄(베트남), 토로우(미국), 달라이 라마(티벳), 웬글러(독일) 등의 인물을 통해 불교가 서구에 미친 영향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서구불교 이해를 돕고 있다. 쉴러 이 연대기를 2권으로 기획했고, 이 책에서는 1세기 가운데 후반기 50년이 수록됐다.

Workman Publishing Company 간행 ISBN 0761115986

오종욱기자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백중·49재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해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월간 『법공양』을 보셨습니까?


월간 『법공양』은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64쪽의 조그마한 잡지입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어 주는 큰스님들의 비중있는 법문과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김현준 원장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년 구독회비는 1만원이며 법보시를 원하는 분을 운영위원으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간 『법공양』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 한 권의 잡지가 틀림없이 신행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문의 : ☎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

"연등회-팔관회-제석도량 고려인 공동체의식 고양"

안지원씨 '고려 불교의례연구'서 주장



"단순 종교의례 벗어나 정치·사회·문화적 기능 현재 연등축제의 뿌리"

"고려에서 성행했던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은 국가적으로도 중요시되고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큰 불교의례들이므로 어떤 다른 불교의례들보다도 고려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 궤를 같이 했다."

'고려시대 국가 불교의례 연구-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로 서울대 98학년도 후기 박사학위를 받은 안지원 강사(동국대)는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은 고려시대 어떤 불교의례들보다 일부 계층이나 특정한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전계층적으로 설행되어졌다"며 "고려사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서 단순한 종교의례가 아닌 사회적 행사가 되어 고려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연등·팔관회는 민간적인 불교행사가 국가의례화한 것이고 제석도량은 왕실중심의 불교의례가 민간에 확산된 것이 특징이다. 고려의 연등회가 정월 혹은 2월에 이루어진 것은 본래의 불교적 의미에 재래의 제천신앙과 농경의례가 부가된 것으로 연등행사를 통해 재래의 제천신앙과 농경축제가 사회적 의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개경과 서경의 연등회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배층의 통치력을 과시하고 계층간의 결속을 도모하는 행사로 마련된 것으로 후삼국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왕조를 수립한 고려정부의 사회통합에 대한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 지방에서의 연등회는 지방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재확인하는 행사로서 중앙의 연등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팔관회의 사회적 성격은 대내적인 면에서 지역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전국 각지의 토착신앙을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구조로 종합하는 역할을 했다. 함께 의식에 참여한다는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고려인으로서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켰다. 대외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조가의식을 거행함으로써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 나름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안 강사는 연등·팔관회에는 기곡제와 추수감사제같은 농경의례적 측면과 전시대의 토속신앙적 측면들이 포용되어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역사적 기능 등이 복합적인 국민축제 형식을 띠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연등·팔관회에서는 고려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가 연회의식, 군신조가, 외국인조가 등의 의례절차를 통해 구현됨으로써 개인적 기복을 위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정치적 기능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인도 중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석도량은 왕권 신성화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왕실에 한정된 불교의례였다가 점차 전계층으로 확산되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집중적으로 설행됐고 개인적 기복신앙으로도 유행됐음을 밝혔다.

특히 안 강사의 이번 논문은 연등축제가 국민축제로 범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려는 이 때 연등축제의 기원인 연등회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 위치를 밝히고 있어 주목되는 논문이다.

안 강사는 한국불교사상사 연구에서 불교사와 교리의 접맥으로 일획을 그은 故 안계현 박사와 부녀지간이다. 이번 연구는 불교사 연구에서 팔관회와 연등회를 단독주제로 설정하는 등 불교의례 연구에 천착했던 故 안 박사의 뒤를 잇는 연구여서 더 주목받고 있다. '신라정토왕생사상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故 안 박사는 1956년 〈팔관회고(八關會攷)〉, 1959년 〈연등회고(燃燈會攷)〉 등의 논문을 발표한 바있다. 19일은 故 안 박사의 18주기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연등·팔관회가 국민축제 형식을 띠고 있었음을 밝힌 안지원씨의 박사학위논문은 오늘날 연등축제의 역사적 뿌리를 밝혀 주목된다.

"발해 다양한 불교사상·종파존재" 문명대 교수
"발해조각의 뿌리는 고구려 양식" 최성은 교수

한국미술硏 '발해미술의 …' 세미나

조각 건축 고분벽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술사적 접근을 시도한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제3회 국제학술대회 '발해미술의 국제성과 한국적 특징'이 11일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주최로 개최됐다.

발해조각의 양식의 변천을 처음으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며 살핀 문명대 교수는 발해불교가 현재까지는 통설로서 법화신앙만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보다 유가유식사상을 주류로 화엄 선 등 다양한 불교사상 및 종파가 존재하면서 해동불교성국으로 인식된 것이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문 교수는 초기 발해불상은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형태나 양감, 선묘 등에서 발해적인 특징이 약간씩 가미되고 있고, 중기 조각은 세련되고 광만감나는 사실양식이었으나 몇 예가 발견되지 않아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며, 말기 조각은 나말여초나 중국의 당말오대 조각양식과 유사하게 형식적이고 장식적인 특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역시 신라와 비슷하게 현실적 사실주의 양식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또 발해의 멸망과 함께 상경의 사원들이 화재로 소멸됐기 때문에 말기 조각이 발해조각의 하한선을 알 수 있게 한다며 한국 조각사 편년설정에 매우 귀중한 예로 평가했다.

발해 조각 그 중에서도 보살상의 양식을 살펴본 최성은 교수(덕성여대)는 발해 보살상 가운데 팔련성 출토의 상들은 남북조시대부터 수를 거쳐 초당까지의 양식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발해조각의 뿌리가 고구려 조각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또 당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경성 출토의 상들은 매너리즘과 현실화된 분위기, 밀교적인 성격 등을 띠고 있는등 발해조각은 뒤에 오는 요(遼)대 조각 형성에 실제적인 모체가 됐다고 주장했다.

'발해 상경용천부의 사원건축에 대하여'를 발표한 이강근 교수(경주대)는 상경용천부 도성 안에 분포돼 있는 절터 가운데 제1·제9절터와 6세기말 신라의 경주 황룡사지·합천 영암사지·영일 법광사지 금당과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에서 내외진 이중 형식의 금당이 조성됐음을 밝혔다. 이 교수는 같은 시기 고구려나 당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외진 이중 형식의 금당이 유독 발해와 신라에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라와 발해의 교류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크라스키노 사원지에서 출토된 불상. 얼마전 분실됐다.

中 '방산석경' 굴에 묻어 영구보존



◇1999년 9월9일 9시9분에 묻힌 '방산석경'.

중국 최대의 석경인 〈방산석경〉의 실물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됐다. 대기 등 환경오염으로 경판이 마모되는 등 훼손이 심해 대비책이 논의되던 〈방산석경〉을 원래의 자리인 방산석경굴에 영구보존키로 한 것. 지난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중국정부는 9일 오전 9시9분을 기해 방산석경굴 지하에 1천7백만자가 새겨진 1만4천278개의 석경을 묻었다.

지난 1956년 중국정부에 의해 발굴이 시작된 〈방산석경〉은 북경 방산구에 자리잡은 운거사에서 관광객에게 공개돼 왔다. 〈방산석경〉은 수나라 때부터 한사람이 하루에 두글자씩 300여년이 걸려 조성한 석경으로 1천122부 3천572권의 불경이 수록되어 있다. 〈방산석경〉 가운데 7개는 고려의 혜월스님이 중수한 것으로 운거사의 대웅전 앞 북쪽에 위치한 석비에는 혜월스님의 사적이 새겨져 있다.

학술단신

'사명당의 의의' 학술회의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과 건봉사는 17일 오후1시 '한국불교사에서의 사명당의 의의'를 주제로 제17회 불교학술회의를 동국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김종명 교수(동국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정병조 교수(동국대)는 '사명대사 유정의 정토사상'을, 박노자 교수(경희대)는 '승병 의거의 역사적 의의'를,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건봉사와 사명당'을 발표한다.

비판불교 4차 세미나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18일 오후2시 동국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 제4차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판불교의 여래장과 본각사상 이해에 대한 검토'(최정규), '비판불교의 인도철학 이해에 대한 검토'(이은덕)가 발표될 예정이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데일리 젠

'오늘의 선구' '삽화로 보는 선경' 등 불교적 일러스트의 묘미 감상 기회

세간의 일상을 선경(禪境)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 불자 네티즌 가운데 모니터와 마우스 클릭만으로 세간의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데일리 젠(dailyzen)'을 방문해 봄직하다.

미국의 일러스트 작가 크리스 리델이 개설한 이 사이트에는 △오늘의 선구 △삽화로 보는 선경 △고승 법어와 선시 △이야기 방 △다른 사이트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늘의 선구'에는 중국 서천의 제22조 마다라존의 오도송인 "마음이 끝없는 곳을 향해/ 그 굴러간 곳은 참으로 고요하겠지./세월이 흘름에 따라 성(性)을 알게 되면/기쁨도 슬픔도 없겠지."가 소개되어 있다.

또 사이트의 운영자인 리델이 오도송을 구체화시킨 삽화를 열람할 수도 있다. 푸른색과 검은색으로 그려진 리델의 삽화에는 거대한 야산을 향해 똑바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리델은 이 삽화에서 자연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본성을 파악하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방황하지 않고 희로애락을 넘어 편안한 마음의 경지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삽화로 보는 선경'에는 명상, 정화, 산(山), 경이(驚異) 등을 주제로 리델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 8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제공되는 일러스트는 작품을 스캔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삽화는 리델이 포토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들. 이들 삽화들은 부드러운 곡선 보다는 직선을 이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강직하고 분명한 선(禪)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일러스트란 피사체의 특징과 그 움직임의 순간을 포착하는 그림. 미국 일러스트 화단에서 거장으로 꼽히는 리델에게 선(禪)의 인상은 바로 곧은 선, 그 자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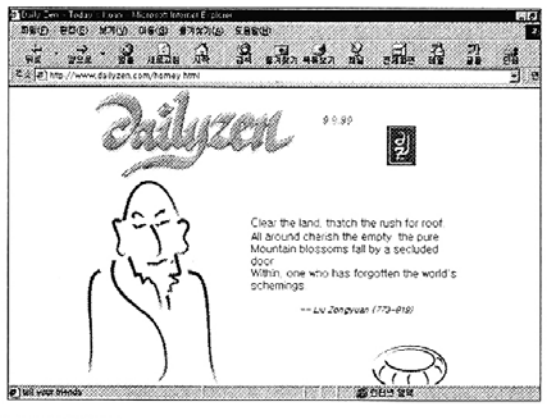
'고승 법어와 선시'에는 달라이 라마(티벳)의 '법칙은 법칙일뿐', 틱낫한스님(베트남)의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페마 쵸드론스님(미국)의 '원숭이의 명상' 등이 게재되어 있다. 또 알란 와츠, 케로악, 긴스버그 등 19세기말 북미대륙에서 '명상 붐'을 주도했던 시인들의 시가 소개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야기 방' 메뉴를 이용하면 가상공간에서 시공을 초월해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다른 사이트로' 메뉴에서는 불교사이트 가운데 선경을 즐길 수 있는 사이트 8곳에 대한 연동서비스가 제공된다.

인터넷에 개설된 수많은 불교사이트를 점검·평가하고 있는 달마링(dharmaring)에서는 '데일리 젠' 사이트를 "사색적인 질문을 던져, 세간의 일상을 고양시키는 사이트"라고 평가하고 있을만큼 품격 높은 정보를 선보이고 있으며, 각 자료는 주단위로 새롭게 꾸며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dailyzen.com/homey.html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범어원전 아직도 못 찾아

劉宋代 번역…천태 · 길장 등 주목
우리나라 교학적 연구 거의 없어

경전 속의 禪 사상 34

관무량수경 ①



글쓴이
강동균
〈동이대 철학과 교수〉

〈관무량수경〉은 흔히 '왕사성의 비극'이라고도 불리어진다. 이 경은 그 첫 부분에 "송(宋)의 원가연중(元嘉年中)에 강량야사(畺良耶舍)가 번역하다"라고 되어 있다. 송(宋)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역사상 두번 있었다. 하나는 수, 당, 오대(五代), 그 다음에 일어난 송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도 훨씬 이전 남북조 시대에 생긴, 유무제(劉 武帝)가 양자강 남쪽 건업(建業)에 도읍을 정하고 세운 송 나라가 있다. 이것을 유송(劉宋)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를 가리킨다. 그 시대에 서역에서 강량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를 찾아 왔으며, 종남산(終南山)의 도림정사(道林精舍)에 살면서 이 경을 번역하였다고 전하여진다.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들은 거의 두가지 이상의 이역(異譯)이 있지만, 이 〈관무량수경〉은 한가지 번역밖에 없다. 볼론 인도말로 된 원전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은 역경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이다.

〈관무량수경〉이라는 제목은, 본래의 이름을 〈관극락국토무량수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觀極樂國土無量壽佛觀世音菩薩大勢至菩薩)인데, 이것을 줄여서 〈관무량수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경의 이름의 내용은, 극락국토(極樂國土)의 장엄(莊嚴)과 그 나라에 계시는 무량수불(無量壽佛=아미타부처님)과, 좌우에서 부처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관음 · 세지(觀音 · 勢至)의 양대 보살을 관(觀)과 관지(觀知)의 두 가지 뜻이 있다. 〈관견〉이란, 극락 정토의 아름답고도 불가사의한 장엄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을 말하며, 〈관지〉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는 절대 신심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신앙적으로는 〈나무아미타불〉 · 〈관세음보살〉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교학적으로는 〈무량수경(無量壽經)〉과 〈아미타경(阿彌陀經)〉에 치중되어 있으며, 〈관무량수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비해 중국에서는 〈관경(觀經)〉에 대한 연구가 매우 많다. 중국의 정토교의 비조(鼻祖)라 불리어지는 북위(北魏)의 담린(476~542)이 정토교로 회심(廻心)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관경〉이었으며, 천태지자대사(天台智者大師)을 비롯하여 가상사(嘉祥寺) 길장(吉藏), 정영사(淨影寺)혜원(慧遠)등 중국사상을 주도했던 대사상가들이 앞다투어 〈관경〉에 주석을 담았다. 그러나 〈관경〉의 주석서로는 당(唐)나라 선도(善導, 613~681)의 〈관경사첩소(觀經四帖疏)〉가 가장 뛰어나다. 줄여서 〈관경소〉라고 불린다.

〈관경소(觀經疏)〉에서는 〈관경〉을 〈무량수관경(無量壽觀經)〉이라고 부르고 있다. 〈관(觀)〉이라고 하는 용어는 불교에서 실천을 대표하는 말이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관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뿐만 아니라 도교에서도 사용된 용어이다. 도교의 허무사상과 중국에 토착해 관법(觀法)이 하나가 되어 공관(空觀)이라고 하는 도교의 실천이 전성기를 맞이한 시대였다. 따라서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주목받았다. 당시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천태대사, 정영사 혜원, 가상사 길장등 당시를 대표하는 학자가 거의 이 〈관경〉에 주목했다. 그것은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도가 〈관경소〉를 통해서 해야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고금해정(古今楷定)이었다. 그것은 잘못된 관의 이해를 바로 잡고,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말이다. 관을 잘못 수용했던 것을 바르게 하고 관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량수관경〉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선도가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교를 비롯한 외도(外道)의 관이요, 다른 하나는 불교내에서의 관이다.

과 학 산 책

진공

양자역학은 원자와 핵 수준에 작용하는 자연법칙을 묘사하는 새로운 자연의 언어이다.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입자라는 개념을, 특정 부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 존재하는 비국소적이며 어떤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만을 알려주는 파동함수로 바꾸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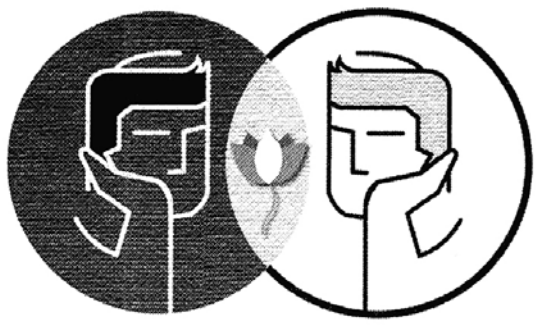
양자장 이론 (quantum field theory)은 이러한 양자역학을 핵과 기본 입자 물리학의 상대론적 영역으로 확대한다. 이 이론은 파동함수를 가능한 모든 장(場) 모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양자장 이론이란 그 이전에는 서로 별개라고 여겨지던 입자와 힘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론적인 구조로 통합한다. 입자와 힘은 그 근원을 이루는 양자장의 다른 활동 방식일 뿐 이라는 것이다.

진공에 대한 설명도 약간 다르다. 고전적인 진공에는 물질과 요동치는 장(場)들이 전혀 없다. 진공은 비어있는 그 무엇이다. 그러나 양자역학에 의하면 공간의 한 영역이 이론상 일상적인 물질이 없다고 하여도 이 진공은 비어있지도 않으며 성격이 없지도 않다.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물질과 역복사를 제거하여도 에너지가 진공에 남는다. 이 남아있는 에너지의 존재를 예견한 것은 1911년 막스 프랑크에 의해서 인데 이는 진공의 영점 에너지(zero-point energy)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모든 가능성 동시에 존재

"가득차 있어 빈것처럼 보이듯
'나'란 존재 없어서 없는 것인가"

양자장 이론은 이 같은 양자역학의 진공 이론에 모든 가능성의 공존이라는 개념을 추가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양자장 이론은 파동함수를 가능한 모든 장 모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진공을 모든 가능성들이 더해져 있어 비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본다. +1과 -1이 합하여지면 0이 되듯이 모든 가능성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0이 되기 쉽다. 다시 말해 진공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들이 다 있어 합쳐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양 극단의 모습, 즉 없음과 동시에 모두 있음으로 같은 현상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진공의 구조는 양자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의 결과이다. 불확정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과 에너지는 동시에 모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어느 하나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면 그 짝에 대한 정확도는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즉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 에너지에 대한 불확정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따라서 짧은 시간동안에는 양자역학적 진공이 영이 아닌 어떤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 진공 에너지는 한 입자와 그 반입자의 생성 혹은 소멸 혹은 장들의 나타남과 사라짐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양자장의 변화를 우리는 요동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의 생각하게 된다. 즉 비어있음을 설명하는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데, 비어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다소 우리에게 낯선 방법인데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가득 차 있어 비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애를 먹는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서 없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많아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자식, 부모, 회사원, 국민, 시민, 등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습으로 순간순간 살아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어떤 "나"라는 모습에서도 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나"라고 이름 붙일 것이 너무나 많아 어떤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 없어 모두 이름하여 빌 공(空)자를 붙여 주인공이라고 한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⑮

중도 ③

웬만한 연륜과 공부가 쌓인 사람들조차 삶과 고통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고(苦)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고통의 속성인 일시성을 모를 때, 결국 우리는 고통의 인과(因果)를 계속 떠올리는 망상(생각)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삶이 고의 법칙을 떨칠 수 없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바로 열림과 수용으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명상을 시작할 때, 명상이 어떤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 사람들은 "마음이 평화롭고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명상을 한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리기 위해", "즐거운 마음을 갖기 위해" 등 특별한 이유를 달고 명상수행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요행(僥倖)이 생긴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행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명상에서 요행을 찾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명상은 단순히 숨고르는 일이 되고, 권태와 실망이 뒤따라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명상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한다.

"진실을 말하라!", "사유(思惟)여! 계속해서 일어나지 말라" 등을 읊조리며 명상 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자.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겠는가? 아주 조금일 뿐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

원하는 것 얻으려 명상수행하면
숨고르기만 할뿐 자기성찰 못해

무명의 세계에서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없는 집착과 걱정의 굴레에 얽매인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기만을 원하며 욕망을 따라갈 뿐이다. 무엇을 하든지 그저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바란다. 안락과 쾌락을 계속 맛볼 수 없으면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치밀어 불행을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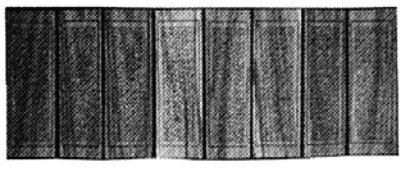
사람의 생각이 감각대상만을 좇아간 까닭이다. 생각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는 따라간다. 그러나 생각과 지혜는 다르다. 지혜의 상태에서 마음은 고요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우리들은 알아차리고(正知) 자각(自覺)할 따름이다. 보통의 경우 감각대상과 만나면 우리는 그 대상에 관해 생각하고 숙고하고 분별하고 근심한다. 명상 수행은 세간에 앉아, 즐거움과 고통에 집중하고 소란스러움과 고요함을 듣고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의 관계를 관(觀)하고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열린 마음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등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의 가치를 보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열심히 정진했다면 생각들이 맑아지고, 고귀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세밀히 마음의 소리를 듣고 타인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을 꼼꼼히 새겨야 한다. 욕망 · 행복 등 마음의 움직임 하나 하나를 놓치지 말고, 그런 감정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때 마음의 움직임을 충족시키는 한낱 술(術)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배우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만 마음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무를 키울 때, 먼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쫓아주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나무는 저절로 자라난다. 하지만 나무가 얼만큼 빨리 자라줄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명상수행에서 고귀한 정신적 부(富)와 소중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다.

오종욱기자

향나무 금강반야바라밀경 병풍



전 면



후 면

★최고급 먹싹신쇄(붙변)

◆차례나 성묘(직접 지니고) 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할 때 경상위에 놓으면 다른 사물에 방해되지 않게 정진할 수 있습니다.
◆사찰방문 및 귀빈께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불자님들은 각 가정에 한점씩 소장하세요.

■규격 : 8폭, 크기 : 가로 102cm × 세로 38.7cm

▶가격: ₩50,000 (고급 오동나무 Box 포함)

향나무 특징

향나무는 예로부터 잡귀를 막고 깨끗이 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나무를 몸에 지님으로 행운을 가져온다는 옛부터 전해내려온 덕담도 있습니다.

향나무 명함

수제품으로 천연의 나무질이 그대로 나타나고 은은한 자연향이 발산되며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귀하의 연락처를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며, 결코 값싼 명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석선물로 좋습니다.

향나무 명함



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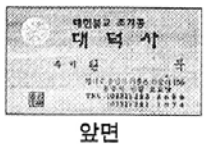
佛자



법회

※ 뒷면 원하시는 글 · 그림을 넣어드립니다.
※ 스님 천분을 모시고싶습니다.
※ 존경하시는 분에게 선물이나 홍보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 예



앞면



뒷면

스님 신도님에게 한장씩 보시하시면 오래토록 간직합니다.

실용신안등록 No. 17386

▶가격: 30,000원(2통 100매) 50,000원(4통 200매)

주문처: 마하몰 02)732-1522, FAX 02)737-0697 / 향목명함 0331)286-2371, 011)262-4371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거든 하물며 정식을 가진 사람이겠는가?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라니와 더불어 무농약 유기농 재배로 깨끗하고 약성이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법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점이 황토삼백초 만의
다른 점입니다.
손님 접대, 선물용으로 제격입니다.





참고서적 :
조규형 편저 [삼백초 건강법]
97.11.6 MBC-TV '고향은 지금'
98.9.24 KBS-TV '6시 내 고향'
99.7.10 SBS-TV '모닝 와이드' 등 방영
http://WWW.teafarm.com

SAM BU FARM 삼부농산
전통식품지정업체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北불보살 남쪽에 나투신 뜻은

북한 문화재 첫공개…'문화재 통일' 첫발



◇고구려 '영강7년명 금동광배'. 74년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출토. 58자의 명문이 새겨진 미륵불 광배.



◇신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전쟁 당시 경남지역에서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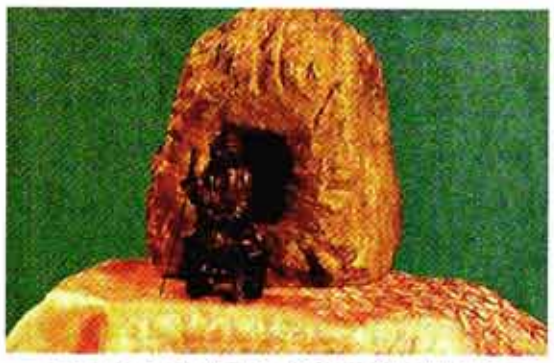
◇신라시대 '금동석가여래입상'. 77년 발굴.



◇고려시대 '금동11면8비 관음보살입상' 81년 평양시 와산동에서 발굴.



◇조선 '분장자기불상집'. 83년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에서 발굴. 북한에서 '감실'로 분류했지만 남측 문화재 전문가들은 '일반도자기'로 보고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구려 '금동지장보살과 돌함'. 66년 평양시 대성산에서 출토. 발굴 당시 이 보살상은 돌함에 들어있었다. 머리에 두건을, 손에 지팡이와 구슬을 든 것으로 보아 지장보살임을 알수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한 경향신문사 '문화유적조사단'은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한문화재 전문가들과 '문화재자료교류'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 부소장과 김봉건연구위원,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위원 박진욱·송영종.

'영강7년명 금동광배' 등 성보 14점 불교미술사 공백 메울 자료 평가

사상과 이념의 벽에 가려진 채 우리의 기억 너머에 있던 북한의 불교 문화재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경향신문사 산하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가 북한의 '조선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자료교류계약을 맺고 북한의 비공개문화재 50여점을 포함 문화재 1만여 점의 사진 및 관련 자료를 입수, 첫 공개한 것.

비공개문화재 가운데 '영강7년명 금동광배' '연가7년명 1광3존불' '금동지장보살상과 돌함'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석가여래입상' '금미륵보살좌상' '금동11면8비관음보살입상' '금동석가여래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 '분장자기 불상집' 등 14점은 1960년 이후 발굴돼, 지금껏 남한에 공개되지 않은 성보.

당대 사람들의 삶과 정신적 이상향, 미술경향, 작가정신 등이 녹아든 불교 문화재들은 우리 나라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어 첫 공개된 북한 불교성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킨 불교 문화재는 고려시대 '금동석가여래좌상'(높이26cm). 지난 77년 경북 경산군 향압리에서 출토된 이 불상은 근엄한 얼굴 표정과 가슴 앞에 가로지른 속옷띠, 리본식 매듭과 좁아든 무릎 등 주로 고려 후기의 불상에서 보이는 형상수법을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는 중국의 영향 아래 놓였던 삼국시대 불교미술과 달리 한국적 불교미술의 특색이 드러나는 시기. 작품이 거의 없는 13~14세기 작품으로 추정돼 한국 불교미술사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획기적인 자료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분장자기불상집'(높이 17.7cm)은 당초 북한에서 '감실(龕室)'로 분류했지만, 장충식교수(동국대박물관장) 등 국내 학계에서 "일반도자기일 가능성이 짙다"는 주장을 내비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술품. 불상집의 몸체에는 9개의 구멍이 대칭으로 뚫어져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보리수나무 연꽃가지 두 마리의 새와 연꽃을 새겼는데 한 쪽 연꽃잎에는 '金剛山(김금산)'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북측에서는 9개 구멍은 '9품모임' 즉, 극락세계로 가는 아홉 가지 길이며, '金剛山'은 금으로 만든 부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장교수는 "부처님을 봉안하는 감실은 앞을 다 막아야 하는게 전통양식이며, 또 '金剛山'은 '금불상'이 아닌 제작자의 이름이다"고 말하고 있다.

고구려시대 '영강7년명 금동광배'(높이 22cm)도 눈길을 끈다. 광양시 평천구역에서 출토된 광배는 당시 불에 타서 아랫부분이 일부 녹아 떨어진 채 발견됐다.

연꽃모양으로 된 광배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부각되어 있는데 중심부에는 직경 3.5cm로 된 연꽃무늬가 있다. 광배 뒷면에는 "영강 7년 신년에 죽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미륵존상을 만든다…"로 시작된 58자의 글이 7줄로 새겨져 있어, 이 광배의 불상이 미륵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구려 금속공예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며 우리나라 금석학 연구에도 의의가 있는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시대 '금동아미타여래좌상'(높이 17.7cm) '금동지장보살좌상'(높이 15.1cm)은 83년 강원 금강군 내강리 은정골에서 함께 출토된 불상. 두광과 신광(身光)을 윤곽선으로 나타낸 광배를 지니고 있고, 인간을 형상화한 것 같은 둥실한 상호로 낮고 간소한 연꽃받침대 위에 앉아 있는게 특징이다. 이 불상들은 몸의 비례가 해부학적으로 정확하며 뛰어난 조각기법, 세련된 조형미를 선보인다. 장교수는 "탑을 해체·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며 "원·명나라의 영향이 남아있어 조선시대 불교미술사 흐름 파악에 좋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고려시대 '금동11면8비 관음보살입상'(높이 22cm)은 한눈에 원나라 불교양식이 물씬 풍긴다. 전체적인 형태는 티벳불교 양식이지만, 엄숙한 얼굴에서 고려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에서 발굴됐다.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온 3세기 작품인 '금동지장보살상과 돌함'은 보살의 격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조각수법도 완성되지 못했지만, 고구려 초기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장보살(8.5cm)은 오른손에는 석장을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평양 대성산에서 출토됐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높이 29cm)과 '금동석가여래입상'(높이 8cm)는 7세기 초 신라인의 불심이 담긴 불상.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전시된 반가사유상은 남한의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광륭사에 소장된 반가사유상과 비교해 손색없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가여래입상은 근엄한 표정에 두 눈썹은 반달형이고 귀쪽으로 약간 들린 눈과 곧게 내려온 코 등은 섬세하며 균형이 잘 잡혀있다. 특히 힘있게 솟아오르는 불꽃무늬의 광배는 삼국시대의 수법을 그대로 이었다는 평이다.

74년 금강산 만폭동 금강대에서 발견된 금미륵보살좌상(높이 6cm·본지 237호 1면사진 참조)은 고려 불상에서만 볼 수 있는 족두리 같은 높직한 관을 쓰고 왼통형 방석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세우고 걸터앉아 있는 형상. 이들 불교성보들은 한민족문화네트워크 연구소와 문화관광부가 10월 오픈하는 '남북통합문화관'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글=오종욱 기자
사진제공=경향신문



◇조선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83년 강원 금강군 내강리에서 출토했다. 아미타여래(중앙) 지장보살(왼쪽) 관음보살(오른쪽)등에서 원·명나라 불상양식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고려 '금동석가여래좌상'. 77년 평안북도 향산군 향압리에서 출토.

한민족문화네트워크硏 이 정부소장

"남북 문화재 통합연구 계기"

한반도 문화유산CD 10월 인터넷 소개

"남·북한 문화재가 통합돼 반쪽에 머물렀던 한반도의 역사를 하나로 복원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확인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북문화재 통합을 향한 대장정의 길을 지난 2년간 묵묵히 걸어온 이정씨(경향신문사 부설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부소장)는 이질성 극복 및 '반쪽연구'에 그친 한반도 역사와 문화의 복원을 위해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당국의 승인 하에 북측에 남북간 문화교류 정보화 사업을 제의한 이씨는 98년 2월 북한의 '조선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이하 평화위원회)와 '문화재 자료교류계약'을 맺고, 98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문화유산 조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비롯 북한 유적·유물을 둘러봤다. 이때 북한 문화보존·사회과학원 등의 학자들과 만나 문화유산의 남북공유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북한의 평화위원회가 비디오, 출판물, CD 등 다양한 형태로 보내온 자료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50여점과 3,000여점의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모두 1만여점이다. 북한이 지난 94년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문화재가 600여건임을 감안할 때 북쪽의 귀중 문화재가 대부분 망라된 셈이다.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와 문화관광부는 10월 '남북통합문화관' 사이트를 오픈하고, 북한측이 직접 제공한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 부소장은 "법타스님이 2년전 소개해준 북측 문화재 관련 인사들과 교분을 쌓은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양쪽에서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남북한 문화재를 실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⑨

故云在聖智而不增 隱凡心而不昧
고운재성지이불휘 은범심이불매
旣不增於聖 不少於凡
기부증어성 불소어범
佛祖奚以異於人 而所以異於人者
불조해이이어인 이소이이어인자
能自護心念耳 汝若信得及
능자호심념이 여약신득급
疑情頓息 出丈夫之志 發眞正見解
의정돈식 출장부지지 발진정견해
親嘗其味 自到自肯之地
친상기미 자도자긍지지
則是爲修心人 解悟處也
즉시위수심인 해오처야
更無階級次第 故云頓也
갱무계급차제 고운돈야
如云於信因中 契諸佛果德
여운어신인중 계제불과덕
分毫不殊 方成信也
분호불수 방성신야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빛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어둡지 않다'하였다. 이미 성인이라 해서 불어나는 것도 아니오, 범부라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부처나 조사들이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러나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뿐이다. 그대가 만약 이 말을 믿어서 의심이 담박 없어지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사람의 깨달은 자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돈(頓:문득, 또는 담박이라는 뜻)이라 한다. 이것은 '믿음의 요인이 모든 부처의 과덕(果德:최상의 결실로 얻어지는 덕)과 일치하여 조금의 차이도 없어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 말과 같다.

問旣悟此理 更無階級
문기오차리 갱무계급
何假後修 漸熏漸成耶
하가후수 점훈점성야

물었다. "이미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이 없다면 어째서 깨친 뒤에도 닦아서 점차로 익히고 점차로 이루려고 합니까."

答悟後漸修之義 前已具說
답오후점수지의 전이구설
而復疑情未釋 不妨重說
이부의정미석 불방중설
汝須淨心 諦聽諦聽 凡夫
여수정심 체청체청 범부
無始曠大劫來 至於今日
무시광대겁래 지어금일
流轉五道 生來死去 堅執我相
유전오도 생래사거 견집아상
妄想顚倒 無明種習 久與成性
망상전도 무명종습 구여성성
雖到今生 頓悟自性 本來空寂
수도금생 돈오자성 본래공적
與佛無殊 而此舊習
여불무수 이차구습
卒難除斷 故 逢逆順境 瞋喜是非
졸난제단 고 봉역순경 진희시비
熾然起滅 客塵煩惱 與前無異
치연기감 객진번뇌 여전무이
若不以般若 加功着力
약불이반야 가공착력
焉能對治無明
언능대치무명

답했다. "깨달은 뒤에 점차로 닦아야 하는 뜻은 앞에서 이미 말했다. 그러나 의심을 풀지 못했으니 거듭 설명하겠다.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들으라. 범부는 시작이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섯 갈래의 세계(五道)에 흘러다니며 태어나고 죽고 하되,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뒤바뀐 망상(妄想顚到 : 현재의 번뇌)과 무명의 습기(無明種習 : 근본 번뇌)가 오랫동안 지금의 성품을 이루었다.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신의 성품이 본래 공적(空寂)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금방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익혀온 습성은 갑자기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경이나 순경을 만나면 성내거나 기뻐하며,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이 불처럼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여, 객관 세계에 대한 번뇌가 그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만약 지혜로써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어째서 깨친 뒤에도 점차로 닦습니까"
"무명의 습 갑자기 없앨 수 없기 때문"

큰스님 수행한담

"수천장씩 초를 그리듯

만봉스님 〈봉원사 주석〉



악
- 1909년 서울 生
- 16년 금어(金魚) 김예운화상 문하 입문
- 24년 불교전문강원 수료
- 26년 봉원사 출가 금어 자격 취득
- 72년 인간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지정 태고종 서울교구 종무원장
- 75년 서울 봉원사 주지 역임
- 78년 일본 전시회
- 89년 경복궁 전통공예관 특별기획전
- 91년 일본 동경 경도 등 순회전시
- 98년 은관 문화훈장 제127호 수훈

오는 10월에 90세 기념 전시회를 엽니다. 나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다보니 확실한 삶의 비법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겁디다. 요즘 세상이 어디 호락호락합니까. 나 역시 그림을 선별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절이나 전시회 등에서 불화를 접하게 되는 불자들도 그냥 건성으로 보면 안돼요. 정신 집중을 하고 그림 속의 부처님을 느끼고 보살님을 접해야 합니다.

나는 20살이 믓돼서 출가했어요. 절에 들어온 것은 여섯살 때 일이지만 그 때야 뭘 알고 절에서 살았겠습니까. 그저 명이 짧아 절에 가야만 장수할 것이라는 지나가던 객승의 말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림에 취미가 있었던 내가 눈에 들으셨던지 여덟살 때부터 당시 유명한 금어(金魚)셨던 예운스님의 제자가 돼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에는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저 불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지요. 예운스님이 시키는대로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인연이기보다 전생 인연을 이어가는 길을 그 어린 나이에 만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는 전생에도 불화만 그렸을 것 같아요. 그림공부는 20년 정도 했고 그 후에 자작을 시작했지요. 자작그림을 그린지만도 60년이 넘습니다. 무슨 일이나 무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오직 그림그리는 행위 그 자체에만 전념해야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옵니다.

스승 덕분에 10년동안 그림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열여덟에 금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운스님은 내가 미덥지 않으셨던지 스물이 넘어서야 비로소 금어로서의 일을 허락하셨어요. 금어가 되면 10여 단계로 진행되는 단청일을 지휘할 수 있는데 금어가 되고서도 2년이 지나서야 금어의 일을 맡기셨던 거지요. 틀림없이 너무 어린나이에 금어가 돼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로 생각됩니다.

금어가 되면서 정식으로 이곳 봉원사에서 출가했습니다. 내게 수행은 불화를 그리며 마음다스리는 것이었지요. 그림그리는 것에 원래 취미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루종일 무릎끓고 엎드려서 똑같은 그림을 수천장씩 그리는 것이 재미있을 리 있겠습니까.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신심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요. 그림공부를 하면서 용맹정진도 많이 했습니다. 불화를 그리는 제자들에게 용맹정진을 시키지는 않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할 경건한 마음과 신심은 강조합니다.

불교전문강원에 들어가 〈초발심자경문〉 등 글공부를 조금하고 범패를 배웠습니다. 봉원사 범음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월하스님께 직접 지도받았지요. 그러다보니 1966년 창립된 옥천범음회에서 6년동안 회장직을 맡아 1972년 영산재보존회가 생길 때까지 회장을 했었지요. 범패공부는 영산재 짓소리까지 배웠습니다. 범패공부를 한 것도 수행자로서 근본적인 원리를 깨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글공부도 그렇구요. 이후엔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내 근기가 그림이거든요.

72년 나는 단청장이 되었습니다. 불화는 탱화위주인데 단청이 쉬워 보여도 단청을 하기 전에 불화를 배워야 합니다. 시방초라고 초등과에 해당되는 그림인데

"비록 내손으로 화룡점정했지만 화폭에 나툰 부처님 내몫 아니죠 중생속으로 떠나셨으니까요"

이 시방초를 3천장 이상을 그려야 중등과에 해당하는 천왕초 그리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 천왕초는 사천왕상을 3천장 그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그리는 여래초로 넘어가는데 이 역시 3천장을 그려야 합니다. 탱화나 단청에 쓰이는 색깔은 20여가지정도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천장씩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는 이 일은 이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일이라 여겨 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불화 그리는 일에만 속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도 꼭 들어맞는 이치입니다. 내가 그림을 배우면서 9천여장의 초를 그린 것이 어디 이론으로 될 일입니까. 스스로의 노력 속에서 떠지는 눈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나이에 더러 꾀도 생기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 그래도 그 일에 왠지 마음이 끌려 견디다 보니 10년 세월이 흘렀고 그 세월은 나에게 색과 선을 보는 눈을 키워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책을 보며 체계적인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사는 일도 이와 같은 게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화 그리는 일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돈 같은 재물의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의 계산이 앞서서도 안됩니다. 모든 불사는 크건 작건 간에 시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이 모두 한마음으로 간절한 불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부처님의 회상을 그리고 당우를 장엄하는데 재물의 계산이 앞서면 이미 그 일은 망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딴마음을 품고 그림에 임하는데 색이 잘 나올리 없고 선이 힘차고 곧고 부드러울 리가 없습니다. 지극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마음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부처님 상호를 그리는 선(線) 하나하나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주소 :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일	시간
05	00 아침예불 (송가대 스님) 45 마음을 비우고 (이명학ANN)		05
06	00 교계뉴스 (정수연ANN) 05 경전공부 (법초스님) 25 고승열전 (구인 과) 35 교리강좌 (예정정사) 55 선행365일 (김용원)		06
07	00 뉴스 (정수연) 10 박종운의 아침저널 1부	05 법요교향장좌(최은경ANN)	07
08	BBS 캠페인 (박정원ANN) 00 BBS뉴스정장(보도팀/정수연ANN) (08:25~08:30, L) 30 박종운의 아침저널 2부 (L)	00 범고좌 국비(보교재자팀) 20 사원순례(최은경ANN)	08
09	1분불교상식 (이승휴ANN) 00 뉴스 (박홍식ANN) 05 차한잔의선율 (권법스님) / (김) 기독한만남(도원스님)		09
10	00 뉴스 (이혁정ANN) 05 지비의 전화 (최은경ANN/예기, 원광, 본각스님) 55 반야심경(우리말) (정수스님) 기상정보 (김수정REP)	00 라디오 법회(이명학ANN)	10
11	00 뉴스 (박정원ANN) 10 행복스튜디오 등불회입니다	05	11
12	00 정오종합뉴스 (박정원/이혁정ANN) (12:15-12:20, L) 20 최영준의 예류가요 1부	10	12
13	00 뉴스 (박홍식ANN) 05 최영준의 예류가요 2부		13
14	00 뉴스 (이명학ANN) 10 권즈 대장경 (정유탁, 정수연ANN) 50 고승열전(재) (구인 과)	05 우리가락의 향기(송혜진)	14
15	00 뉴스 (최은경ANN) 05 BBS생활상담실 (이혁정ANN/권순탄, 김홍탄, (L) 도영숙, 김동호, 선종태, 최광복성) 1분불교상식 (이승휴ANN)	05 김윤찬아시 (이명학ANN)	15
16	00 뉴스 (이명학ANN) 10 음악의마음 (박정원ANN) (L) 05		16
17	00 뉴스 (이승휴ANN) (L) 00 장명희시간 (이혁정ANN) 10 부밀을 밀리고 (이명학, 최은경ANN) BBS 캠페인 (박정원ANN)	20 법요초대석 (김혜경)	17
18	00 저녁예불 (송가대 스님) 15 정업수의 정보 가이드		18
19	00 BBS저녁종합뉴스(이명학/이선희ANN-보도팀) 25 부동산 정책 (이정대) 55 우리들의 찬불가 (정수연ANN/가무반가합창단)	10 뮤비니동산(자용스님)	19
20	00 교계뉴스 (이승휴ANN) 05 김법조의 다시하 고심은노래		20
21	00 뉴스 (이선희ANN) 10 선행365일(재) (김용원) 15 경전공부(재) (법초스님) 35 반야심경(한문) (정수스님) 40 교리강좌(재) (예정정사)		21
22	00 교계뉴스 (이선희ANN) 05 명화속안심 (박홍식ANN)		22
23	00 뉴스 (이선희ANN) 05 현대인을 위한 계달음의 강좌1부(법륜스님)	05 그리운등불하나1부(김정희)	23
24	00 현대인을 위한 계달음의 강좌2부(법륜스님)	00 그리운등불하나2부(김정희)	24
01	45 천수경 (송광사 스님) 00 한밤의 명상 (이선희ANN) 55 사홍서원 (합창단)		01

큰스님 수행한담

믿음 다지고 다지세요”



◇봉원사 극락전 단청을 완성하고 1956년 10월에 찍은 기념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만봉스님

“자나깨나 부처님 상호만 생각 線 하나하나 禪으로 여긴 붓질 金魚의 구도정신이자 법문”

를 선(禪)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붓질이 나에게는 선수행과 다를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화폭에 무엇을 그릴 것이란 계획 이외의 어떤 계산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화실에서 불화에 매달리다 보면 불자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드뭅니다. 법문같은 것도 따로 하지 않지요. 법문이야 잘하시는 법사스님들이 하셔야지요. 깨달음이니 화두니 하는 것보다는 그저 나한테 주어진 그림을 잘 그리려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더욱 신비하고 아름답고 자비롭게 보이도록 그려낼 것인가를 자나깨나 궁리하고 매진하는 것이 내 법문입니다. 불화를 조성하는 일은 백척간두에 선 수행자와 같은 구도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루종일 부처님 그려모시고 채색해야 하는데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구도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화에 첫 입문한 사람은 수행자의 초발심같은 끝없는 인내와 수행이 필요하지요.

불화나 단청을 하는 동안은 늘 부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화를 조성할 때면 잠을 잘 때도 꿈 속에서 극락세상에 있는 여러 부처님들을 친견하고, 지옥문 앞에서 지옥에 오는 중생들이 한사람도 없을 때까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실천하고 있는 지장보살을 만나고, 때론 지옥에서 자기 어머니를 구해낸 목련존자를 친견하기도 하지요. 자면서도 깨어서도 부처님 상호만을 생각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끝임없는 정진 끝에 불화라는 화두가 이제서야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가는 붓을 들어 부처님의 눈을 그려넣는 화룡점정의 순간, 한껏 위엄을 갖추었으면서도 자비로운 부처님이 환한 눈웃음을 지으며 화폭 위에 나투십니다. 그 다음은 나의 몫이 아니예요. 다음의 몫은 그 부처님을 향해 경배드리는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떠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린 불화들 중에 애착가는 작품이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부처님 마음을 따라 부처님 마음으로 조성해온 불화는 모두 한결같아 보입니다. 작품성이니 뭐니해서 따지는 것은 모든 사물에 시비와 우열을 가리려는 인간의 헛된 사량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 저 부처님 하면서 그 순위를 정할 수 없듯이 전국 사찰에 봉안한 수많은 불화가 제각각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분별심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현대적 불화라고 자기마음대로들 그리는데 절대로 안되는 일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하고 쓸데없는 짓이예요. 불화는 모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에 어찌 현대적이란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스승들이 해온 그대로 이어가며 장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지요. 또 그렇게 고이 물려줘야 하구요.

공부를 하려고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원만히 이뤄놓고 나가야 한다고 이르지요. 하지만 진득하니 공부하는 이들이 드물어요. 한참하다보면 내가 능히 할 것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 능력 발휘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 밑에서 2~3년 공부하다가 나가서는 죄다 제자랍시고 간판걸고 그림을 그리더라구요. 최소 10년은 공부해야 기본이 생기는 겁니다. 시방 초며 천왕초를 수천장씩 그리는 이유는 단순한 연습만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못참아 하더군요.

밑그림은 전대 스승들이 그려놓은 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근본원리로 밑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밑그림 중에는 1백년이 더 된 것들도 있습니다. 밑그림은 원래 전대 스승에게 물려받아 교재로 열심히 익히고 고이 간직하다가 제자에게 물려줄 때는 똑같게 넘겨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려받을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밑그림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대대로 물려야 하는 것들을 돈을 주고 파는 것인지 그냥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간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물려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물려받는다고 해서 굳은 심지를 가지고 지켜갈 이도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그렇지만 단청과 불화는 신심이 밀바탕이 된 정성이 제일입니다. 수십 수백년동안 사찰을 장엄하는 단청과 불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경배하는 성스러운 대상인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큰일이지요. 옛 불화나 단청을 보면 세월 때문에 빛은 바랬어도 며칠 전에 그린 듯 생생한 기(氣)가 살아있습니다. 그만큼 지극한 신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기교만 중시하고 있는 듯해요. 혼이 배이지 않으면 아무리 잘 그렸어도 죽은 그림일 뿐입니다. 불화를 그리기 전에는 목욕재계와 좌선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일심이 돼야 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봉원사의 단청 탱화는 모두 내손으로 그려 모셨습니다. 비구니사찰인 보문동 보문사도 20여년 걸려서 완성했지요. 조계사 단청, 표훈사, 유점사, 마곡사, 도선사, 봉은사, 백련사, 천축사 등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제 손이 닿은 사찰이 전국에 많지요. 제가 평생 그린 불화가 몇 점인지도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수만점은 될 겁니다. 절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경복궁 경회루, 남대문, 종로 보신각 등 고건축의 단청도 했지요.

불사를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금어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어로서 어떤 불사에 동참하여 맡은바 일을 하는 것도 공덕이고 그 작품을 누군가 보고 발심할 것이니 남의 환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도 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심입니다. 나같이 불화나 단청을 하는 사람과 미술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나보고 그냥 화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황송하게도 ‘금어’라 불러주고 ‘단청장’ ‘불화가’라 불러 주는데 그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미술가 화가와는 아주 다릅니다. 예술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지극한 신앙심을 발휘해 그 의미를 새겨넣고 보는 사람에게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금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이란 수행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불자는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수행이니까요. 곳곳에서 보여주는 불자들의 지극한 신심과 노력이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무슨 일이든 계산 앞세우면 헛일돼요
지극한 신심이 부처님 세상 만듭니다

나의 수행일기



박 희 진 〈시인〉

보살이란 무엇인가? 상구보리(上求菩堤)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념을 추구하는 구도자가 보살이다. 상구보리란 더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발적 수행으로 이것이 성취되면 봇물 터지듯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이 발동하게 마련이다. 중생제도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지와 대비, 깨달음과 실천, 자유와 사랑은 결국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삶은 석존과 같은 대근기(大根機)의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화한다고 할까 분수에 맞게 응용해야 될 줄 안다. 보살의 이념을 현대인에게 알기쉽게 말하자면 자리즉이타행(自利卽利他行)의 실천이 된다. 각자가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이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고, 대긍정과 찬미의 시를 쓸 수도 있게 된다.

나는 이제 내년이면 칠순이 되는 나이. 잘 해봐야 여생은 5년, 10년이다. 그런데 아직도 읽어야할 책, 써야할 시편, 가봐야할 곳들이 너무도 많이 산적해 있다. 한눈을 팔 겨를이 없다. 일체의 일간신문을 끊은 지도 십년이 넘었다. 현대인의 필수라는 차도 없거니와 컴퓨터도 없다. 작동법을 모른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동물이라는 사실이다. 움직여야 산다. 인간의 몸은 움직일 줄 모를 때 종말이 온다.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해서든지 심신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는 하루 오전이 제일 좋은 시간이다. 기상하는대로 30분쯤 도수체조를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간단한 아침식사를 끝내면 녹차를 준비한다. 오전중 독서 아니면 시작(詩作)에 골몰하면서 녹차를 조금씩 두 사발쯤 마신다. 더러 지치면 서창(西窓) 가득히 결쳐져 있는 북한산에 눈을 준다.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안나는 산! 아니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산은 나의 위대한 도반이자 수호신인 것이다. ‘北漢山은 한번도 大華嚴三昧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나의 일행시)

점심을 먹기 전 또한번 도수체조를 한다. 주로 목운동과 허리운동인 것이다.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북한산 숲속으로 산책을 나간다. 날씨가 상쾌하면 진달래능선 타고 대동문까지 가기도 하고 적당한 지점에서 고향산천쪽 계곡으로 빠진다. 숲속에서 정좌하여 명상에 잠기면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으레 〈반야심경〉이나 〈법성게〉를 외운다.

끝으로 ‘나의 근황’이라는 사행시 일수를 여기에 소개한다. ‘잠들 때엔 放下着 일어나선 初發心/ 오전엔 책 읽거나 時 한수 쓰고/ 오후엔 숲으로 산책 나가지요/ 이것이 나 好日堂主人의 근황입니다.

반야심경 외우며 ‘시보살’ 발원
잠들때엔 방하착 일어나선 초발심



직업이 되어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므로 자리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그것은 많은 이웃들을 이롭게 할 터이니 이타행인 것이다. 누구나 사심없이 정성을 다하여 직업에 종사하면 그것이 곧 어렵지않게 보살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이다. 요리인이 요리를 잘 하면 요리보살 되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잘 하면 운전보살 된다. 정치보살, 음악보살, 경제보살, 교수보살, 환경미화보살….

나는 시인이매 시의 보살 되기를 염원하는 사람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좋은 시를 많이 죽을 때까지 써야 되겠는데, 그것이 도무지 쉽지 않다. 무기력해지거나 정신이 흔어져서 산만해지면 시는 단 한 줄도 못쓰게 마련이다. 정신집중과 그 지속이 필수조건이다. 늘 뜻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마치 참선수도승이 언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추구하는 화두 하나 놓아서는 안되듯이. 결국 시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칫하면 갈라지고 때묻기 쉬운 자신의 나태와 취약을 경계해서 물샐 틈없는 정진이 필요하다. 늘 부단히 공부해야 한다. 하여 무아무위(無我無爲)의 명경지수 같은 마음을 지녀야만 한다.

수 맥 탐 사

건강하고 복을 받으려면 수맥을 피해 잠을 자십시오.

아래의 경우에는 수맥파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 증상입니다.

1. 장기간 수행으로 인하여 관절염, 근육통, 요통, 우울증, 탈진 상태로 심히 고생하시는 수행자.
2. 잠을 자고 나도 피로 회복이 안되고 몸이 무겁고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흉몽을 자주 꾼다.)
3. 우울증이 생기며 대인 공포증이 생길 때.
4. 질병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 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
5. 노력해도 수업능률이 오르지 않고 주위가 산만해지며 정신집중을 못하고 쉬 피로를 느끼며 신경질 적인 학생에게.
6. 오십견, 관절염, 신경통, 편두통, 요통등 증세가 생길 때.

수맥을 정확하게 탐사하여 수맥 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수맥을 진단하여 수맥 파 차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2. 수맥 파를 차단하고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드립니다.
3. 수맥 파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원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금 강 수 맥 원
송파구 거여1동 135-67(201호)
(02)400-6190
017)332-5019, 011)711-6190

서북 황토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황폐됨에서 10년이상 자란 무공해 오가피 ·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숲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고시준비생에게 탁월한 효과 보장.
※여성중앙 9월호 (P636) 다이어트 최고의 작품으로 소개. (경희대 육창수 박사)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 화 : 0333)682-503, 8588, 682-4965(농장)
FAX :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히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롱다웅 소리산 법왕정사 수행원
물빛고운 소금강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 · 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주문이 많으므로 단체주문은 사양합니다. (1가정 1부씩)

◀용린 佛字체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세 절의 수행향기 '무언의 설법'



◇현대불교 구산선문 참선기행단 불자들은 사불산 대승사에서 아침예불을 올리고 참선정진을 했다.





◇김용사 해운암 전경(사진위)과 비구니 선ㄷ량 윤필암.

9월 대승사 윤필암 김용사

구산선문 참선기행

김용사 성철·서옹·서암등 3종정 배출
대승사 선원 금동관음상 참배 '환희심'
윤필암 비구니 수행처…30여명 정진

9월 구산선문 참선기행단은 천년 선댁이 살아있는 희양산파의 종찰 봉암사기행을 포기해야 했다. 봉암사는 비공개 특별수행도량인데 공식 참구에 대한 인식차이로 예정대로 진행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승사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계곡물소리가 반갑게 맞이했다. 물소리는 어느덧 목탁소리로 바뀌고 새벽 3시 30분 법당에선 스님들이 새벽예불을 드리고 있다. 54명의 참선기행단은 부처님전에 삼배를 드리고 참선정진에 참가했다.

동이 터오자 산자락에 머물던 구름이 절밑의 숲림을 지나 대승사로 넘실넘실 올라온다.

587년 어느날 사불산(913m) 산마루에 사방을 비단으로 감싼 바위가 하나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괴처보니 사방에 여래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신라 진평왕이 현장을 살펴보고는 감탄한 나머지 대승사를 짓도록 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걸맞다.

대승사는 사불산 분지에 한폭의 그림같이 아늑하게 안겨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부처님을 떠받드는 연꽃을 땅에서 피게한 대승사에는 대웅전에 보물 제575호 목각탱이 있다. 이 목각탱은 원래 부석사 무량수전 후불탱으로 국내 현존 6개 목각탱중 하나다.

아침공양을 마친 불자들은 대웅전에서 주지 탄공스님에게 대승사의 창건유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개산조인 망명(亡名)스님은 늘 묘법연화경을 외우고 다녔는데 어느날 한밤중에 괴이한 빛이 넘치는 지라, 자세히 보니 망명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소문이 서라벌까지 번져 진평왕이 비구 망명에게 청하여 대승사 주지로 삼아 대승사의 발칩돌을 깨끗히 씻어 향불을 끊이지 않게 했다고 한다.

대웅전 옆에는 선원이 있는데 올해 하안거에 27명의 수행납자가 안거를 났다고 한다. 선원장스님의 특별배려로 참가자들은 선원에 들어가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 제991호)에 참배하였다. 이 기회에 대승사 신도들도 함께 참배했는데, 포항의 한 거사는 3년간 대승사를 다녔지만 선원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기뻐했다.

참가자들은 총무 현광스님으로부터 좌선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봉곡사 조실 월산스님이 기거했다는 선방에서 참선의 시간을 가졌다.

대승사에서 측면으로 500m 거리에 있는 윤필암은 비구니 선도량이다. 암자뒤 수려한 암봉들이 병풍을 치듯이 둘러져 있는 곳에 자리한 윤필암에는 30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다. 원폭으로난 돌층계를 밟고 올라가면 바위위에 법당인 사불전이 있는데 부처님은 모셔져 있지않고 저멀리 유리창너머로 산마루에 사면불이 한눈에 들어온다. 공덕산 사면불은 커다란 반석위에 바로선 높이 3.4m에 이르는 장방형 바위 동서남북 4면에 새겨져 있으며 동서면은 좌상이고 남북면은 입상이다. 사불전과 가불암은 절묘한 조화를 이뤄 신비감을 더해줬다.

대승사에서 남서쪽으로 운달산(1,099m) 남쪽기슭에 앉아있는 김용사(주지 자광)는 고색창연한 향내를 자아내고 있다. 원래 31본산의 하나였던 김용사는 한때 경북 북부지역의 46개 사찰을 관장했었다. 본지 사고에 안내를 맡기로한 주지 자광스님은 당초 김용사에 대한 안내였다. 봉암사 참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켜 스님께 죄송했다.

김용사 대웅전은 1649년에 설잠대사가 조성한 건물로 목조석가여래와 약사여래, 아미타여래 상존불을 모시고 있다. 내부의 단청이 대단히 화려한데 천정에는 온갖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상의 자태가 아름답다. 또 괘불은 10m로 대형인데 주존불이 중앙에 곽자도록 자리잡고 있으며 양옆으로 협시보살과 사천왕이 둘러싸고 있고 바깥쪽으로 10대제자, 인왕, 팔부중이 줄을 선듯한 모습으로 둘러서 있다. 근대에 들어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성철 서옹 서암 스님을 배출한 성지로도 이름높다.

김용사는 옛사격의 복원을 염원하며 60평이나 되는 국내최대 온돌방의 복구공사, 설선당, 해운암 등 3개의 당우를 건립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죄송합니다

희양산문 봉암사 '구산선문 참선기행' 진행이 공식참구에 대한 인식차이로 원만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3회 남은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더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도서를 구입하고 정리가 다 됐다면 도서실 문을 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차례다. 문을 열기에 앞서 한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고객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 재점검하는 일이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도서실을 개관했는데 이용이 원활치 않다면 허사로 돌아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신도 늘 찾게 평일 개방

운영방법

이용 쉽게 개가식 열람
주부불자 돌아가며 봉사

사찰도서실 도서 열람방법은 신도들이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가식이어야 한다. 특히 정기법회나 일요일에는 신도들이 도서실을 가장 많이 찾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평일에 신도들이 드물게 찾는다고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틈새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때 찾아오는 신도들의 경우 '알짜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작정 도서실을 찾는 경우보다 불교를 심층적으로 알기위해 찾아오는 신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도서실을 운영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자 문제다. 전문사서를 둘 경우 여러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대부분 사찰이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정기법회 날에는 한사람의 관리만으로는 힘에 벅차다. 종무원들이 돌아가며 도서의 대출과 반납업무를 보게 하는 것도 권장한다. 또 각 신행단체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주면 열린 도서관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의미있는 일거리를 못찾는 주부불자들에게 맡기는 것도 유익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 주지스님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찰의 모든 구성원들이 도서관 만들기 뿐만 아니라 운영에서도 주요한 협력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단순히 도서실을 개관했다는 것에서 만족해 운영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다면 그 도서실은 살아나기 어렵다.

도서대출은 가능하면 1인 1책으로 하고 기간은 1주일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책을 대출해주거나, 대출기간이 길면 도서관리에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빠른시간에 독서를 하고 도서실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보나 게시판을 활용한 도서실 이용 안내, 도서 전산화, 신간도서 소개, 다독자 및 우수도서실 이용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로, 늘 열려 있는 부처님 품처럼 도서실을 만드는 것도 운영의 묘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신도간 대화 활발… '공부하는 사찰'

모범 도서관 운영
칠곡 망월사

불서 4백권…신도들 책기증
오·비디오테이프 100종 '인기'



◇망월사 도서실을 찾은 신도들이 불서를 고르고 있는 모습.

경북 칠곡 망월사(주지 동진)는 사찰도서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찰중의 하나다.

망월사가 신도들을 위한 미니도서관을 개관한 것은 지난 98년 1월. 4백여 권의 불서와 100여종의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를 갖추고 대여를 시작했다. 음력 초하루 및 보름법회만으로는 신도교화가 어렵다고 판단, 신도들의 자질향상과 지적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을 개관하게 된 것. 기초교리, 역사, 고승전, 경전, 수필 등 다양한 분야의 책과 테이프들은 동진스님이 광소 법회준비를 위해 모아놓은 자료들이 토대가 됐다.

서적은 봄가을에 대출이 활발한 반면 테이프는 꾸준히 대여가 되고 있으며 신간도서 구입은 두달에 한 번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신도들이 혼자서만 보지않고 여럿이 둘러가며 본다고 책을 기증하는 사례도 늘고있다.

도서관장을 맡고있는 이혜원행보살(45)은 "책이 매개체가 되어 신도들간에 대화가 활발해지는 등 신행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기 있는 책만을 골라보는 태도는 고쳐 나가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망월사는 법회가 끝난 후 경내에서 다담(茶談)을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탑돌이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찰분위기를 쇄신할 계획으로 있다. 즉 법회만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집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고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신도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열람실을 마련하고 불교잡지나 신문 진열대도 갖춘다는 구상이다.

동진스님은 "공부하는 사찰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숙된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0545)972-2700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휀스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참배후 촛불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인과·업은 살아온 관습때문에 생겨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자기탓으로 돌려야
마음공부하면 팔자운명 붙을 자리 없어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립니다

문 '길을 묻는 이에게' 란 지면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39세된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세 이후부터 꿈속에서 가위에 자주 눌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자거나, 회사에서도 혼자 낮잠 잘 경우에 여지없이 가위에 눌립니다. 늦은 밤에도 쉬 잠이 들지 못해 술을 먹고 잠을 청하는 습관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가위'의 정체가 뭔지, 제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 그 누르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구니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몸 하나를 받아서 영혼과 인연의 줄을 다 끌고 지금 이 몸뚱이 속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인연들이 전부 내 배낭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 배낭 속에서 과거에 진 업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몸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애고로 반영되기도 하고 유전성도 되고, 영계성도 되고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이려면 모든 것이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해서 끌고 다닐 수 있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믿고 놓으세요.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죠.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게 녹아지고요. 즉 말하자면 인과나 업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모두 관습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업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살아온 관습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세포 하나하나에 중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이면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선이면 선으로 갚으려고 두서없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중생들의 의식이 좋고 나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려야 된단 얘기입니다. '모든 건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한다.' 이러면 까닭게 진 업을, 즉 말하자면 원수졌던 마음이 그냥 잊어버려지고 그냥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융합돼지고, 화목해지고 뭐 특별히 우뚝 솟는 거는 없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차차차차 나중에는 정말이지 밝은 세상을 사시게 됩니다.

주인공의 무엇을 믿어야 하나

문 주로 저를 고민케 하는 것들은 교리나 신행과 관련되는 것들이 아니라 살다보면 부딪치게 되는 생활상의 문제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놓아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주인공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주인공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주인공이 존재함을 믿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주인공의 나툼이니 결국 주인공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뜻인지요?

답 여러분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나가, 바로 공(空)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맡겨놓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공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공했으니 포함해서 공한 주인공에 의해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도 이루고 세상이 공한 줄 알았고 내가 공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체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을 몰록 다 들이고 내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길잡이가 될 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거는 나를 테스트 해보는구나 하고선 놓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놓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은사 아닌 은사, 참 은사를 만날 것입니다. 진짜 은사를!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부딪침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더더욱 잘 알게 됩니다.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걸 찾지 못해서 한데로 떨어지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일생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그런 일들이 한두 건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안 보이는 자기한테 다 맡기고 '너만이 길을 찾아가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지켜주고 너만이 애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간절한 한마음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지은 업은 피할 수 없나요

문 마음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변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도 싫어질 때가 있고… 마음의 상태가 항상 고요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도 결국은 마음이시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것이 자신이 지은 행위에 대한 과보라면 자신이 지은 업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참회로 인하여 자신의 업을 녹일 수는 있는 건가요.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때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과연 자기의 의지가 어느 정도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 우리는 한 지구를 집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웬만치 납득하고 이해하기 이전에 진짜로 내가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구나, 살리는구나, 그리고 형성시켰구나 하는 걸 아신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다 해도 그걸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벗어나려 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알고 믿고 당당하니까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걱정을 한다거나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잘되려고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 이 양갈래길을 다 자기 한 손에 쥐어야만이 그걸 부처님 공법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지만,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팔자 운명에 의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을 잘못 했다면 지금 그 잘못한 게 나한테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침착하게 한 생각해서 말을 잘 하고 잘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은 자신의 탓입니다. 팔자 운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 하나도 나무 한 포기도, 인생들이 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뭐가 팔자니 운명이니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눈뜨고 있지 않습니까, 귀 열고 있죠, 발움죽거리죠, 냄새 잘 맡죠, 다 이렇게 뚫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보고 스쳐가는 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죠. 그것이 그대로 연기법이며 그대로 공법이며 그대로 세상 법이에요.

우리는 살아오던 습이 있어서 그 살아오던 습을 놓질 못해요. 아주 그 습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오고 이랬으니까 못한다, 한다가 너무나 많고 또 알면서도 그대로 그냥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천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인생살이에 극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뭄으로써 한 지구라는 집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물에 죽고 불에 죽고 하면서 세계가 이렇게 극란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람들 마음에 의해서, 심성에 의해서 모든 게 전멸할 수도 있고 전부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반면에 세세생생을 얻게 돼서 불국토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각자 나를 믿는다면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배출해 나오기 때문에 육체의 나로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조금도 없어요. 나라의 걱정도,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도, 지구의 집이라는 막이 터져서, 즉 말하자면 오존층이 터져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 힘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아무 걱정이 없는 반면에 그것은 다 대치가 되죠. 그래서 업을 녹인다, 어떻게 녹인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과제는 내가 어느만큼 그 자리를 믿고 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한 곳에서 나고 든다는 것만 알면 업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걱정이나 생각들을 모두 나온 그 자리에 다시 놓고 관하다 보면 마음상태가 자연히 고요해지게 되죠. 그렇다고 마음상태가 고요해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귀에서 윙하는 쇳소리 들려요

문 항상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써 큰스님과 함께 하는 제가 글로써 인

☞ 1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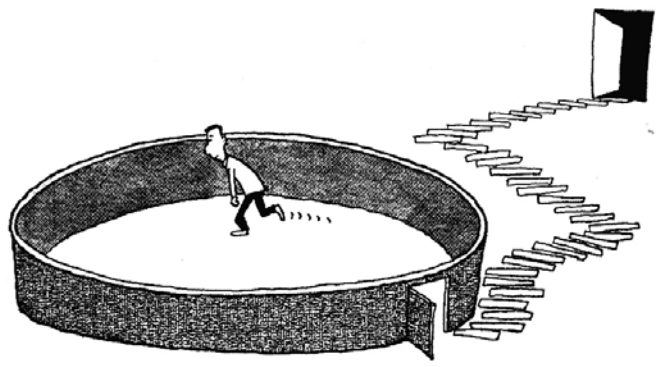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나를 형성시켰고 움죽거리게 하고 살리는 줄 안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600년전 붓다가 깨달은
무아 연기 중도 는 무엇인가?
완전한 깨달음
해공 지음 / 7,000원



동서양 종교, 철학을 넘나들며
수행인의 길을 걸어온 해공!
그가 만난 위대한 스승들
<마하리쉬> <마하라지>.

미얀마에서 붓다의 실질적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통해 개체적 에고를
초월한 절대적 무아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었던 생생한 체험

국민은행 270-01-0052-893 우체국 102723-0029385 예금주 : 도서출판 보리수
온라인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책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우송료는 본사 부담)

전국 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보리수 TEL (0342)701-0084

·죽·음·과·환·생·사·이·의·영·혼·을·제·도·하·는·밀·교·와·정·토·의·가·르·침·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 스님 엮음
신국판 / 232쪽 / 6,000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둘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웃었고,
내 둘레의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고
기뻐하였다. - 린포체-

● 죽음에 다다랐을 때 어떠한 현상이 보이며,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 죽음 뒤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그때 어떻게 해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해탈하기 위하여 살아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적고 있는 것으로 중국과 티벳의 불교책 가운데서 정토신앙의 왕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음신 해탈법을 정리한 것이다.
● 중국 정토종의 큰스승 열 분의 삶의 자취를 정리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우리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 안정되면 육신 자연히 편안해져

☞ 15면에서 계속

사드립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양식삼아 가고 있으나 일거수 일투족을 실천으로 행함에는 미치지 못하여 항상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2년 전부터 오른쪽 귀에서 윙하는 쇳소리가 들렸는데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주인공이 해결해!" 하고 관하다 보니 어떤 때는 크게 어떤 때는 작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경계도 제 자신이 만든 것이기에 해결도 제가 해야겠지요. 공부를 하다보면 가끔은 눈이 있으되 볼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느꼈을 경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답답한 것도 당신만이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밀어넣고 있습니다만 모자람이 많습니다. 큰 방망이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답 광상이나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괴로움 망상 때문에 나는 공부가 안돼.' 하지 말고, 답답한 것이 나온다 해도 그것에 끄달리지 마세요. 팥죽이 끓을 때에 한 솥에서 방울방울 지어서 나오듯이 모든 것이 한 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그렇지 어찌 그것이 망상이겠습니까? 수없는 중생들이 인연으로 만나서 자기를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움죽거려주는 마치 직원과 같은데, 어떻게 그런 직원들을 망상이라고 멀리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직원들에게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어떠한 답답함이 나오더라도 그건 자기가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중생들이 답답해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말리지 말고 속지 말고 그 자리에 맡겨 놓을 때에 그것은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찰나입니다. 입력을 다시 해보십시오. 전자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또 답답한 것 답답하지 않은 것 할 것 없이 몽땅 거기에 맡기고 지켜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업과 습 녹이는 방법은…

문 업과 습이 둘이 아니겠지만 수행하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업은 공한 것을 증득하면 해방되는데 습도 또한 그런지요. 과거 미생물이 되기 이전에서부터 현재에까지 수억겁을 지나오면서 생긴 습을 녹이기 위해 열심히 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답 과거 미생물에서부터 현재까지 길들여온 습이 녹으면 자연히 업이라는 자체가 소멸되는 거죠. 좋지 못한 습을 자꾸 쌓게 되면 업덩어리도 커져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관하다보면 모든 습이 녹아져서 업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생명의 근본과 주인공의 관계

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책에서 '나'라는 것은 몸과 업식이 담긴 혼백과 영원한 생명의 삼합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것은 몸과 의식 등 업식이 담긴 혼백이며 지금 나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전에 스님께서 속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이 몸과 혼백이 저지르는 것들이 진정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라는 욕심을 내고 원한을 품어 찰나찰나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고 과거에 나라고 생각하고 욕심내고 원한을 품은 결과에서 나오는 하나의 환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이 속지 말라고 하신 것도 이 환상에 속지 말고 자꾸 근본에 맡기면 그 환상이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만이 남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책에 써 있기를 생명의 근본을 주인공이라 한다는 것이 있고 다른 곳에는 몸과 업식과 생명의 근본이 합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것으로 봐야 될까요?

답 주인공은 움죽거림과 마음내는 거와 근본과 그렇게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가는 거를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죠.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시듯이 말입니다. 주인공은 시공을 초월해서, 안에도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거니와 밖으로도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 있고, 천차만별의 의식에다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그 개체 하나가 세계와 같다 이겁니다. 몸 속에도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 한 공장이 만약에 침체되고 부도가 났다 이런다면은 사람의 몸, 집 자체가 쓰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몸뚱이 자체가 나만이 사는 내 것인가. 더불어 같이 살죠. 그러고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억겁전부터 진화돼서 온 그 모습을 자기 육신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과로 인해서 바로 자기한테 인연이 돼서 자기 영혼 근본과 더불어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태어날 때 바로 같이 해야만이 한 개체의 덩어리가 되니깐요.

그리고 거기는 또 한 가지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작으냐 크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자기가 과거에 살아나온 그 차원에 따라서 이 몸 속에 인과성이 더 많으냐, 영계성이 더 많으냐, 유전성이 더 많으냐, 세균성이 더 많으냐, 업보성이 더 많으냐,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으니깐요. 알고 살고 모르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컴퓨터와 같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입력된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팔자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팔자운명이 없어요.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 입력을 하니까 앞서에 입력된 것이 없어지니까 팔자운명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이런 공부하는 인연을 한 번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몸에 탐착말아야 하는 이유

문 큰스님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몸이 냄새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음을 생각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몸도 탐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왜 그러하며 탐착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알려주세요.

답 대다수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조금만 아프거나 그러면 금방 병원에 간다 어디 간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면 몰라서도 그렇지만 안다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나중에는 대처를 못하고 우왕좌왕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동물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면 좀더 마음을 계발하고 정신적으로 한 차원 올라서는 작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온통 야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자연히 편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가꾸고 건강한 듯 해도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면 몸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탐착하지 말아야 하거늘 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생 사는 동안 잠시 빌려쓰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탐착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이 끄달리지 마시고 좀 더 자유스럽게 살기 바래요.

가진 게 없는데 베풀라는 뜻

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길이 갈래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님과의 대화를 통해 결국은 회사를 만들어 고용을 통한 베품을 업으로 여기고 종놈이라 생각하고 일에 매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스님의 설법집 몇권으로 어찌 스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흘러나오는 스님의 자애로운 음성에서 저는 님의 뜻을 전하시는 큰스님을, 아니 지극히 작고 낮은 스님을 뵙습니다. 한량없이 흘러 들어오는 물을 담는 바다를 봅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하시던 님은 님이 아니라 바로 저 본인이었습니까? 불과 일년 전에 IMF태풍에 사업 망하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나누고 베풀라하시던 님이 저의 자성이고 주인공이었나요? 스님, 이젠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찾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스님, 가는 길은 다를지라도 그곳은 한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저는 기업이란 땅을 일구는 소입니다. 사람을 먹여 살리는 소의 운명인가 봅니다. 두서없는 말에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 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한 생각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고 반면 공부의 재료로 삼아서 더 간절히 관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편안함을 알았으면 사량으로 끄달리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세요.

주인공 공부와 좌선의 차이

문 ② 주인공을 깊게 믿는 상태에서도 구슬이 단단해지고 좌선을 하는 상태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아 두 가지 수행법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구멍으로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그만큼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답 저도 다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주인공에 맡기고 또 관하는 공부는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때고 어디서고 할 수 있지만, 좌선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고 또 일어났다 앉았다 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진정한 좌선은 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좌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앉아서 많은 시간을 좌선했다 해도 앉아 있는 동안에 온갖 망상을 일으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앉았거나 일어섰거나 일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매순간 끊어짐이 없이 마음으로 좌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언제나 좌선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밉고 결혼 후회돼요

문 저는 불교신자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일상에 매여 제대로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늘 마음만 앞서고 있습니다. 산란한 제 마음을 다스려보고자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한지 삼년 되었는데 남편과 떨어져서 주말부부로 1주일에 한번씩 만납니다. 제 남편은 외아들이고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많으신 분입니다. 시누이는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고 시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밉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결혼이 후회가 되구요. 뭐 이렇다할 이유는 없지만 자상하지도 않은 남편에 시댁문제는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정말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시댁에 맡기고 있는데 데려오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안됩니다. 모든 것이 남편탓으로만 돌려지고 그냥 억울하기만 합니다. 어리석은 줄 알지만 제 마음을 정말 다스리기 힘듭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은 점점 없어져가고 힘이 듭니다.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답 우리가 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그냥 상을 찌푸리고 그런다면은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갈 뿐만 아니라 해결이 나질 않아요. 화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나중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보기 싫어지니깐. 왜 그렇게 되느냐, 남편이라는 거,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게 전기로 치면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주처의 주인공을 왜 주인공이라고 그러느냐 자부처라고 그러지,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자기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항상 마음과 육체가 더불어 같이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이라고 할 수밖에요. 자기 육신과 마음이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그럼 가족들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문제들이 많죠? 윗사람 챙기고 아랫사람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서 애쓰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시대에는 아마 더할 거예요. 그런 데도 쓰이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거수 일투족 다 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좀 발전을 해라, 실천을 해봐라, 체험을 해봐라 이러는 겁니다.그래서 주인공에다 스위치를 누르면은, 즉 입력을 한다면은 자식의 마음에까지도 불이 들어오고 남편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설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 마음에서 고장난 것을 껍데기인 육체가 그냥 허수아비마냥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깡패가 생겼다고 야단법석들이 났고, 뭐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야단들을 하고 학교 못 보내겠다고 야단들을 하는데, 관하는 것만 가르쳐 줬더라면 모든 거를 대처하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나라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살이가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형국인데 모든 거를 거기다가 입력하듯이 맡겨 놓는다면 마음도 편안할 것을 속에서 부아가 일어난다고 내던지고 악을 쓰고 부아를 자기가 돋구니까 살얼음판에서 모닥불을 피워놓는 셈이거든요, 빨리 빠지게. 그러고 또 부아가 나서 막 팽개치고 이럴 때, 그냥 한대 쥐어박고 싶고 그냥 죽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살얼음이 그냥 깨져버려요. 그냥. 깨져서 물에 풍덩 빠지게 되죠. 그러면 허덕이면서 날 살리라고 어떻게 빌고라도 나오게 되면 한번 빠졌던 문제들이 얼마나 진퇴양난인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은 병들죠, 재산 없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렇답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신은 배로 비유를 했고, 여러 사람들도 다 육신은 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가는 중생들로, 그리고 주처의 중심 즉 주인공은 선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냐하면 중생들이 만약에 부처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면 그 배는 뒤집히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선장한테 모든 거를 맡기고 가만히 앉았으면은 가는 데까지 가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로 방편을 쓰고 저걸로 방편을 쓰고 해서 많은 설법을 해주셨고, 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해 놓으신 용어를 현재의 용어로써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입으로만 말을 한다면, 이론으로만 말한다면 그건 말이 그냥 한데 떨어지고 맙니다. 어떠한 인연이든지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딪쳐서 녹이려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든다해도 그 속에서 본인이 변하면 상대방도 달라질 겁니다. 좀 더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도록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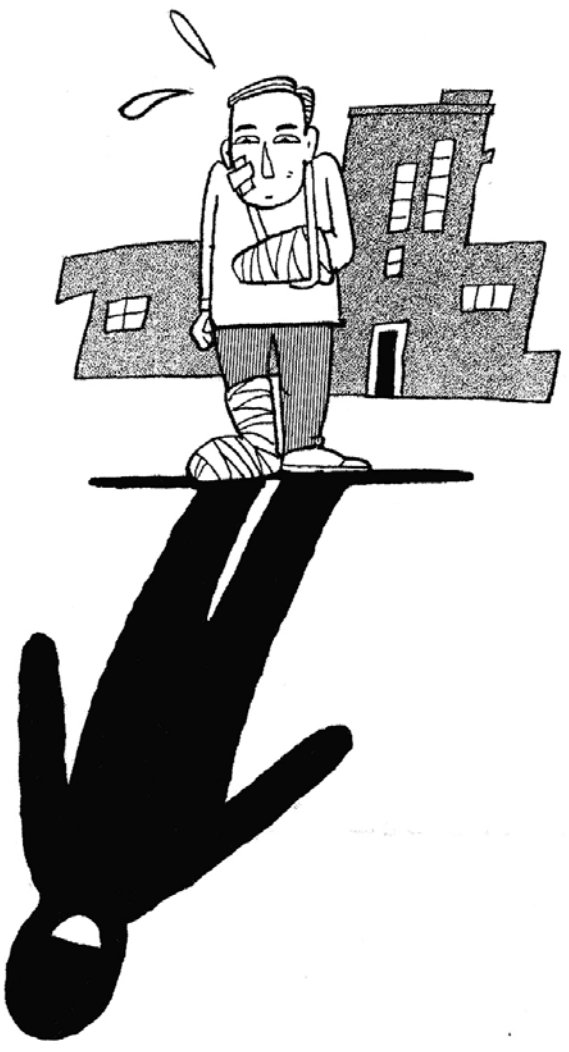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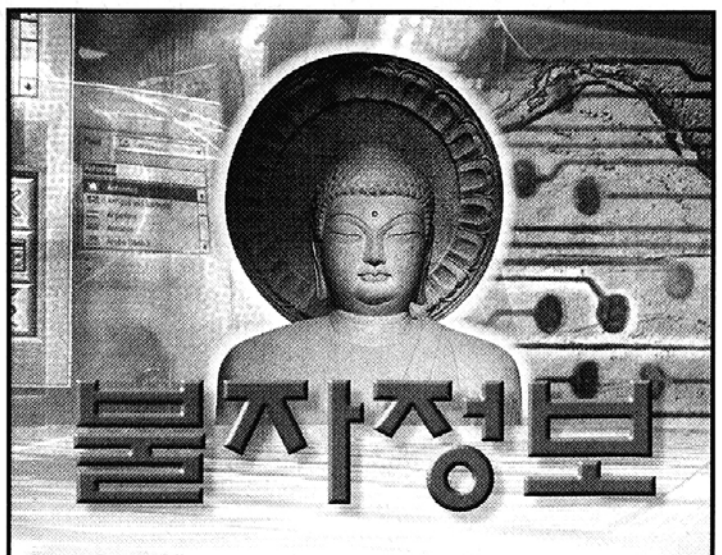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잠시 빌려쓰는 몸에 탐착할 필요 있나요
빗물 구정물 다 받아들이는 바다 닮도록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대흥도원
기공 선도법 수련
(진중공, 단전호흡, 활도술)
수양, 수도 및 수련자
※ 숙식가 ※
0446)877-9051
경기 이천 충북 감곡
장 호 원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갑상선 · 간질
당뇨완치
한국불교태고종 **세운정사**
주지 한진성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전화 0667)761-5799
H.P 011)696-4848
팩스 0671)626-4980

귀 비법을 전수해 귀 드립니다
좌골 신경통
오십견(팔에 모든질병)
관절엽 / 허리디스크
주름살제거 (살빼는 법)
※또는 똥증을 제거하는 법
0342)752-3035 (출가상담)
016)288-3035
향 천 사

강좌

남녀 철학원생 모집
◆인생의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귀달마포교원
02)999-4804/02)999-5551 **달마**
02)921-4804/02)928-5551 **스님**
051)418-4804

과학기술을 이용한 견성공부
수련테프 판매!!
①, 화습 집중력기인 릴렉스이즈를 이용하여 관법으로 쉽게 견성할 수 있음
②, 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성품이 볼래야 볼 수 없는 성품을 보고 그것이 나임을 깨닫는다.
③, 八苦해탈/습관/세균/감정/잡념/불안/만성난치로부터 자유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풍수지리 특강안내
⊙음택, 양택 생활풍수 강의
⊙매주: 화요일 10:30부터 시작
⊙매월 : 1회 현장답사 실습
■강사약력
⊙한국일보 문화센타 풍수지리 강사
⊙한국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 ⊙남경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 ⊙『명당과 생활풍수』 지음
■남경풍수지리 연구회
서울 종로구숭인동 76-15(2층)
남경 성필국 선생 직접 강의 (02)763-6949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 · 중급반 · 통신반 ◆
◆ 지방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1(봉은사옆)
☎ 02)511-0108

구인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523)
382-7083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40~50세 정도
0582)541-
8420

부전스님 모십니다.(비구니)
02)351-3004

노스님 시봉하며 공부하고 싶습니다.
011)
414-6050
비구승

구 직
사찰에서 일하며
살곳을 찾습니다.
(1종 대형면허소지)
0351)
826-1152
주간 부재시
야간 전화요

젊은 인재에게 투자하실 분을 찾습니다.
◆절에서 일하면서 신도님들께 인생 및 역학을 상담해 주시길 원하시는 「사찰」이나, 「철학관 사무실」을 제공하실 분
02)3432-9556 **법사**
016)266-1130 **현도**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새천년 불교문화의 새장
개장 견지불교사
불교용품 전문백화점(차, 다기, 도자기)
상운중심 1층에 OPEN
●언제 : 9월 10일 (금) 음 8.1 오후 3시
●위치 : 상운중심(조계사 입구)
※OPEN 기념품 및 10만원이상 구매고객 사은품, 이벤트 행사
견지불교사 · 상운중심점 - 불교용품의 모든 것
TEL 02)739-3032/739-3035 FAX 02)733-5755

기타

건강에의 신비! 춘천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철학관 수강생 모집
02)
962-9871
자비원

간 병 인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
불심깊은 돌봐간병인 TEL:02)363-7884
FAX: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전통범패 불교의식 모집
(기초반 · 중급반)
■강의내용:
예불, 아침쇳송, 저녁쇳송
상단축원, 중단작법태공,
도량석, 도량게, 복청게,
천수바라 태징 찍는 법,
북치는 법, 관음의식, 현자계
※개인지도 가능
0351)865-4893

정/성/활/인/방
손끝의 활·인·술
· 십분할인 · 신체의 쌕은 탁기를 없애 고밝은 정기를 들여보내는 천연 할인법
정성활인술을 받으시면…
▶몸이 시원하고 가벼워진다
▶얼굴색이 달라진다
▶입맛이 바뀌어진다
▶눈의 생기가 돋는다.
02)518-2453

탈종공고

탈종공고.
한국불교태고종 귀중
◇사찰명 : **대원사**
◇주 지 : 혜련스님
◇소재지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산 31-1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9.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대지 약 740평, 임야 250평)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미륵불, 해수관음상, 주차장
◆위치 : **가평시내에서 5분거리**
◆부지 : 1000평 (무상임대) - 체전받포함
◆법당 : 20평(목조단청등기필)/요사35평(기와등기필)
◆가액 : 8500만원
◆특징 : 수목이 우거진 산중고찰로 도로에서 5분 걸어올라 감
해동불사 이처사 합장
02)389-7880/ 019)390-6110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대지 : 80평 외 추가사용 30평
◆건물 : 요사 : 35평 /법당(단청) 30평
◆가액 : 3억 3천만원
◆특징 : 서울 도심에 위치한 포교도량으로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 연락 바랍니다.
미륵불, 석탑, 산신각구비
多寶佛事 02)3545-056 019)234-5506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도
◇법당 : 10평
◇요사 : 30평
◇부지 : 1,000평
◇가액 : 3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임도 · 운영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포교원 안내
◆위 치 : 인천
◇부 지 : 180평
◇임법당 : 30평
◇가 액 : 1억 5천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 안내
◆위치 : 천안시내 10분거리
◆법당 : 20평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가능
◆시설비 없음.
◆건평 : 100평
◆가격 : 전세 1,500만원
011)819-4113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
321-47(89번 버스 종점옆)
◆평수 :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신중단,
방3, 세면장, 주방
◆가액 : 보증금 1,500 월7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2)521-7512/018)385-1234

사찰 안내
◆위치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093-1, 1093-2
(원주중앙시장에서 차로 10분거리)
◆건물 : 법당 20평(신축건물)
요사채 55평(슬라브건물)
◆대지 400평(약수터 있음)
◆가격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371)743-6579
011)373-5757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내 인가에서
100m산중, 바다가 한눈에 보임
◆부지 : 399평, 현 임법당
◆가격 : 2억 5천
051)248-9390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 중구 선화동
삼성생명빌딩(도청옆) 대림관광호텔 옆
◆대지 : 50평 3층 법당
◆시설 : 최고시설 완비
◆가격 : 시설비 2천만원
전세 6천만원
042)256-1016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청양
◆대지 : 총 735평
◆법당 : 20평, 요사2동(30평,10평)
◆양어장 10평, 유실수 약 100주
◆가격 : 1억 5천만원
019)408-5264

포교원 안내
◆3층 건물 내 건평 30평
◆권리금 상담후 결정
◆방 1개, 기름보일러
◆주방, 화장실 有
◆가격 : 보증금 50만원(월 60만)
0346)577-2485

사찰 안내
◆위치: **장호원** 경기 이천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만원(스님양수시 대폭 절충가)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

사찰 안내
◆서울 경기지역 사찰 암자터
◆매입 운영하실분이나 양도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찰 토목공사 불사상담
◆성실책임 비밀보장합니다.
011) 8901-5779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금산읍
◆대지 75평, 법당 10평,
요사채17평, 욕실, 화장실
◆가격: 1억(가격 절충)
◆특징: 천연암반수, 산세수려
0412)751-0771

사찰(급) 안내
◆위치 : 천안시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용궁,
칠성각(각각 반목조 단청)
◆요사채 : 2동(석재 미륵입상,
탑, 대종, 명부시왕 10분 등
◆부지 : 1천 3백평(1년 쌀 한가마 도지)
◆건물 : 사찰등록, 개인소유 등기필
◆가액 : 1억
※ 아늑하며 식수 최고의 맛 ※
0417)566-5892/02)838-2929

사찰 안내
◆위치 : 울산시내
대단위 아파트 앞(2,500세대)
◆평수 : 30평
◆가액 : 전세 2천 5백만원
(월세 가능)
◆시설완비(즉시 법회가능)
011)563-4454

포교원 안내
◆위치 : 미아삼거리
(길음전철역에서 3분거리)
◆평수 : 50평
◆가격 : 전세 7천만원
※ 시설비 무료 (A급시설 완비)
탱화, 부처님 등 일체 조성 완비
0366)432-4347
02)941-3195

사찰 안내
◆위치 : 사천시 사남면
◆대지 : 300평
◆법당 : 30평, 요사 20평,
◆절까지 차도 포장 완비
0593)854-0869
0591)742-2714
017)583-489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 시설 완벽
◆ 가격 : 보증금 5백만, 월60만
(시설비 1천 3백만원)
053)942-0700
(비구니스님 환영)

포교원 안내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서리 주공 3차
아파트 앞 3층건물
◆법당 : 30평, 방1, 보일러시설,
주방1, 화장실1
◆가격 : 보증금 5백만, 월60만
(권리금 500만원)
0346)577-2485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총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 011)885-2876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대지 400평
◆법당 20평, 요사 25평
◆산세좋음
◆가액: 7천 5백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20분거리
광릉 수목원 근접
◆ 부지 580평, 임법당, 요사채,
방6개, 건평63평
◆특징 : 소나무로 둘러친 산 중턱 소쩍새와 온갖 새가 지저귀며 작은 계곡 물이 흘러 내리는 서울 근교의 명당터 풍부한 식수와 산 정상까지 살림목과 약수가 있으며 주차장 언못, 조경완비
◆ 가액: 답사후 결정
한국불사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근교(강남서 40분)
◆대지 500평(임대)
◆법당 18평, 요사 30평
◆산세좋음
◆가액: 답사후 절충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
◆부지 : 2113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2동)
◆매매회망기간 : 백중전후
◆가액 : 1억 8천만원
※집은 소박한 한옥이나 산세가 편안하며, 넓고 조용한 수양도량으로 식수가 아주 좋음. 도량까지 차량진입가, 주차장 있음.
053)651-9363/0596)973-0305

토굴 안내
◆위치 : 함양군 덕유산
◆규모 : 대지 25평, 황토집,
5~6평 1채
임법당 및 요사채 30평
◆경관수려, 식수가 좋으며
종교부지 허가 받음.
◆가격 : 5천만원
0597)962-3528/011)842-3525
※현재 스님 거주중

사찰 운영하실 분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대 지 : 85평
◆ 건 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 가 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 특 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아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융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스님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전통도자기 싸게 사세요

(생활) 경기 이천 설봉산호수공원 일대에서 19일까지 계속되는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에서는 실용성높은 분청 자기류를 대폭 할인 판매한다. 100여개 소규모 도예업체들의 제품을 한데 모아 놓은 이천민속도자기조합(0336-633-6381)과 고산요(0336-637-8218) 광주요(0336-632-7007) 심천요(0336-632-7086) 등의 업체가 참여.

민영주차장 요금 자율화

(생활) 서울시는 이달말부터 서울시내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을 위한 시간단위와 주차요금을 자율화해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되고 대신 주차장 관리자 주차요금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3번 면허취소

(교통)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단속되면 혈중알콜농도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신규 면허취득도 금지된다. 규제개혁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 규제정비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음주운전과 관련 뺑소니는 면허취소 및 5년간 면허취득금지 등의 기존 제재는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지하철역서 항공권 판매

(항공)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10일부터 지하철역 10곳에서 국내선 항공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항공권판매역은 △5호선 광화문·여의도·여의나루·공덕·종로3가·왕십리·군자·천호 △7호선 상봉 △8호선 잠실 역이다.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면제

(통신) 내년부터는 휴대전화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동전화(휴대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와 주파수할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그동안 연 1만2천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왔다.

술 마시면 진짜 배 나온다

(건강) '술을 마시면 배가 나온다'는 통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연세대 의대 허갑범 교수팀은 술을 마시는 남성은 나이와 체중, 흡연량이 같더라도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복부비만이 훨씬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30~60대 남성 152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25g이상 음주자는 고중성지방혈증 241mg/dl(데시리터)로 술을 마시지 않는 남성의 121mg/dl보다 두 배나 높았다.

피우면 '수명단축' 끊으면 '장수'

국내 첫 폐암환자 담배피해 소송

한국 성인남성 흡연율 65% '골초왕국'
담배 때문에 매년 3만5천여명 사망

끊으면 천수(天壽), 피우면 1개비에 5분씩 수명단축. '죽음의 연기'를 내뿜는 담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태우는 사람이 늘어만 간다. '골초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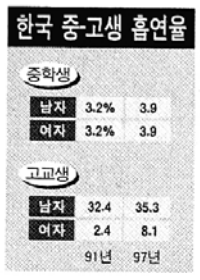
36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50대 남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흡연율에 대한 각종 지표가 잇따라 공개돼 관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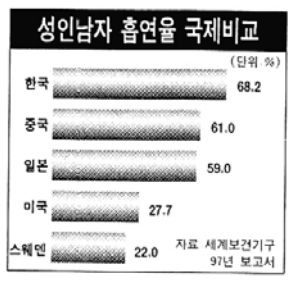
소송을 낸 김모씨(56)는 소장에서 "국가는 재정수입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해악을 끼치는 담배판매를 장려·촉진하는 정책만을 수립했을 뿐,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위한 흡연의 규제·예방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씨측은 담배인삼공사가 76년 담배에 경고문을 부착하기는 했지만 이는 '면피용'에 불과했을뿐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현재의 경고문은 89년에야 부착해 소비자에 대한 위험성 고지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정부는 흡연이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규정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담배 피해 소송은 53년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유럽과 일본에서도 담배회사들과 피해자간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향후 20여년간 2천60억달러(한화 250조원 상당)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피해자 승소율이 높은 편이며, 일본은 세 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사례가 있다. 또 프랑스와 대만 등은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중에 있다.

김씨의 이번 소송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담배생산 및 판매를 장려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65%를 넘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책임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종 보고된 한국 흡연실태를 보면 성인 남성과 고3 남학생 흡연율은 단연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68.2%)은 일본(59%) 미국(27.7%) 영국(28%)보다 훨씬 높고, 남고생의 흡연율(35.3%) 역시 일본(22%) 미국(18%)보다 1.5~2배 가량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골초국가인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3만5천명(폐암 사망자 9천5백명 포함)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올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여성 흡연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흡연실태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같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소송을 놓고 '흡연자 책임론'과 '제조사 책임론'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음식이든 기호품이든 건강에 조심할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와 규제를 가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복지국가 개념의 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고를 게을리한 정도가 아니라 지방재정 수입 일부를 담배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법제화해 실질적으로는 흡연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의 최우선이다. 이번 소송의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최소한 국민건강을 모른 체 하면서 세수증대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부부위기' …중년이혼 늘고 있다

긍정적 대화로 관계개선 공동행복 추구

'3쌍이 결혼하고 1쌍이 이혼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8년 인구동태'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남자 40대 초반, 여자 30대 후반의 이혼율이 각각 전체의 13%, 1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부부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견고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이 시기에 이 부부들을 이혼법정에 세우는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주된 이혼사유로는 주벽, 불성실, 무책임, 의처·의부증, 성적갈등 등의 부부간 불화가 6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경제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사무국장은 부부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양쪽이 모두 이기는 동시에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윈·윈(win·win)전략을 권유한다. 윈윈전략 부부대화법은 다음과 같다.

▲한사람만의 고민도 공동의 문제다=한쪽이 고민을 토로할 경우 공동의 문제로 보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현안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과거의 불만까지 끄집어내면 대화는 언제나 원점에 있다. 구체적 현안에 국한해 원인을 찾아본다. 대화가 성공적이면 점점 크고 포괄적인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들어준다=생각이 다르다고 반박하기에 앞서 끝까지 상대의 생각을 들어주는 것은 대화의 필수조건이다. ▲희망을 갖는다=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들어주는 힘도 커지고, 감정에 치닫는 대신 문제를 객관화해 돌아보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02-752-4227'로 영안실횡포 고발

주부클럽연, 상담창구 개설

'잘못된 장묘문화 고발하세요'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최근 서울 본부에 개설한 종합장례정보상담창구를 통해 상담전화(02-752-4227)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 9개 지부에서도 건전 장묘문화지침 보급 및 불건전 장묘문화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서울·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광주·강릉·파주·제천 등 전국 10개 지부를 중심으로 장례절차 및 화장 납골묘 납골당문의, 장의용품 가격, 병원영안실 횡포, 호화분묘 고발 등 상담을 받고 있다.

시론

주부도박과 육바라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여도 고스톱을 친다는 말이 있다. 남자들 모임에서는 으레 포커가 등장하고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지 않으면 노인들이 심심해 한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주부 도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그냥 재미로 하는 놀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박을 위해 도박판에서 도박에 몰두하고 있는 도박꾼들중에 다름 아닌 우리 나라 상류 사회의 주부들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

하지만 이미 주부 도박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물론 주부 도박단은 우리 나라 주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부도박 문제를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주부는 가장 도덕적인 계층이다. 주부라는 이름은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있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키우고 있으며 남편을 내조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현모양처의 상징이다. 주부는 아내요 어머니 라는 숭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자의 개념과는 다른 가치가 있다.



방귀희
〈숫대문학 발행인〉

"주부가 흔들리면 사회가 무너진다 악의 유혹 뿌리쳐라"

그런데 그런 주부들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단계를 넘어서 법률적으로 제재를 당할 지경까지 되고야 말았다. 언론에서 주부 도박단을 붙잡아 구속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아찔했다. 아무리 사회가 부패된다해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고결함을 지킬 사람 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주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주부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주부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주부들을 전업 주부라고 했다. 하지만 왠지 전업 주부 라고 하면 무능한 사람 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전업 주부들은 본의 아니게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전업 주부들은 할 일을 찾고 싶어 했는데 주부들의 그런 허점을 노리고 도박꾼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가장 깨끗한 물이 가장 쉽게 오염되는 법 이기에 주부들은 무방비한 상태로 빠져 들어갔다. 어찌 보면 주부 도박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낳은 또다른 병폐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내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야 할 주부들이기 때문에 빨리 수습을 하고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우리 사회가 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부들이 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란 확신이 든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박판에 끼어들고있고 보면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것 이다. 보시(布施)를 하다 보면 도박을 하는데 돈을 쓴다는 것이 부끄러워진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면 지계(持戒)가 되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참는 일은 인욕(忍辱)이며, 나쁜 일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정진(精進)이다. 그리고 마음의 동요를 가라 앉히고 진실을 찾게 되면 선정(禪定)에 든다. 이렇듯 육바라밀만 잘 실천하면 우리사회에서 주부 도박단 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문제만 부각시키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지나친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문제 투성이가 되었다.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항상 부처님 손에 달려있고 보면 우리 불자들이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긴다. 이 땅의 주부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육바라밀 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지금부터 해야할 업이다.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르름(韋綠)을 지탱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종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증합영양강정(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증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휴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솔효소정액
원액 2,800㎖
(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군인가족 주부불자 군포교 '도우미' 나섰다

법회·행사 후원…어린이 지도교사 맡아

전방지역 군인가족 주부불자들이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자원봉사, 법회 후원을 하는 등 군인불자 포교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군법당 내에 새로운 포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주체는 군인가족 주부불자들로 구성된 관음회.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강원지역 오지의 군법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역불심 증장에도 한몫을 한다. 백두산 부대 도솔사(주지법사 정연태), 을지부대 을지사(주지법사 이상무) 등의 군법당을 중심으로 한 주부불자들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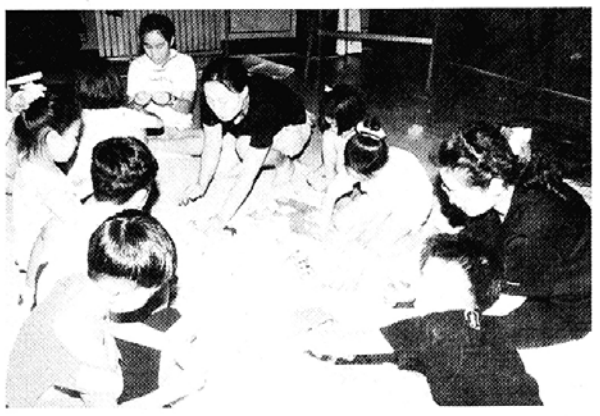
백두산 부대 도솔사 군인가족 주부불자들은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창립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 자청한 것. 군인가족 주부불자들은 지혜·문수·연꽃반의 지도교사를 도맡고 있는 것은 물론 각자의 특성을 살려 찬불 및 민요지도, 사물놀이 등의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이같은 군인가족 주부불자들의 지도로 인해 어린이 불자들또한 매주 일요일이면 군법당을 찾아 모여든다. 군법당들은 도심의 포교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조건이지만, 올 여름에는 어린이를 위한 수련회도 열고, 어린이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미술작품 발표회까지 개최하는 등 다양한 법회및 부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연태 주지법사는 "전방지역의 경우 대부분 타종교에 비해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찰은 전무한 실정이다"며 "불교적 소양뿐 아니라 어린이를 직접 키워온 지혜와 지식을 갖춘 주부불자들이 어린이 법회에서 활동하다보니 지도교사 부재, 화합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을지부대 을지사 군인가족 주부불자들은 각종 법회와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일요법회에 참석하는 200여명의 사병불자들을 위해 3년 전부터 국수공양을 하고 있다. 또 신병교육대 수계식과 예하부대 법회 때에도 떡과 과일 공양은 물론 힘든 군대생활로 지친 사병불자들을 따뜻하게 다독거려주는 어머니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밖에도 철원 청원사, 속초 한성사, 화천 운학사 등의 군인가족 주부불자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회와 행사를 지원하며 '군법당 포교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다져나가고 있다. 군인가족 주부불자들의 이같은 자비행은 재정·인력·환경 등이 열악한 군법당의 현실속에서 파생하는 각종 포교부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 백두산부대 도솔사에서 개최된 '1일 수련회'에 군인가족 불자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부처님을 그리고 탑을 만들며 즐거워 하고 있다.

불상·석탑에 색을 칠한 까닭

KBS-1TV 역사스페셜 10월16일 방영 첨단장비 동원 서산마애불등 조명

언제부터 불상과 석탑에 고운 색깔을 입혔을까.

이런 화두를 안고 고구려 초기 불상과 석탑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석탑과 불상에 나타나 있는 채색의 흔적을 찾아 KBS-1TV 역사 스페셜팀이 팔을 걷어 부쳤다.

10월16일 저녁8시부터 1시간동안 KBS-1TV를 통해 방송될 채색 불상의 기원과 단절 시기 등을 조명한 역사 다큐멘터리 '불상과 석탑의 채색에 대해서(가제)'가 바로 그것.

특히 시대별로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전문가의 검증과 첨단 장비로 채색의 흔적을 세밀히 밝혀내고 있어 '채색 불상'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학계에 신선한 화제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제작진은 경북 군위 제2석굴암 마애불에서 지난 5월 푸른색과 붉은색의 물감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채색 불상'의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시한 채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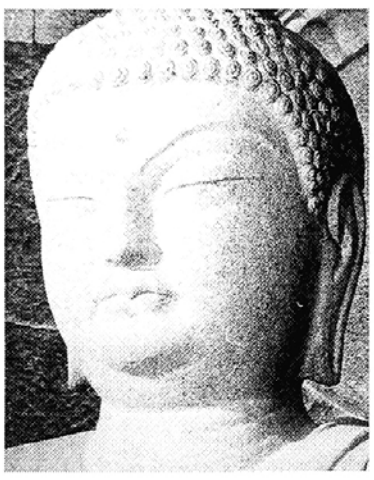
이번에 발견된 군위 마애불의 채색 흔적은 계명대 박물관팀이 탁본을 뜨기 위해 먼지와 이끼를 제거하자 왼쪽 어깨 부분에서 희미하게 색칠한 부분이 드러난 것.

군위 마애불 외에도 이 프로에서는 채색 불상의 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우선 붉은색과 회칠을 한 '서산 마애 삼존불'을 비롯 등뒤쪽과 겨드랑이 부분에 붉은색이 나타난 경주 배리 석불 입상과 회칠과 함께 광배부분의 채색 흔적이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한 괴산 각현사 석불 등의 채색 부분을 화면에 소개한다. 또 세계 문화 유산중의 하나인 경주 석굴암 본존불의 입술 부분과 12지 신상, 사천왕상 발밑 부분 등에 나타난 안료의 흔적도 황수영박사(前 동국대 총장)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방송한다.

이 프로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삼국과 통일신라, 고려시대의 불상과 석탑에는 채색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조선시대의 것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수성PD는 "중국과 인도의 불상은 채색 불상이 많다"며 "이러한 사실은 중국 등지에서 삼국시대의 불교 전래와 함께 채색 불상도 같이 들어왔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고 말했다. 또 오PD는 "사원재정이 풍족했던 삼국시대에서 고려까지는 값비싼 중국의 천연 안료를 사용해 채색 불상이 성행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숭유억불이 국가 시책이였던 조선시대에는 사원경제의 궁핍과 함께 안료 구입이 어려워 채색 불상이 소멸된 것 같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사실 검증을 위해 O.V.M비디오 현미경까지 동원해 1천배율 확대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채색 불상을 재현할 이 프로는 불상의 원래 모습을 찾아 준다는 의미에서 한국 불교 미술사 정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주일 기자



◇입술이 채색된 석굴암 본존불.



◇청교련 인천지부 청소년유해환경 근절 및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위한 캠페인. 부평여고등 관내 18개 중고등학교 4백여명이 동참했다.

"건전한 청소년 유흥업소 안가요"

인천 청교련 캠페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는 4일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청소년유해환경근절 및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유흥업소 업주들에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명받기, 청소년보호법 홍보물 배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청소년금지구역 스티커 붙이기, 10대 청소년 매매춘 대상자 신상공개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 등 청소년 스스로 정화활동에 나섬으로써 유해환경의 폐해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단신

어린이 글짓기 큰잔치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는 오는 10월 10일 용산 가족공원에서 제1회 어린이 글짓기 및 연예인 초청 큰잔치를 개최한다.

서울경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0월 5일까지 개인 및 단체 참가신청을 받는다. 아동문학가 신현득씨, 은석초등학교 교사 이슬기씨, 극작가 곽영석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02)3281-3251

충북 청불련 연합 축제

충북 청소년 불자연합회(이하 청불련)가 12일 청주 불교방송 10층 소극장에서 '부처님 마음 신행으로'를 주제로 충북청소년불자 연합축제를 가졌다. 청불련은 청소년들의 신심증진과 청소년문화발전을 위해 이번 연합축제를 기획했다.

이날 축제에는 관음사, 수도원, 용화사, 풍주사, 한산사학생회 등 청주지역 사찰학생회 청소년불자와 스님,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여해 연극과 춤, 사물놀이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명사들의 건강비결 ⑯



주 영 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마음을 편안히 갖고, 모든 일에 임하면서 자기스스로의 생활리듬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아산레미콘주식회사 회장으로, 평화통일자문위원, 독산동 심원사 신도회장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76세).

주이사장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맨손체조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다음 집근처 청담공원까지 30분가량을 산책하며 그날 하루의 일과를 계획한다. 식사는 최대한 소식을 하고, 특히 저녁식사는 되도록 5시반 이전에 먹고, 저녁식사후에도 청담공원에서 30분 가량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한다. 저녁 9시반 쯤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면 일어나는 사찰에서와 같은 생활리듬을 지킨다. 70을 훨씬 넘긴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결은 바로 이같이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이다.

새벽4시 일어나 산책·맨손체조 "법구경 읽으면 절로 편안한 마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과 회식도 주로 낮 시간을 이용한다. 저녁에 늦게까지 회식자리에서 만나다 보면, 과식 과음을 피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생활리듬도 깨지기 때문이다.

주이사장은 72년~88년 용인에서 밤나무농원을 경영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주말이면 농원에서 밤나무와 돼지, 사슴 등을 기르는 일을 소일삼아 시작했는데 농사지고, 짐승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든 줄은 처음 알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과정이요, 자연스러운 운동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마치 처처가 부처님 법문인 것처럼 말이다.

요즘은 기억력이 예전보다 많이 감퇴해 〈법구경〉 같은 짧은 글들을 읽으며 신행생활을 한다는 주영운이사장은 건강을 바탕으로 "문화를 통해 불교를 알리고 훌륭한 불교인재를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처님 일을 즐겁게 하는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지름길이라 말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청교련·파라미타

문화재 애호 활동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중앙사무국은 가족과 함께 우리문화 보존하기 문화재애호활동을 전개한다. 이미 12일 서울 탑골공원과 종묘에서 문화재애호활동을 펼쳤다.

청교련은 문화재애호활동에 동참할 청소년자원봉사자를 모집중이며,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문화재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관악산으로 문화재보호활동을 떠난다.

청교련 대전지부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19일 대전제월당 및 옥오재 등지서 문화재보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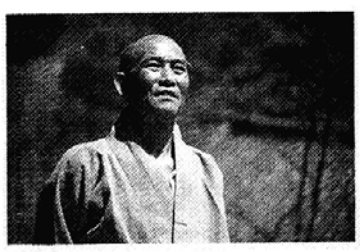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도 10월을 문화재 애호의 달로 지정해 문화재 이해와 조사, 보존, 관리, 캠페인, 정화 등 자원봉사대회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파라미타는 문화재 애호 지침서를 발간해 보급할 계획이며, 분회별로 지역 소재 문화재와 자매결연을 추진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은자 기자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차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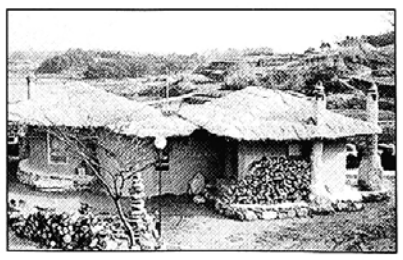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畵數順으로 安排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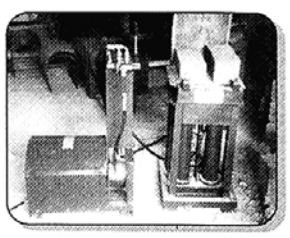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긴요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정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고임.

총판대리점 법 우 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 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 이 가능 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추석 선물 상품 특판전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마하몰에서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중한 분에게 마음을 전할수 있는
한가위선물 기획 특판전을 마련했습니다.

빠른 서비스, 고급화된 매장, 깜짝퀴즈의 상품,
현상공덕향 마하몰 경품 대잔치 등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마하몰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것입니다.

(마하(摩訶)는 범어 mah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크다는 뜻과
많다, 초월한다, 신묘하다는 뜻으로 경전의 이름이나 불교용어의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주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용어 입니다.)

경 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자문위 강원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읽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 느릅나무 원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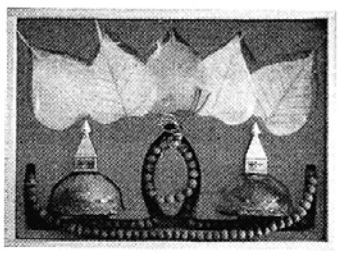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잣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민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팔은 수면을 허더라도 최고의 쾌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명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걸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56,000(2개 한세트)

석가모니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염(오색엽), 성토, 성수성주 <인증서 첨부>

본 성품을 소장하거나 늘 가까이 하면 삼재팔난 소멸, 소원성취, 무병장수무사안전 입시필승 순산, 함마, 재유 한다하니, 이 성품을 소장하는 불자 모두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비로운 탄생축복을 골고루 나눠받아 늘 행복한 삶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성품은 네팔 룸비니 동산을 복원하기전 있었던 아소카 탑 및 성수, 마야텐플, 샬트리를 얹은 피플트리로 만든 탄생관련 성품입니다. 사원에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 1000세트 한정판매 합니다.

■ 가격: ₩148,000원

패각 불상 (貝殼佛像)

신상품



담수 진주를 양식하는 방법으로 3-7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물 속에 잔연상태로 양식한 천연진주입니다. 연좌대는 다른 응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소불 안치 등) 원하는 상(像)에 맞추어제작해 드립니다.

패각상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비로자나불

규격 : 25cm x 30cm(가로 x 높이)

■ 가격:₩100,000

반야심경지통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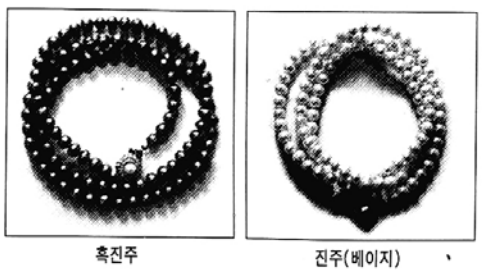


돌가루를 사용하여 반야심경을 양각으로 만든 지통 붓글씨 한지중이 모음통, 실내장식용 등 다응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규 격 : 높이 32cm, 지름 25cm (지통 대)
높이 26cm, 지름 20cm (지통 소)
재 질 : 대리석 석분(돌가루)

■가격:지통(소) ₩140,000
지통(대) ₩220,000

108 진주목걸이



흑진주 진주(베이지)

천연 담소진주를 이용하여 만든 목걸이

■ 가격

16,000원(베이지 3mm)
30,000원(베이지 5mm)
40,000원(베이지 8mm)
50,000원(흑진주 8mm)

달마순금액자

신상품



상반신 전신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종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66 호

■가격:₩120,000

연꽃 앞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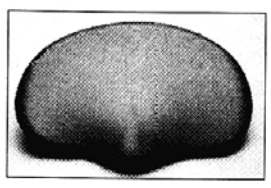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앞치마

색상 : 자주색
재질 : T/C(면혼합)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 가격:₩5,000

참선 명상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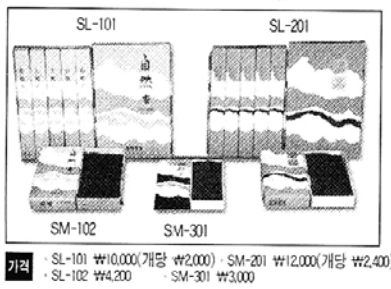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지연스럽게 피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시찰, 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머리가 맑아지는 순수자연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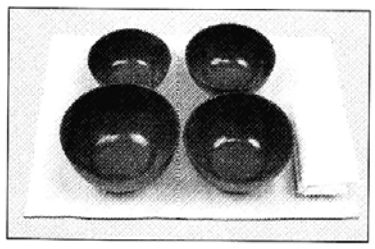
참나무 숯탄가루

본제품(향)은 국내최고 양질의 참소생탄과 세계적인 최고급 천연 한료만을 사용, 오랜 전통의 비법으로 만들어진 향제품으로 특무연향등을 개발 청정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제품을 사용하는 지역은 전위가 높아지고 동시에 자기(磁氣)도 강해지며 전자장이 높은 환경지역으로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 규격 : (가로×세로×높이)
- SL-101 26.5×16.5×5cm
- SL-201 26.5×16.5×3cm
- SM-102 15.5×8.5×3cm
- SM-301 15 × 15×2.5cm

가격 · SL-101 ₩10,000(개당 ₩2,000) · SM-201 ₩12,000(개당 ₩2,400)
· SL-102 ₩4,200 · SM-301 ₩3,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발우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야 할 도구의 하나로 밥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발다라(鉢多羅-patra)인데 재료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양에 맞는 그릇(應量器)' 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 가격

■ 와발우(4합) - 가 격: 60,000원 무게 : 2.7Kg
■ 와발우(2합) - 가 격: 30,000원 무게 : 1 Kg
(2합은 재가 불자를위한 발우 입니다)

문구암 스님 범음 · 범패집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십신이운 3.신징청 · 순중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II 8.대령 · 관욕의식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I 11.영산작법II 12.영산작법III 13.영산작법IV · 지장청사I 14.지장청사II · 지심권공I 15.지장권공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영전점안 20.증성 · 천수작법 · 요집

■ 가격 : ₩60,000

옥돌 액자



아름다운 옥돌로 만든 액자로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사진 등 각종 기념이 될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선물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추석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몸에 좋은 옥에 사진을 넣어 보내 드리면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가격

대 - 17.8 X 22.5 cm (가로x세로) : 15,000원
중 - 3.7 X 18 cm (가로x세로) : 10,000원
소 - 7 X 9 cm (가로x세로) : 3,000원

바위속에 숨은 부처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믿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름있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 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정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감독-황기태
상영시간 :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달마 양면 손 자수(소장용 작품)



머리카락 굵기의 실을 이용하여 오랜시간 불자님 손안에서 수만 수십만번의 섬세한 자수 작업으로 한올 한올 수놓아져 세겨진 놀라운 작품

신심이 바탕이 된 기술로 심철을 기울여 세겨놓은 불교 예술품에서 자수 미술의 극치를 경험하십시오. 수 놓은 면 앞 뒤를 유리로 투명화하여 진등 빛이나 촛불이 어우러질때는 강이로움과 신비로운 감동이 함께 할 것입니다 흔치않은 달마도 명품의 소장자가 되십시오. 작업시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긴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면수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새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수 기법 (앞뒤를 보아도 똑같은 형체가 나타남)

■액자크기 : 25 × 25cm(받침대 포함)

▪가격: ₩500,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해어 드립니다

고산다기



고산 이규탁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광산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광산의 심일대손인 고취정산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상산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가격:₩120,000

불성차 (佛性茶)



불성차는 지리산 심산유곡의 야생 차밭골에서 갓 피어난 어린 녹엽을 손수 채엽해
등(鎭)기마솥에 전승비법으로 빛어낸 전통 수제차로서 깊고 은밀한 맛과 향
그리고 신비한 색의 조화가 한데 어우러진 한국 최고의 명차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의 선물을 보내세요

■가격: 우전 : 90,000원
세작 : 50,000원
중작 : 30,000원
대작 : 20,000원

반야불교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루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륙력(十六大力)
지력(志力), 희력(喜力), 행력(行力), 참력(慙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총법력(聰法力)
항마력(降魔力)

■ 재질 금큐빅(18k,14k-1.5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 환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자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녀,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저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달이지도 않고 분쇄후 물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올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향나무 열쇠고리



고급향나무로 제작했습니다. 부담없이 선물하세요.

300개 이상 주문하실 경우 원하시는 문구 넣어드리며, 500개 이상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
안전운행 3,000원
재수대통 3,000원
소원성취 3,000원
달마 향 3,000원
향 합장주(8mm) 800원

법회안내

동국대 2학기 개강법회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 오후 4시 동국대학교 정각원 2학기 개강법회.(02)2260-3016

봉은사 일요법회



법산스님(동국대 교수) 19일 오전 10시 봉은사 대웅전 일요법회. (02) 511-6070.

철야정진 기도법회

묘유(선본사 갓바위 주지) 매주 토요일 밤9시~새벽3시 철야정진기도법회.(053)851-1868

정토법당 금강경법회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10월4일~11월30일 매주 월·화요일 부산 정토법당 〈금강경법회〉.(051)557-2746

길상사 일요법회

덕조스님(길상사 총무)19일, 26일 오전 10시 길상사 일요법회.(02)3672-5945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9월15일(수)

■동국대 국악과 정기연주회=제5회 동국대 국악과 정기연주회가 오후 7시 30분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범패, 승무, 바라무 등 전통무용과 음악을 선보인다.(0561)770-2509

■환경친화 사찰만들기 공청회=조계종 사회부는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환경친화적 사찰만들기 공청회를 갖는다.(02)735-5864

9월16일(목)

■박범훈교수 '불교음악' 특강=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에서는 오후 7시 중앙대 박범훈교수의 '불교음악 특강'을 진행한다.(02)541-0002

■백창기 중앙신도회 신도회장 취임식=조계종 중앙신도회 신임 회장 백창기씨 취임식이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02)733-7277

9월17일(금)

■사명당 주제 학술회의=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는 오후 1시 동국대 학림관 소강당에서 '한국불교사에서의 사명당의 의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02)3411-6167

■청량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5시 봉화 청량산 청량사로 참배법회를 떠난다.(02)2279-1191

■교구본사사찰수련회 담당자 간담회=조계종 포교원은 교구본사 사찰수련회 담당자 간담회를 오후 2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갖는다.(02)720-7060

9월18일(토)



◇참선정진 법회에 참가하여 여름내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자.

■선정회 월례참선 철야정진=선학원 선정회는 저녁 8시~19일 새벽 4시까지 안국동 선학원 선방에서 좌선정진법회를 갖는다. 선학원 원장 성해스님이 참선법문과 좌선지도를 한다.(02)732-3327

■국제포교사품수식=조계종 포교원은 오후 5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갖는다.(02)720-7060

9월19일(일)

■경주 남산 불교유적 순례=옛돌은 부처님의 나라, 미륵의 땅 경주 남산을 찾아 불교유적 순례를 떠난다. 감실불상, 부처바위, 보리사 석불좌상, 신라역사과학관 등을 둘러본다.(02)2266-1233

■내고장문화유산가꾸기 답사=맑고향기롭게 경남모임에서는 오전 9시~오후 5시 봉림사지 삼층석탑과 불곡사 일주문, 석조비로자나불좌상들을 돌아보는 내고장 문화유산가꾸기를 실시한다.(0551)266-0176

■서울불교청년회 자원봉사=서울불교청년회는 오전 7시 20분 소적새마을로 자원봉사를 떠난다.(02)730-9108

■금강메아리 연주암 산행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관악산 연주암으로 9월 산행법회를 떠난다. 오전 9시 2호선 사당역에서 집결한다.(02)772-9517

9월20일(월)

■운문사·거조암 철야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7시 청도 운문사 사리암과 거조암으로 철야참배법회를 떠난다.(02)2279-1191



◇거조암 5백 나한님과 함께 철야정진을 하자.

■국보급 백제문화재 전시=국립중앙박물관은 11월 4일까지 일본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국보급백제문화재를 전시한다. 금동제 미륵보살반가상 등 47점이 선보인다.(02)398-5000

게 시 판

알림

▲무료한방진료=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7시 30분 침, 뜸, 부항, 한약 등 한방과목일체를 무료진료한다.(0443)652-0900

▲견지불교사 상운중심점 개업=불구용품전문점 견지불교사 노순옥 사장이 10일 조계사옆 상운중심점을 개업했다.(02)739-3032

▲무료도배서비스=자양사회복지관은 생활보호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도배서비스를 오는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주)동남·코스모스벽지가 후원한다.(02)458-1664

▲사회복지사=분경모전사회복지관은 재가복지부문에서 일할 사회복지사를 구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운전(1종)과 PC사용이 가능해야 한다.(0581)555-0108

강좌

▲성훈따주기=수효사 문화원에서는 제31기 성훈따주기 강좌를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지 무구스님의 지도로 삼능침 하나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지방법 등을 배운다.(02)313-5047

▲다도강좌=정토선원은 14일~16일 오후 2시 우리 차에 대해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다도강좌를 연다.(062)528-0108

▲기초교리·〈천수경〉무료강좌=백화도량 수미정사에서는 기초교리와 〈천수경〉무료강좌를 3개월간 실시한다. 기초교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천수경〉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02)929-0929

▲태권도·퀼트 등=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태권도, 퀼트, 워드자격증반, 양식, 일식, 한식, 중식조리사 강좌를 실시한다.(0842)716-4215

▲조리사교실=낙동복지관은 주부를 대상으로 미용교실, 한식, 양식 조리사교실을 개설했다.(051)271-0560

▲전문자격증 재취업강좌=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취업강좌를 연다. 한식조리사반, 제과제빵반, 생활영어반 등이다.(02)2282-1108

▲노인교육강좌=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교육 강좌를 개설했다. 탈춤, 스포츠댄스, 동화구연, 중국어, 문학, 한지공예, 영어회화, 꽃꽂이, 원예 등이다.(02)385-1351

▲간병교육=자양사회복지관은 10월 19일까지 제19기 자원봉사자 간병교육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수강료는 2만5천원.(02)458-1664

모집

▲무료합동결혼식 후원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10월 8일 실시예정인 무료합동결혼식 후원자를 모집한다.(0443)652-0900

▲여성장애인 미용전문자원봉사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미용자원봉사에 동참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전문미용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02)989-4215

▲지원봉사자=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재가봉사원, 무료급식장, 밑반찬배달, 이미용서비스, 차량지원, 생활실태조사 등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2)458-1664

▲복지사업 후원자=두송복지관은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무의탁 노인돕기와 한가위 백미나누기 사업 후원자를 모집한다.(051)265-9471

▲바이올린 피아노 강사=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바이올린, 피아노를 지도할 강사를 모집한다.(02)2282-1108

▲푸드뱅크서비스 후원자 및 대상자=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푸드뱅크 후원자 및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부식물, 가공식품, 반찬 등의 후원할 수 있어야 하며 대상자는 생활보호저소득 노인이다.(02)385-1351

▲복지관 자원봉사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영어교육, 수화지도, 댄스지도, 도시락배달, 가정봉사 등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활동할 사람들을 기다린다.(0342)716-4215

화촉

▲전국신도회 상임부회장 손안식씨의 딸 손지현양이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청기와 예식장 5층 특실에서 박노규 군과 화촉을 밝힌다.

종단소식

조계종

은해사 주지대행 법의스님

영천 은해사는 4일 교구종회를 열고 전주지 법타스님을 회주로, 현 총무국장 법의스님을 주지직무대행으로 각각 추대했다. 또 궐석인 제10교구 선관위원에 도일스님(보광사 주지)과 돈무스님(수태사 주지)을 임명했다. 은해사는 27일 오후 2시 산중총회를 열어 새 주지를 공식 선출한다.

태고종

한달간 금강산 순례

태고종도 금강산순례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차에 걸쳐 실시된다. 한불여행사가 주최하는 이번 순례 1차는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2차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차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차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각각 3박4일이다.(02)745-1614

통일기원 만등법회

경남교구종무원 밀양분원(원장 원봉)은 29일 밀양시 삼내면 긴늪숲에서 남북평화통일 및 수륙 만등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 만등법회는 밀양분원이 17년동안 해오던 연례행사로 올해는 남천강을 중심으로 긴늪숲에서 1만등을 켜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결친다.

천태종

관문사 3천옥불 봉안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는 10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종정 도용스님을 증명법주로 4층 옥불보전에서 국운융창기원 3천옥불 봉안법요식을 봉행한다. (02)3460-5300

진각종

낙자제작 동참자 모집

교법부는 스승들이 법의와 함께 수하는 낙자(洛子)를 새롭게 제작하기로 하고 낙자제작을 위한 동참불사에 직접 참가할 신교도나 희사를 통한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참가신청 및 접수 (02)913-0133

법륜종

16일 연담종정 49재

8월 6일 입적한 우연당 종정스님의 49재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덕암사에서 봉행된다.

일붕선교종

관음보살상 점안

충주 삼봉사(주지 무원)는 12일 석조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종정 붕해스님이 증명법주로 참석한 이날 점안법회에는 청송 총무원장 등 종단 스님들과 삼봉사 신도 5백여명이 동참했다.

총화종

대전종무원장 혜명스님

7일 총무원장 남정스님, 종회의장 만오스님등 중앙간부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종무회의를 열고 △10월4일부터 중의 기초학 및 침구경락학 강의실시 △대전교구 종무원장에 혜명스님(백운사 주지)을 임명했다.

법사종

中 화엄선사와 결연



성순경 총무원장은 8월30일~9월3일 중국 구화산을 방문하고 인덕방장스님을 예방, 양국간 우호증진과 불교문화교류에 힘쓸것을 다짐했다.

1일에는 화엄선사(주지 혜광법사)와 자매결연식〈사진〉도 가졌다.

정토종

日 동본원사와 결연

종정 청암스님 총무원장 지산스님등 종단간부스님들은 8월30일 일본 정토진종 총본산 동본원사를 방문하고 양종단간의 자매결연과 불교문화교류등을 논의했다.

무량종

기초교리 회보 발송

서울 무량정사(주지 령관)는 기초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불자들이나 불교초보자를 위해 매달 불교기초교리를 알기쉽게 풀이한 회보를 보내준다. (02)3216-1600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삼보와 스승님께 귀의 합니다

- 석용산 스님을 매장하려 했던 모든 허황된 고소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죄 없음을 최종 확인 -

회주큰스님을 가까이에서 십수년을 모셔온 저희들은 스님의 일여한 모습속에서 인욕보살의 진면목을 발견 할 수 있었기에 큰스님을 감히 이 시대의 인욕보살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오욕을 그대로 참으시며 끝까지 부처님과 약속을(남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지키시려 온갖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감내하시고 계십니다. 8월 28일 큰스님께 씌워졌던 형사 고소사건 3건이 모두 무혐의 판정을 검찰로 부터 통고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스님을 괴롭히려고 PD수첩까지 동원하여 큰스님을 매장하려 했던 허황된 고소사건, 김순자 고소사건, 이미영의 고소사건이 모두 죄 없음을 검찰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이비(이교도) 매스컴 종사자와 몇몇 승려들이 큰스님을 매도하고 있음은 큰스님의 자비 인욕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는 날, 큰스님을 매도했던 자신들의 입지가 문제되겠기에 끝까지 큰스님을 악인으로 몰아 매장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남을 다치게 하지는 말아야 하겠으나 큰스님의 명예는 회복시켜 드려야 하겠기에 우리 제자들은 **「나의 스승 석용산스님」**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큰스님과 인연닿아 오시면서 보고 느끼고 배우며 감동스러웠던 부분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여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이 채택된 분에게는 상품과 소정의 고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으로, 회주 큰스님께서 진정 이 시대의 인욕 보살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바른 것을 세상에 바로 보이는 진정한 불자님들이 되는 인연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 아 래 —



■**접수기간** : 1999년 9월 8일 ~ 9월 22일 까지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원고매수 관계없음)
■**형 식** : 시, 수필, 신행수기, 단편등 (형식은 상관없음)
■**접 수 처** : 도서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공덕원(대구,부산)종무실. 우편으로 접수(주소문의)
■**문 의** : 도서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051)627-5498
대구포교원 ☎(053)741-0077. 팩시. 741-0066
부산포교원 ☎(051)625-2253. 팩시. 623-3946

지장불교 근본도량
사 회 복 지 법 인 **공 덕 원**

문도대표 석효선·석지광·석효림
신도대표 장난주·이대등명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일동 합장



◇대전시 대덕문화체육관에서 봉행된 불국정토구현 기원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에서 삼론종 종정 대산스님이 법어를 하고 있다.

"육바라밀 실천으로 불국토 구현"

삼론종 관정수기법회 3천여명 동참

삼론종(총무원장 혜공)은 7일 대전 대덕문화체육관에서 불국정토구현기원 제2회 관정수기대법회를 봉행했다. 삼론종 스님들과 신도 등 총 3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대법회와 2부 관정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관정경〉에 따르면 관정수기란 전법수계할 때 또는 수도자가 일정한 계위에 오를때 사해의 물을 길어다 수계자의 정수리에 부어 계위를 인증해 주는 돌사로 관정수기를 받는 사람은 미래에 대아라한 대보살 종래에는 부처를 이룰 큰 인연공덕을 짓게됨으로 고난과 질병에서 벗어나 복덕이 구족하게 된다고 한다.

이날 법회에서 대산 종정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법을 잘 수지하고 부지런히 마음을 닦고 보살행을 해 불국정토를 이루어 나가자"고 설했다. 혜공 총무원장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IMF로 어려운 이 때 불자다운 삶과 육바라밀 실천으로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직지인쇄술 서양전파 추적

청주MBC 13개국 취재 다큐물 제작

내년 3월 '직지찾기' 싸이클대회도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찾고, 인류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직지의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5부작 다큐멘텐터리가 제작, 방영된다. 청주MBC(사장 박우정)는 '인류문화유산 직지'를 기획하고 이달부터 제작에 들어가 내년 10월 창사 30주년 특집프로그램으로 방영키로 했다.

직지('백운화상 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약칭)는 고려말 백운화상이 저술한 것으로, 참선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 '불조직지심체요절'에서 핵심되는 부분을 뽑고, 우리나라의 고승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적어 놓은 책이다.

직지는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한 1450년보다 70여년 앞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다. 직지 2권 중 하권은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상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청주MBC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2억원을 투입, 국내는 물론 세계 13개국을 취재한다. 5부작 다큐멘터리 '인류문화유산 직지'는 1부 '금속활자의 발명국, 코리아', 2부 '직지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3부 '금속활자 그 화려한 외출-중국, 일본', 4부 '활자 실크로드는 있는가-청주에서 마인츠까지', 5부 '직지냐, 구텐베르그냐'로 구성된다.

연출을 맡은 남윤성 PD는 "종이와 목판인쇄술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갔다는 연구가 정설"이라며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했던 마인츠시까지 탐사하며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가능성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MBC는 또 내년 3월 '직지찾기 사이클대회'도 개최한다. 사이클대회는 청주를 출발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직지 찾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청주MBC 박우정사장은 이와 관련해 8일 조계종총무원을 방문, 사이클대회에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참석과 전국 주요사찰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동국대는 8일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와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동국대 신기술연구소 개소

양자반도체 · 밀리미터파 9년간 연구

올해 우수공학센터(ERC) 및 우수과학센터(SRC)로 선정된 동국대(총장 송석구)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소장 이진구)와 양자기능 반도체 연구센터(소장 강태원)가 8일 오전11시 개소식을 갖고 출범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서정욱 장관(과학기술부), 김정덕 사무총장(한국과학재단), 권오갑 사무처장(국가과학기술회의) 정윤 지원국장(과학기술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로부터 9년동안 매년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는 인공두뇌연구의 바탕이 되는 양자물성·소자물리를 연구하며,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는 무선통신 첨단기술인 반도체 소자와 직접회로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강지연

부산 불교복지보건대 2기 간병인 40명 입학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혜도)은 7일 제2기 복지보건간병봉사자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학장 혜도스님, 부학장 황보선교수를 비롯 전 교직원과 40명의 신입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입학식에서 혜도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마음이 건강한 불자가 되어야 진정한 간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갖추어진 불성에 비추어 동체대비의 자비심으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3개월 과정으로 개설된 2기 복지보건강병봉사자과정은 이날 황보교수의 '인간의 이해 및 직업인의 자세' 첫강의를 시작으로 보건분야의 전문강사들이 보건과 복지 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천미희 기자

반야사 문화센터 백화루 기공법회

충북 영동 반야사(주지 성제)는 5일 불교문화센터인 백화루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연건평 60평의 백화루 1층에는 식당과 매점이 2층에는 강당이 들어서며 강당은 동하계수련회, 세미나,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석굴암주지 종상스님 영동군 사암연합회장 해송스님 박완진 영동군수 정태호 영동군의회의장 박희택 범양건설회장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범패 기공식 시삽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세계 최고 김지장보살상 세운다

높이 99m 금불상 구화산안에…2002년 완공

중국인에게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교각스님의 동상이 세계 최고(最高) 규모로 건립된다.

중국 안휘성 구화산불교협회(회장 인덕)는 9일 구화산 정상 대각선사터에서 교각스님 동상 건립식을 봉행했다.

종단협의회와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교각스님 동상은 99m 금동불상으로 이날 기공식을 갖고 550억원을 들여 2002년 9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기 696년 신라 성덕왕의 태어난 교각스님은 24세에 중국 당나라 구도의 길을 나서 구화산에 화성사를 창건하여 중생을 교화하였다. 이후 구화산은 중국불교 4대 성지의 하나인 지장도량으로 한국불자들과 중국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각스님은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다.

정성운 기자

"北 · 中 종교탄압 극심"

美 국무부보고서

북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을 종교적 소수파를 탄압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라고 지적한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8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백94개국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해 밝힌 연례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정부는 정권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종교적 관습을 행하는 주민을 포함, 모든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을 할 경우 투옥 등 엄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전통종교인 불교와 도교를 제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종교활동을 할 경우 박해와 장기 구금 및 교도소 또는 노동을 통한 개화, 그리고 수용소 수용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불교 승려들을 학대 또는 고문한 사건이 있었다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숙 기자

"불교 초전지 개발반대 지역발전 저해 행위"

영광군민 목사추방운동

백제불교도래지 사업에 반대하는 기독교목회자 추방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영광군 목회자추방 8만군민 추진위원회는 '백제불교도래지사업'을 반대하는 개신교 목회자 추방 8만군민 서명운동을 1일부터 전개했다.

영광군 목회자 추방 8만군민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조남식 박동필)는 8월 18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사업을 특정종교 성역화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개신교 김모 목사를 지역문화사업 개발저해자로 규정했다.

김원우 기자

우리절 불사 옥천사 보장각



◇옥천사는 말사로는 최초로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성보를 소장하게 된다. 보장각앞에선 주지 호암스님.

성보 소장 유물전시관 건립

탱화등 171점 전시 내달 11일 만등법회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조사가 창건하여 화엄십대사찰의 하나였던 옥천사(주지 호암)가 천년고찰의 문화유산을 영구보존할 유물전시관 보장각을 건립하고 있다. 또 백성들의 번영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던 축성전도 복원된다.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고산스님초청 만등법회를 갖고 첫 문을 열게될 보장각은 지하 1층 80평, 지상 2층 1백평규모로 한옥양식이며, 임자고려명반자(보물 제495호) 청동은입사향로(유형문화재 제59호)와 괘불 지장탱화 금강경목판 14매 성절불공절차목판 3매 식사사물목록기판 1매 목식통 소지시여상등 1백8점과 고문서 63책 등 많은 성보가 전시된다. 옥천사는 1994년 소장품 119점을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아 말사로는 처음으로 유물전시관을 짓게 됐다.

원래 어필각(御筆閣)으로 불리웠던 축성전(祝聖殿)은 일제시대 강제 철거된 건물로 정면 5칸 측면2칸 42평규모의 전통한옥양식으로 건립됐다. 현재 인조임금이 직접쓴 현판과 하마비(下馬碑)가 남아있다.

경내에 달고 맛있는 물이 끊이지 않고 솟는 샘이 있어 옥수(玉水)라 했는데 이를 유래로 절이름까지 옥천사(玉泉寺)라 했다. 산사 주위 32필지가 연화팔경으로 경남도가 지방기념물로 지정했다.

또 옥천사에는 '서봉인오방광탑'이 있는데 1879년 서봉스님이 60여세의 나이로 청련암에 주석하며 이제까지 계행을 못지키고 수행도 못한 것을 참회한뒤 대소변도 방에서 보며 기동도 않은채 오직 나무아미타불 육자염송으로 정진하다 좌탈입망했는데 다비식 저녁에 온 산내전역에 방광이 나타난 것을 기념하여 현 산문저수지 위 바위벽면에 서봉인오방광탑이라는 글귀를 새겼다.

옥천사는 청담스님의 출가지 인연으로 문도들이 주석하며 1981년부터 청담대종사 사리탑과 비석건립을 시작으로 중창불사가 시작돼 일주문(1984년) 조사전(1985년) 사적비(1987년) 사천왕문(1989년) 범종각(1990년)등을 완공하여 현재 24동의 당우를 갖춘 대가람이다.

옥천사는 앞으로 극락암등 퍼사한 9개 암자와 연화사등 4개말사, 물레방아등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문의 0556) 672~0100.

김원우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 016-228-2358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1천번 선방 대중공양 발원' 한 요리연구가 임지호씨

5년째 1백여 선방찾아 공양

틈틈이 양로원·고아원서도 솜씨발휘

1천번의 선방 대중공양 발원을 세운 불자가 있어 화제다. 깨달음을 위해 수행 정진하는 수좌스님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공양하겠다고 원을 세운 산채요리연구가 산당 임지호씨(45).

경북 안동에서 2대 독자로 태어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8세의 어린 나이에 가출을 감행했던 임씨는 자신 때문에 속을 태우며 남몰래 흘렸을 어머니의 '눈물 값'을 갚는다는 참회의 마음으로 5년 전 '1천번 선방 대중공양'을 발원했다. 1천번이면 1주일에 한번씩 대중공양을 한다 해도 장장 20년이 족히 걸린다. 5년여동안 선방대중공양을 계속해온 임씨는 절이 좋고 치열하게 구도하는 스님들이 좋아 대중공양하는 일이 즐겁기만 하단다.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먹는 사람의 성격, 기분에 따라 모양과 맛이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어 '이미지요리 연구가'로 더 잘 알려진 임씨가 그동안 대중공양을 올린 곳은 동학사, 법주사, 봉암사, 내소사, 화방사, 칠불암 등 전국의 선방 1백여곳이 넘는다.

"오신채를 뺀 자장면, 카레, 냉면 등 별미를 만들어 드리면 무욕으로 정진하는 스님들도 '너무 맛있다'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하는 임씨는 "선방 수좌스님들의 정갈하고도 투철한 모습에서 '결정의 맛'을 좇는 요리 연구가로서의 생명력을 발견하곤 한다"고 말한다.

대중공양에 나서는 임씨는 그때그때 사찰 주변을 누비며 산이나 들에 나는 약초, 풀, 채소 등을 거두고 여기에 산의 기운을 더해 음식을 만든다. 음식을 만들면서 불어넣은 기운이 공부에 전념하는 스님들에게 온전하게 들어가 더욱더 치열하게 수행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

음식을 만들때 예술작품을 만들듯 정성을 다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넣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다. 전국 산과 들의 풀과 꽃은 물론 약초, 매미껍질 등 세상의 온갖 음식재료에 연녹색 솔잎가루, 쥐색 흑임자(검은깨)가루, 주황색 홍화가루 등 색색의 분말로 채색한 요리를 기왓장이나 소 여물통 등에 담아 평소 먹던 음식에서는 느껴 볼수 없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향취와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입안에서 살아 숨쉬는 탈속(脫俗)을 체험한다고 말한다.



임지호씨는 어릴 적부터 전국의 음식점에서 어깨너머로 요리를 익혔다. 80년대 중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주방장으로 2천명 근로자의 세 끼니를 책임진 적도 있다. 호텔 주방장을 거쳐 지금은 경기도 양평에서 자연음식전문점 '산당'을 운영하고 있다.

임씨는 선방 대중공양에 그치지 않고 고아원, 양로원을 찾아 음식보시를 하기도 한다. 19일 인사동 가나아트홀 앞에서 정신세계의 하모니를 '이미지 음식'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할 계획인 임씨.

"거짓과 욕심없이 만든 음식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조계종 삼장강사 10명 배출

승가대학원 첫 졸업식

조계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원장 무비)이 7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고 10명의 삼장강사(응각 법장 능허 반산 일귀 선행 현진 원징 지상 용학스님)를 배출했다. <관련인터뷰 4면>

이날 졸업식은 전통강맥 계승과 현대에 맞는 강사 양성을 위해 지난 96년 10월 개원한 종립 승가대학원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교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경과보고, 졸업장 및 삼장강사 증서 수여, 법어, 졸업생대표 인사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졸업식에서 무비스님은 "강맥전수는 부처님의 법통을 경학의 입장에서 이어가는것"이라고 전제한 뒤 "종단에서 인정하는 공식 삼장강사가 되는 것은 사제간에 강맥을 전수하는 것보다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기자

포항 '한민족 가족묘' 수탁

지장불교상조회

지장불교상조회(회장 경산, 백양사포교원)가 포항시 시립납골당 "한민족 가족묘"를 수탁했다. 납골당 납골묘의 공급확대를 위해 포항시가 추진한 이번 한민족 납골묘를 수탁한 지장불교상조회는 1일부터 포항시 구룡토지역 2천평에 3백기 안치를 목표로 1차로 분양중이다.

한민족가족묘는 납골의 최대문제인 결로현상을 없애기위해 석실과 외실로 구분된 왕릉형태의 봉분형납골묘로 돼 있으며 여러곳에 분산돼 있다.

시립화장터까지 위탁관리할 예정인 포항 지장불교상조회는 앞으로 포항시의 협조 를 얻어 10만여평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문의 (0562) 278~3990. 김원우 기자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잇달아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0~21일 용인 중소기업기업개발원 연수원에서 직할교구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봉선사 등 서울·경기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달까지 지역별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을 잇달아 연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본·말사 주지 스님과 본사 7직 국장스님의 소양을 높이고 본말사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어 온 이 연수교육은 올해 6월 충청지역 연수회를 시작으로 광역(도)별 연수를 처음 실시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연대감을 공고히 해 포교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고운사=29~30일 직지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10월 6~7일 삼성 산청연수소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10월 21~22일 삼성생명 김제연수원 △관음사=10월 29~30일 관음사포교당.

김재경 기자

국보법 폐지촉구법회 18일 조계사 대웅전

국가보안법폐지 불교연대(준)는 18일 조계사대웅전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정치수배자 해제촉구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국보법에 대한 문제점제기 △국보법 폐지 불교계 결의문채택 △실천지침확정 △정치수배제해제 촉구 결의문등이 낭독된다.

한편 조계종 사회부, 실천불교전국승가회등 9개 단체가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 불교연대준비위는 14일 전국불교운동연합사무실에서 2차회의를 갖고 '국보법철폐 불교연대' 정식발족 및 향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뉴스 & 뉴스

조계종 복지재단 15일 '포럼'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15일 오후 2시 재단 강의실에서 '종단내 사회복지 위상강화 및 복지재단 역할 모색'을 주제로 불교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특히 내년도에 설립 5주년을 맞게되는 복지재단이 그동안의 재단역할과 조직구조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가 '종단내 포교관련 복지실태'를, 권경임씨(복지재단 자문위원)가 '불교사회복지 필요성과 복지재단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또 복지재단을 비롯해 포교원 교육권 등의 종단 관계자들이 참여해 불교복지와 복지재단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한명우 기자

장례문화학과 신설신청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국내 처음으로 불교적 전통에 의한 장묘제도의 개선과 장례문화의 개혁을 연구하는 '장례문화학과'를 불교대학원에 개설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학과 신설을 신청했다. 이달말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정원 50명 규모로 장례문화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례문화학과에서는 불교학개론에서부터 장례경영론 장묘제도론 등 장묘관련분야 병원미생물학 병리학등 보건행정 의학분야의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강지연 기자

광주군 군정백서 시정키로

경기도 광주군은 최근 민선자치 제1기 군정백서의 명예군수 위촉현황과 관련해 불교계에 소홀하게 됐다며 해당내용을 정정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광주군은 종교편향대책위원회에 보낸 지난달 21일자 공문에서 "군정백서의 명예군수 위촉현황 내용이 특정종교 편향적인 사항은 아니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내용을 정정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부산대불련 '반딧불 학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가 29일~10월1일 양일간 동의대 생활과학대에서 제3기 생태학교인 '반딧불학교'를 개설한다.

새로운 환경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지역환경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반딧불학교에서는 지역 시민단체 '작은 변화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김영수 목사가 '풀도 죽었다. 물고기도 죽었다. 인간의 세계는...'을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새로운 문명전환으로서의 교육혁명'을 주제로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과 동아대 송한식 교수의 강의가 진행된다. 도필선 기자

새천년 첫해 '불교달력' 출시

부처님 오신날 5월11일



새천년의 부처님오신날은? 5월 11일(목요일). 불교의 각 명절과 의례의식일을 음력과 함께 볼 수 있는 불기 2544년 불교달력이 대거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천년의 첫 해, 2000년도 불교달력은 사계절의 산사, 연꽃, 성보, 동자승, 동남아시아 사원, 사군자, 달마도 등 다양하다.

19종의 달력을 내놓은 감로기획(02-723-4306)은 천진불심을 되새길 수 있는 '동자승의 세계', 부처님 사리와 가사 그리고 국·보물이 산재한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등이 화보로 장식됐다. 또 사진작가 백남식씨가 불교유물·유적만을 모은 '북한의 사찰'도 있다.

조계종 출판부(02-720-6019)는 '산사의 향기'와 '산사의 멋' 그리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3종. '산사의 향기'는 수정한지 위에 산사의 사계풍광을 그린 작품을, '산사의 멋'은 사진작가 김성철씨의 탁월한 색감이 담긴 사진을 모았고 또 서산 마애삼존불등 대표적인 석불들이 실린 '우리도 부처님같이'에는 중앙종무기관의 연락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가야기획(02-732-2461)에서 선보인 달력은 용을 주제로 한 '용'과 라오스 불교사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부처님의 성지-라오스' 등 총 11종. 월간 불광과 불광문화사업부(02-420-3200)가 내놓은 달력은 윤명숙씨의 작품 '연꽃', 홍순태교수(신구전문대)가 동남아시아 주요 사원을 찍은 '세계'의 불교사원' 김용대 화백의 달마선화를 엮은 '달마도' 등 3종이다.

김중근·오종욱 기자

사부대중 수련회

10월16·17일 수원용주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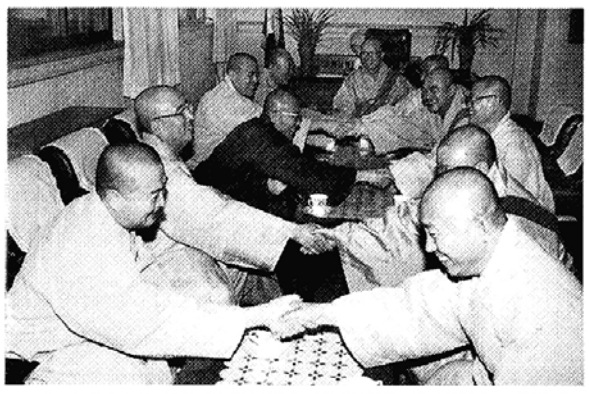
사부대중공동체 창립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지홍)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수원 용주사에서 사부대중 전체수련회를 개최키로 했다. '사부대중의 수행환경과 공동체 수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로 사부대중공동체 운동에 동의하는 모든불자가 참여할 수 있는 수련회로 도법스님(실상사주지) 전재성교수(한국빠알리성전협회)가 사부대중의 수행환경과 공동체 수행에 대하여 발제한다. 김원우 기자

동대병원 특위 구성안 조계종 종회안건 추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8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동국대학교 불교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142회 임시종회 안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조계사 재정 사태 파악 및 사법처리 진상조사 특위 구성의 건은 재정분과 위에 이관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 초청으로 이뤄진 조계·태고종 집행부 회동에서 양종단 스님들은 수습위원회를 구성,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분규해결 위원회 구성키로

조-태 집행부 회동

조계종과 태고종 두 총무원의 집행부는 7일 태고종 총무원장실에서 만나 조계-태고 분규 해결 대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태고종총무원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만남에는 태고종에서 총무원장 인곡스님, 총무부장 지성, 고무부장 백운, 재무부장 혜공, 구찰부장 수열, 사회부장 호명, 조계종에서는 총무부장 원택, 기획실장 만성, 재무부장 자승, 문화부장 일칠, 사회부장 양산, 호법부장 종고, 사서실장 양산스님이 참석했다.

인곡스님은 "금년 내로 분규를 끝내자"며 "태고종은 선암사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택스님은 "의현·월주 총무원장 당시 협상안까지 나왔으나 좌절된 적이 있다"며 "양 종단이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곡스님은 "우리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운 기자

창사 20주년 기념

제1회 민족사 새 글 공모전

오는 2000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족사는 새 글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역량있는 필자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에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창의력 있는 원고를 모집합니다.
불자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불교출판의 활기를 불어넣을 재능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분야
■ 불교대중서로서 기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제와 형식의 글
- 불교입문서, 교리해설, 산문집, 불교문화예술, 사찰기행 등(단, 학술서, 시·소설류는 제외)

2. 자격 및 방법
■ 자 격 : 창조적인 글쓰기에 자신있는 모든 분
■ 방 법 : 집필원고의 개요(A4 1장 내외)
집필원고(원고지 800매 이상)
간단한 프로필 및 주소, 전화번호, 본명 명시
우편접수시 겉봉에 '공모작품'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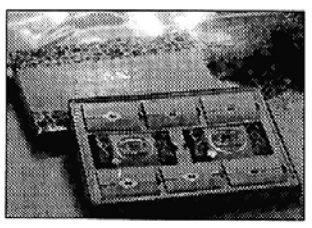
3. 일정 및 수상내역
■ 응모기간 : 2000년 3월 31일까지(소인유효)
■ 수상발표 : 2000년 5월 2째주 불교계 신문(당선자 개별통보)
■ 수상내역 : 대 상 1편 300만원
우수상 2편 100만원

*응모작품은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상작의 우선 출판권은 민족사가 소유합니다.
(또한 출판할 경우 저자와의 계약을 통해 별도의 인세가 지급됩니다)

민족사 민족사는 좋은 책으로 좋은 세상을 꿈꾸는 곳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3층 전화) 732-2403~4, 722-7679 팩스) 739-7675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엷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여러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대구BBS 제1회 신행일기 공모 은상

신행담

20년만에 바꾼 운명

'추운아이들' 입히려고 15년간 관음정근 하며 뜨개질을 했다. 그 아이들이 불자되길 발원하며…

나는 47년 전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에서 1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실부모하고 가정이 어려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객지를 전전했다. 그러다 대구 남산동에 작은방을 얻어 살면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27년 전 동갑내기 친구 덕분으로 부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도반도 없었고, 인연있는 스님도 없었던 나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접할 수 없었던 까닭에 기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동화사 갓바위 부처님을 찾아 뵈었다. 밤새 부처님께 절을 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날 나는 부처님께 약속을 드렸다. 육바라밀 중의 보시바라밀을 꼭 행하겠다고.

술집 다니는 사람들 치고 빚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 내가 보시할 수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생각 끝에 교동시장에 가서 실과 바늘을 구입했다. 추운 겨울 변변히 보살펴 주는 이 없는 아이들에게 내가 손수 짠 스웨터를 입혀주기로 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한올한올 정성을 드린 옷을 입은 아이들이 장래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참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며 스웨터를 짰다. 한달에 여섯벌 정도, 일년이면 50~60벌 정도를 만들었다. 주인 눈치를 봐야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스웨터를 뜨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항상 즐거웠다.

또 12월이 되면 동촌에 있는 보육원에 과일과 과자를 사 보내주기도 했다. 해마다 경북 일대의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보탰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지만, 직업이 직업인 만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란 정말 힘이 든 일이었다. 입에 풀칠은 해야겠기에 술집을 다니고는 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술집을 그만두고 싶었다.

그렇게 6~7년을 살았을 즈음 영천지부 매일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술집 아가씨가 스웨터를 짜서 고아원에 보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12시간 수술후 시한부인생 선고받아 술집여자가 포교사 될줄 아무도…

다.

부처님 법이 좋아 그저 작은 정성을 내었을 뿐이라며 거절을 했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취재에 협조했고 환자화돼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다. 그게 계기가 돼 나는 경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도지사님은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탁하라며 격려해 주셨다.

그 후 몇년이 지났을까. 이제 겨우 서른을 넘은 나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쳤다. 병이 생긴 것이다. 의료보험 카드가 없었던 나는 큰 병원 한번 가 보지 못하고 그저 병명을 알아내지도 못하는 동네 병원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다. 돈은 바닥이 나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었다.

고통스러워하며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밤 경북도지사에게 받은 표창장이 불현듯 눈에 띄었다. '아하, 지사님께 의료보험 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드려 봐야지'. 지사님께 편지를 썼다. 하루만에 도청에 편지가 도착했는지 그날 오후 5시쯤 도청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청 관계자는 내 병 상태가 심각한 것 같다며 곧바로 입원조치를 해 주었다. 황달이 심해 피부색이 까맣게 되어 버린 나를 본 의료진들은 곧 수술해야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조직검사 후 나는 장장 12시간의 수술을 받았다. 눈을 뜨고보니 살날 새벽 4시. 간암인 줄 알았는데 췌장두부암이었다는 것이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담낭절제술로 6가지 내장을 떼어내야 했던 나는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보겠다며 다녀갔다. 그러나 나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부처님이시여!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조생에 지은 업장을 닦는 간절한 마음으로 악사여래불을 입에서 놓지 않았다.

비록 몸은 병상에서 괴로웠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다. 7일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온 나의 사연이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대구시민들이 7백만원의 성금을 모아주었고, 도청의 엄지호 선생님은 두달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후에 방문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엄선생님은 보호자가 없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도 했다. 또 두달동안의 치료비 2천만원은 정부에서 선처해 주었다. 그리고 6개월이 고비였던 나에게 운문사 북대암 법춘스님, 거창 동명사 원종스님이 직접 집에까지 방문해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스님께선 '술 인연을 끊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노력해 보라'고 하시면서 유발상좌로 삼아 주셨다.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옛 뜬계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생에 지은 업장을 진실한 기도로 참회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부처님께선 나를 보실때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내가 지은 업은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그늘에 숨어있어 그를 따른다 했거늘…. 스님께서도 "이제부터 조상천도하면서 자장기도를 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늘 너를 보호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각지에서 보내주신 성금과 봉사단체



그림 · 문병성

인 푸랑단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나는 작은 가게를 차렸다. 한달 30만원에 달하는 항암제 약값 부담도 컸고, 머리가 빠지고 밥맛도 없어 5개월 먹고 항암제를 도저히 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기도로써 극복하고자 봉정암을 5번이나 다녀왔다. 3천배를 시작하면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그러나 산너머 산이라고 전에 알고 지내던 술집 아가씨에게 보증을 서 줬던 일이 있었는데 아가씨가 모두 도망을 가버리는 일이 생겼다. 그 돈의 액수는 내 수술비보다 더 큰 돈이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이 몸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난감했다. 북대암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하지만 그돈을 갚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했다. 부처님께 빌고 빌어서 얻은 목숨인데 라는 굳은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했다. 큰스님은 나에게 눈도 나빠지고 했으니 15년동안 해 왔던 뜨개질을 그만하라고 하셨다. 술장사도 그만하라고 하셨다. 나는 기뻤다. 사실 그 누군가에게서 나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보라는 격려를 받고 싶던 차였다.

그 후 나는 또다시 난소와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번민하지 않았다. 열심히 기도하고 보시행을 하면 언젠가는 부처님 가피를 받을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을 믿었다. 지금은 대구시 만촌동에 법화정사포교당을 수리하고 있다. 법당은 물론 봉사자들과 같이 소녀가장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공간으로 꾸밀 것이다.

나는 '인과응보'를 믿는다.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20여 년동안 술집을 전전하던 여자가 어찌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사가 될 것을 누가 가히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겨룩하신 부처님! 진리만을 배우면서 꾸준히 정진하고 몸으로 행하겠습니다.

눈 안마기



가격 : 49,000원

본 상품은 안마 및 지압의 본 고장인 중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아래의 근거로 설계하고 여러해 검증을 거쳐 완성한 제품입니다.

상품의 특성

1. **눈을 밝게 해줍니다.** - 현대 생물자성학(BIOMAGNETIC)과 전통적 경맥학 성과를 응용하여, 22개의 영구자석 침봉으로 눈 주위의 중요한 혈위에 작용하여, 안부세포의 생체 순환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제거하며, 안근의 탄성을 회복하여 근시, 원시, 눈부심, 약시, 노안등 안질의 자연치유성을 충분히 강화시켜줍니다.
2.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 태양혈, 잔주혈 등 머리 부분 혈위를 고주파 마그네틱 침으로 눌러 마사지하므로, 머리를 많이 써서 일어나는 어지럼증, 눈앞이 아른거림, 건망증, 불면증등 머리피로 종합증세를 신속히 제거하여줍니다.
3. **미용효과가 있습니다.** - 눈 주위의 주름살, 검어지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제거하여줍니다.

사용 방법

1) 안마기 위쪽의 건전지 뚜껑을 열고, 건전지의 극성에 맞게 넣고 뚜껑을 닫는다.
2) 안마기를 얼굴에 편안한 상태로 끼고, 쇼파나 등받이 의자등 편안한 자세로 머리를 뒤로 붙이고, 눈을 감는다.
3) 안마기를 작동한다.(안마기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시간을 미리 1분, 2분, 3분중에 맞추고 제품 정면 가운데 위치한 자동버튼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컴퓨터에 장시간 앉아 사무를 보시는 분, 고3 수험생, 눈이 자주피로해 지는 노인분들, 시력이 나쁘신 분들, 평소에 머리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사람을 찾습니다.

저번주 이 신문에 처 수림이 1999년 7월 17일 아침부터 행방불명이 된 이유는 설명하였기에 이번에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이 사진의 여성을 급하게 찾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은 처 수림의 남편인 재일한국인 저 김오남입니다.

※ 처 수림에게
이 신문을 보면 반드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두사람의 일로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했던 것 같소.
일본에 있었을 때 일, 그리고 저번에 대구의 집에 전화했었던 일, 또는 절에 전화했었던 일, 이 전화했었던 것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큰소리로 말했소. 정말로 미안하오.
여보! 용서해 주오. 당신이 대구에 있는 절에 가서 3일동안 머물렀던 방을 보았소. 그 방앞에서 나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소.
당신의 부모님도 화낸것에 대해 수림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소.
당신이 행방불명이 된 후부터 굉장히 괴로운 생활을 매일 하고 있소. 나의 돌아가신 어머님과 부처님께 맹세하고 깊이깊이 반성하고 있소.
용서해주길 바라오. 부탁하오.
나는 심장발작 또는 자살로 인해 언제 죽을지 모르오. 이말은 정말이오. 죽기전에 한번 만나고 싶소. 부탁하오
"당신을 죽을때까지 지키겠소" 라고 했던 말 기억하고 있소. 그때 당신은 "그마음 잊지말아요.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있겠어요." 라고 서로간에 약속했지 않소. 나쁜일은 전부 잊고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한번 새롭게 시작합시다.
부탁하오. 나를 살려주오 여보!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있소. 당신이 만들어준 카레라이스가 먹고 싶소.
당신을 믿고 있소. 반드시 연락을 해주기를 기다리겠소.

스님 및 절에 관련이 있는 분 또한 개인의 경우 처 수림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분은 아래의 처 수림의 동생 송미영에게 전화 주십시오. 부디,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이름: 한수림 (韓 秀 林) ◆ 생년월일: 1961년 12월 15일 ◆혈액형: AB형
◆년령: 39살(단지 39살처럼 보이지 않음 4~5살정도 젊어보임)
◆신장: 154㎝ (자그마한 체구로서 피부색은 보통입니다.)

머리카락은 길면서 파마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므로 머리를 틀어올려서 모자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어쩌면 머리스타일을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형은 사각형같은 얼굴형으로 턱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쌍커풀이 있는 눈입니다. 눈두덩이가 부운 것 같이 조금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눈썹에는 파랗고 좁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화장을 하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화장을 안했을 때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돼지코 같은 코를 하고 있고, 입술 바로 위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였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음.)
웃는 얼굴이 정말로 귀엽게 보이는 여성입니다. 이후 눈 또는 코의 성형가능성 있음.

마지막으로 매우 실례합니다만 찾아주시는 사례로 개인에는 많은 보상금을, 사찰에는 감사의 사례로 사찰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시주토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맹세하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래의 연락처 송미영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 서울 011-288-0712 / 일본 001-81-43-287-8228 송미영
한수림의 남편: 김오남(부디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디 찾아주세요. 정말 부탁 부탁 드립니다. 처 수림은 스님이 되어 머리를 깎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부모님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